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4호 2021. 1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북방과 중원의 신석기·청동기 문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배현준 ▣ 흥산문화와 중원 앙소문화의 관계 고찰 7

박진호 ▣ 중국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형태 비교

— 용산시대를 중심으로 43

이유표 ▣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계승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9

논문

이춘호 ▣ 연왕국(燕王國)에서 대연제국(大燕帝國)으로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하북진출(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123

권은주 ▣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165

서평

김주용 ▣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종합적 접근과 중층적 연구방법론 제시

— 장세운 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495쪽 203

김지훈 ▣ 두 개의 백년, 중국의 꿈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 서평

— 뤼핑한 저, 김승일·전영매 옮김,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

경지출판사, 2021, 386쪽 22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33

Contents

Special Issue **A Critical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Archaeological Culture between Northern and Central Plain Regions of China in the Neolithic and Bronze Age**

Bae Hyunjoon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ngshan and Yangshao Cultures in China 7

Park Jinho ■ Comparison of Settlement Patterns in the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of China—Focusing on Longshan Period 43

Lee Youpyo ■ A Review of the Succession Relationship between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and Shang Culture 79

Articles

Lee Chunho ■ From the Yan Kingdom to the Great Yan Empire 123

Kwen Eunju ■ Changes in the Chinese Narratives of Gojoseon, including Four Commanderies of Han, and Imna-Ilbonbu in Their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An Image of Korean Ancient History as a Mixture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Sinocentrism 165

Book Review

Kim Jooyong ■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and Suggestion of a Multi-layered Research Methodology 203

Kim Jihoon ■ Two Hundred Years, the Dream of China—Book Review of 『100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21



특집

북방과 중원의 신석기·청동기 문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산문화와 중원 양소문화의 관계 고찰

배현준 |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의 위치
- III. 홍산문화와 중원 양소문화의 관계 고찰
- I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동북, 한반도 경계 바깥 요하(遼河) 너머에 위치한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홍산문화는 중국과 한국의 변방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고고학문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동산취(東山嘴)에서 이른바 여신묘(女神廟)가 발견되고, 이어서 우하량(牛河梁)에서 무덤과 제단 역할을 하는 대형 적석총(積石塚) 유적군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단(壇)·묘(廟)·총(塚)으로 이루어진 고도로 발달된 제사체계를 보유한 문명사회가 있었음이 알려졌다. 중국학계에서는 홍산문화를 ‘다원일체’를 증명하는 중국문명의 중요한 기원지로 여기고 관련 연구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고고학 조사와 함께 유구, 유물, 취락구조, 사회시스템,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학계는 홍산문화의 요하문명론이나 문명 단계 진입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가 초기에 주를 이루다가,¹ 최근에는 홍산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로 적석총 및 무덤,² 제사체계,³ 편년⁴ 등 보다 세부적인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홍산문

* 투고: 2021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1년 11월 12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1-기획연구-24).

1 이혜련, 2008 「홍산문화의 연구현황과 문제점-토기와 옥기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우실하, 2009, 「‘요하문명론’의 초기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 『고조선단군학』 21; 조범중, 2013, 「중국 요하 문명론의 전개와 의미」, 『한국사학보』 51;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량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홍은경, 2016a, 「遼河文明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2.

2 오대양, 2013 「홍산문화 적석총유적의 형식과 발전과정」, 『동양학』 57; 원중호, 2019, 「中國 遼寧省 牛河梁 積石塚 變遷過程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윤, 2019b,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1지점 ‘여신묘’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

화와 주변지역(요동과 한반도)과의 관계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국학계에서 홍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중국 내지의 고고학문화와 연결되어 하나의 중국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열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홍산문화를 과연 중국문명의 일부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면,⁶ 중국학계의 논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고고학적 조사나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다.⁷

따라서 이 글은 중국학계에서 홍산문화를 어떤 논리에 의해서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홍산문화와 중원지역 신석기문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Ⅱ장에서는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중국학계에서 홍산문화와 중원 신석기문화를 연결시키는 논리를 검토하겠다.

考古學』44; 이청규·우명하, 2020,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107.

- 3 홍지혁, 2020, 「우하량 유적을 통해 본 홍산문화의 제사체계 형성과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69.
- 4 김재운, 2019a, 「홍산문화 편년에 대한 검토-‘압인-자문토기’를 중심으로」, 『고고학』 18-2; 김재운, 2020, 「내몽골 홍산문화의 굽은 동물형 옥기 등장시점 검토」, 『인문학연구』 45; 김재운, 2021,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연구사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41, 53~69쪽.
- 5 오대양, 2020, 「요서와 요동지역 적석총문화의 상관성 검토」, 『유라시아문화』 2; 홍은경, 2016b, 「지자문(之字紋)토기 연구」, 『인문학연구』 31.
- 6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량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7쪽.
- 7 김정열, 2017,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217~218쪽.

II.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의 위치

1. 중국문명 서방기원설과 동서이원대립설

1921년 안데르손(Andersson, 1874~1960)은 앙소촌(仰韶村) 유적을 발굴하고, 다량의 채도(彩陶)가 출토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앙소문화(仰韶文化)로 명명하였다. 그는 앙소문화의 기원을 찾기 위해 감숙성 및 칭해성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지역에서도 다수의 채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당시 중앙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 채도가 번성한 것에 착안하여 앙소문화의 기원이 서쪽에 있다는 서방기원설(西來說)을 제시하였다.⁸

이후 앙소문화의 서방기원설은 1920년대 중국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이 되었다. 1928년부터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에서 실시한 하남성 안양(安陽) 은허(殷墟) 발굴을 통해 상문화(商文化)의 존재가 알려지고, 1930년에는 산둥성 용산(龍山) 성자애(城子涯) 발굴을 통해 흑도(黑陶)를 특징으로 하는 용산문화(龍山文化)가 확인되었다. 서중서(徐中舒)는 용산문화와 은허 발굴 성과를 종합하여 중국문화의 뿌리가 환발해만(環渤海灣) 일대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⁹ 한편, 하남 안양(安陽) 후강(後崗) 발굴을 통해 층위상으로 하층은 홍도와 소량의 채도로 대표되는 앙소문화층, 중층은 흑도로 대표되는 용산문화층, 상층은 회도와 승문도로 대표되는 상대 후기 문화층으로 각 문화의 층위관계가 확인되었으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앙소문화와 용산문화-은허문화는 서로 다른 계통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용산문화에서 확인되는 흑도(黑陶)와 복골(卜骨) 등은 은허문화와 유사하므로 용산문화는 상문화에 속하지만, 앙소문화는 그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앙소문화는 서에서 발생하여 동으로 확산하고, 용산문화는 동에서 발생하여 서로 확산하여

8 安特生, 1923, 「中華遠古之文化」, 『地質彙報』 5.

9 徐中舒, 1931, 「再論小屯與仰韶」, 『安陽發掘報告』(第三冊), 556~557쪽.

서로 다른 계통을 가지는 두 문화가 대립하고 있다는 동서이원대립설(東西二元對立說)이 제시되었다.¹⁰ 즉, 앙소문화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용산문화와 상문화는 동일 기원을 가지며 연속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 연구 성과가 1933년 부사년(傅斯年)이 이허동서설(夷夏東西說)¹¹을 주창하는 배경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중원중심론의 대두

1930년대 후반 유요(劉耀)는 앙소촌 유적에도 용산문화 유물이 섞여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앙소문화와 용산문화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¹² 학계에서 동서이원대립설이 주류로 인식된 상태여서 그다지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중국문명의 동서이원대립설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기원설의 주창자인 안데르손이었다. 그는 1937년 성자에 등의 용산문화 토기를 관찰한 후 앙소촌과 부초채(不招寨)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용산문화, 특히 성자에 하층 출토품과 유사한 토기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두 유적 중 부초채 유적에서 앙소문화의 채도는 보이지 않는 반면, 다른 토기와 석기의 특징이 안양 소둔(小屯) 상문화와 유사함을 파악하고 처음으로 부초채가 앙소촌보다 시간적으로 늦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당시까지도 앙소촌에서 발견된 홍색, 흑색, 회색 등 3종의 토기를 별도의 고고학문화로 구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앙소문화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즉, 그는 앙소문화와 용산문화를 선후 관계를 가지는 동일 계통의 문화로 여기고, 앙소촌에서 발견된 흑도는 막 출현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채도가 쇠퇴한 이후 그 기초 위에서 도구

10 梁思永, 1959, 「小屯龍山與仰韶」(1933),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91쪽.

11 傅斯年, 2018, 「夷夏東西說」(1933), 『民族與古代中國史』, 北京出版社.

12 劉耀, 1947, 「龍山文化與仰韶文化之分析」, 『考古學報』 1947-2, 251~335쪽. 발표는 1947년이지만, 원고는 民國 26년에 작성되었다.

(陶鬻), 복골(卜骨), 성벽(城牆) 등을 가지는 문화가 발전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용산문화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¹³ 그리고 용산문화는 앙소문화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였으며, 이 두 문화는 선후 계승 관계를 가지므로 각기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동시기에 병립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1952년 하남성 정주(鄭州) 이리강(二里崗) 유적, 1956년 하남성 삼문협(三門峽) 묘저구(廟底溝) 유적, 1959년 하남성 언사(偃師) 이리두(二里頭) 유적이 순차적으로 발굴되었다. 이 시기 중원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계기로 상대 후기인 은허보다 이른 시기의 상대 전기 도성인 정주상성(鄭州商城) 유적이 발견되었고, 이어서 이리두 유적이 발견되어 용산문화와 상문명 사이에 하왕조의 고고학적 실체로 추정되는 새로운 고고학문화인 이리두문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¹⁴

이 중 묘저구 유적의 발굴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 유적에서 앙소문화층 위에 용산문화층이 있음이 층위적으로 명확히 밝혀졌고, 앙소문화 후기의 특징과 일부 용산문화 초기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고고학문화가 있음이 인식되었다.¹⁵ 이 앙소문화와 용산문화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고고학문화는 묘저구2기문화(廟底溝二期文化)로 명명되었다.¹⁶ 결국 ‘앙소문화-묘저구2기문화-용산문화-상문화’로 이어지는 고고학적 계보가 완성된 것이다. 여기에 이리두 유적과 이리강 유적에 대한 연구성과가 더해져서 ‘앙소문화-묘저구2기문화-용산문화-이리두문화-이리강기 상문화-은허기 상문화’로 이어지는 문화유형의 계기적인 발전 계승관계를 밝혀냈으며, 중국문명의 본토기

13 J. G. Andersson, 1943, “Researches into the prehistory of the Chinese.” *Bulletin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BMFEA), No. 15, p. 76.(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1895~1949)』,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89쪽에서 재인용)

14 정대영, 2004, 「中國文明起源研究의 動向과 成果-中國考古學의 研究成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3, 228쪽.

15 安志敏, 1959, 「試論黃河流域新石器時代文化」, 『考古』 1959-10.

1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廟底溝與三裏橋』, 科學出版社.

원설과 중원중심의 일원적 발전론이 성립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¹⁷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9년 안지민(安志敏)은 황하 유역의 고대문명은 세계 각지의 대하천 유역의 고대문명과 마찬가지로 황하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장강 유역 및 변방지역의 고대문화는 모두 황하 유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¹⁸ 같은 해 석흥방(石興邦) 역시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황하 유역은 중국 역사 발전의 중심지이며, 역사상 다민족국가의 형성은 바로 이 지역을 핵심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하 유역의 고고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지역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¹⁹ 즉, ‘황하 유역이 중화민족의 요람이고 중국의 민족문화는 여기에서 발전하였으며, 이후 주변으로 확산하여 비교적 낙후한 주변지역의 문화는 중원지역의 영향하에서 비로소 발전하였다’라는 중원중심론(中原中心論)이 탄생한 것이다.

3. 홍산문화의 발견과 중원중심론의 해체: 구계유형론, 중판화타, 중국상호작용론

1) 홍산문화의 발견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각지에서 고고학 발굴이 왕성하게 전개되면서 이들의 시공적 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으로 대두되었다. 1972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실험실에서는 첫 번째 방사성탄소연대 데이터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안지민은 양소문화와 용산문화 및 서북지역, 장강 하류, 장강 중류, 서남지역의 문화 서열을 정립하였다.²⁰ 1977년 하내(夏鼐)는 방사성탄소

17 정대영, 2004, 앞의 글, 230쪽.

18 安志敏, 1959, 앞의 글.

19 石興邦, 1959, 「黃河流域原始社會考古研究上的若幹問題」, 『考古』 1959-10.

20 安志敏, 1972, 「略論中國新石器時代文化的年代問題」, 『考古』 1972-6.

연대를 참고하여, 중원, 황하 상류의 감청(甘靑)지역, 황하 하류와 예대(豫岱)지역, 장강 중하류, 민월(閩粵) 연해, 서남지역과 동북지역 등 7개 지역 고고학문화의 시공적 틀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였다.²¹ 이제 황하 유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고학문화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원중심론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한편, 1978년 엄문명(嚴文明)은 감숙성 채도문화의 기원, 발전과 변천을 정리한 후, 채도문화가 섬서의 관중(關中)지역에서 출현한 이후 동에서 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앙소문화 서방기원설의 오류를 지적하였다.²² 이를 계기로 중국학계에서 서방기원설은 기본적으로 극복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요령성 조양시(朝陽市) 객좌현(喀左縣) 동산취(東山嘴) 유적에서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석채 건축물과 옥기 및 인물상이 발견된다. 1983년에는 건평현(建平縣)과 능원시(凌源市)에서 홍산문화 우하량(牛河梁) 유적군을 발견하였고, 이 중 대형 ‘여신묘(女神廟)’와 ‘적석총(積石塚)’을 발굴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홍산문화 연구에서 제일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중대 발견으로, 중국학계 지대한 충격을 주었다. 중원문화가 제일 우수하다는 인식과 달리 동북 변방에서 중원지역보다 선진적인 문화가 발견된 것이다. 동산취와 우하량의 발견은 일시에 국내 학술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동산취 유적이 발견된 후 1982년 8월 초 소병기(蘇秉琦)는 다음 해로 예정된 ‘연산남북, 장성지대 고고좌담회(燕山南北·長城地帶考古座談會)’를 요령 조양시에서 열고, 동산취 유적을 답사하며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고, 우하량 유적이 발견된 후 하내는 1985년 중국고고학회의 연례회의를 심양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였다.²³ 당시 중국고고학계의 관심은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제

21 夏鼐, 1977, 「碳-14 年代測定和中國史前考古學」, 『考古』 1977-4.

22 嚴文明, 1978, 「甘肅彩陶的源流」, 『文物』 1978-10, 62~76쪽. 안데르슨이 서방기원설을 제기한 이후 중국학계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위에서 엄문명은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고고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방기원설을 반박하였다.

홍산문화를 중국문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2) 구계유형론과 중국 상호작용권의 등장

1981년 소병기는 ‘구계유형(區系類型)’ 학설을 제시하였다.²⁴ 중국 선사문화를 섬예진(陝豫晉)과 주변지역, 산둥과 주변지역, 호북과 주변지역, 장강하류, 남방지역(鄱陽湖-珠江三角洲 중심), 장성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 등 총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 6개 권역 및 권역 간 상호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 6개의 권역이 단순히 지리적 구분에 그치지 않고, 각 권역의 구계(區系)는 각자의 문화 연원과 특징,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계 간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중원지역은 단지 6개의 구계 중 하나이며, 중원지역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역시 중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중원지역은 결코 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중원과 주변의 여러 지역은 서로 대등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소병기가 주창한 ‘구계유형론’의 기본 방법론은 당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중국고고학의 시공간적 틀을 건립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에 ‘중원중심’적 시각으로 중국 경내의 지역 문화를 바라보던 관점에서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중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문화

23 賈笑冰, 2021, 「紅山文化與中國考古學百年歷程」, 中國考古網(2021-04-07) http://nearme.yidianzixun.com/article/OTkBdf9?s=&appid=browser&publisher_id__=ur77f1BO7XPcHMLfkeobmg(검색일: 2021. 7. 9.).

24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1981-5. 소병기의 구계유형론은 1981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홍산문화 제사 유적의 발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1960년대부터 구계유형론의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점차 구체화하여 1981년 정식 보고되기 전에도 다수의 강연회를 통해 동일한 시각을 피력하였다. 1981년의 글도 1979년 4월 서안에서 개최된 전국고고학규회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구계유형론 자체의 출현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 강인옥,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56.

가 대등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중국고고학계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²⁵

이후 1986년 장광직(張光直)은 ‘중국 상호작용권(中國相互作用圈)’ 모델을 제시하였다.²⁶ 그는 기원전 7000~기원전 6000년, 기원전 5000년, 기원전 4000~기원전 3000년의 신석기문화의 특징과 분포를 분석한 후, 기원전 5000년기에는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기도 하고 이전 문화가 확산되기도 하였으며, 기원전 4000년에는 이 문화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 기원전 4000년은 중국 경 내에 홍산(紅山), 소주산(小珠山), 양소(仰韶), 대문구(大汶口), 대계(大溪), 산배(山背), 마가빈(馬家浜), 하모도(河姆渡), 석협(石峽)-현석산(曇石山)-봉비두(鳳鼻頭) 등 총 9개의 각각 특색을 지닌 문화계통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여, 하나의 커다란 ‘문화상호작용권’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권역 내 각 문화 계통은 보기에는 평등하고 대등하게 독립된 공간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이 중국문명기원의 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외부의 작용망과 함께 2,000년 동안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는 기원전 3000년기 말에 국가, 도시와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고, 이후 진한(秦漢) 제국부터 시작된 통일된 중국 역사의 형성에 각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선사시대에 이미 형성된 권역과 권역 외부의 구별은 이후 역사 시기까지 이어져 현대 ‘중국’이 형성되는 기초가 된 것이므로 ‘중국 상호작용권’의 형성은 곧 ‘최초의 중국(最初的中國)’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3) 중판화타와 다원일체설

1987년 엄문명은 중국문명기원의 ‘중판화타(重瓣花朵: 겹꽃잎꽃)’ 모델을 제시

25 李新偉, 2012, 「中國史前文化格局構建的心路歷程」, 『考古學研究』九, 文物出版社.

26 K, C. Chang,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fourth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張光直, 1989,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1~23쪽.

하였다.²⁷ 그는 중원문화구는 위하(渭河) 유역과 진섭예(晉陝豫) 3성의 인접지구를 중심으로 하며, 범위는 거의 대부분의 섬서성, 산서성, 허북성, 허남성 전역을 아우르는 제일 핵심이 되는 지역이고, 그 주변의 감청문화구, 산둥(山東)문화구, 연료(燕遼)문화구, 장강중류구, 강저(江浙)문화구 등 5개의 문화구가 중원문화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중원문화구는 꽃의 중심(花心)인 꽃술로, 주변의 5개 문화구는 꽃술을 둘러싼 꽃잎으로 비유하였다. 이 주변 구역으로 이루어진 꽃잎에 다시 현석산(曇石山), 대분갱(大盆坑), 석협(石峽), 백양촌(白羊村), 카약(卡若), 양양계(昂昂溪) 등의 소지역 문화가 있어 마치 꽃잎이 겹쳐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원지역이 처음부터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꽃의 구조가 원래 중앙의 꽃술과 주변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중원지역의 위치가 천부적으로 중심에 위치한다는 요인 때문에 각 지역으로부터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선진적인 요소를 흡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문명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국은 꽃잎이 모두 꽃의 중심을 향하여 연결된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업문명의 ‘중판화타’ 모델은 구계유형론이나 중국 상호작용권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꽃잎을 통해 각 지역의 독립된 다양성을 비유하지만, 중원을 꽃의 중심, 핵심 위치로 설정하고 꽃잎이 중심을 향한 구조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선사시대의 각 구역 문화가 중원지역과 평등한 관계가 아님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선사문화의 다원적 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중원과 주변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²⁸ 결국 중판화타는 구계유형론과 중원중심론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홍산문화의 발견으로 구계유형론과 중국 상호작용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하면서 ‘중원중심론’은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중판화타 개

27 嚴文明, 1987, 「中國史前文化的統一性和多樣性」, 『文物』1987-3.

28 吳春明, 2013, 「“重瓣花朵”與“多元一體”」, 『南方文物』2013-1, 6~9쪽.

념에서 볼 수 있듯이 중원을 중국 문명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사실 중국에서 표방하는 ‘다원일체(多元一體)’ 개념 역시 중원중심론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을 주창한 비효통(費孝通)은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격국(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²⁹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은 접촉·혼합·연결과 융합의 과정을 거치고, 동시에 분열과 쇠퇴를 거듭하며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다원일체 형국에는 응집된 핵심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석기 시기부터 청동기시대를 거쳐 황하 중류에서 형성된 화하(華夏)집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후 진한 시기를 거치며 이러한 다원성에 기초한 통일된 한족(漢族)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이는 엄문명이 말한 것처럼 ‘현대 중국은 한족을 주체(主體)로 하면서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이러한 형국의 뿌리는 멀고 먼 선사시대에 있다’³⁰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비효통의 ‘다원일체’는 엄문명의 ‘중관화타’처럼 중심(중원, 한족)과 주변(주변지역, 소수민족)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된 중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통치이념이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 문명 또는 중국 민족에 대한 이해의 틀이 중원중심론 → 다원일체로 새롭게 전환되고, 다원일체의 시작을 신석기시대로 보는 계기는 홍산문화의 발견에 있으며, 당시 중원지역보다 선진적인 문화요소를 가진 홍산문화를 어떻게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9 費孝通, 1989,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北京大學學報』1989-4.

30 嚴文明, 1987, 앞의 글.

Ⅲ. 홍산문화와 중원 앙소문화의 관계 고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산문화의 발견은 중국고고학계에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홍산문화를 중국 문명의 일부로 여기는 것일까. 그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산문화와 중원지역의 신석기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소병기의 화산매괴연산룡(華山玫瑰燕山龍)³¹

홍산문화는 채도의 존재로 인해 일찍부터 중원지역의 신석기문화(앙소문화)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었지만 이 두 가지 문화를 구체적으로 연결한 것은 구계유형론을 주창한 소병기였다. 그는 신석기시대부터 하상주(夏商周)에 이르는 시기의 변천 과정을 ‘華山玫瑰燕山龍, 大青山下壘與甕, 汾河岸邊磬和鼓, 夏商周及晉文公.’이라는 다분히 시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華山玫瑰’는 화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의 주요 특징인 채도의 장미꽃 도안을 의미하고, ‘燕山龍’은 연산이북에 위치한 홍산문화 채도의 용린문(龍鱗紋) 도안을 의미한다. ‘大青山’은 내몽골 중남부 하투(河套)지역 동편에 위치하는데, 이 일대의 하곡(河曲)지역에서 출토된 앙소문화의 소구첨저병(小口尖底瓶)의 제작 방식을 계승한 삼대족기(三袋足器)³²가(罍)와 웅(甕)을 의미한다. 삼대족기의 대족은 앙소문화의 토기 제작 전통이지만 몸체는 하투지역에 기원이 있는 단형웅(蛋形甕)의 전통이 결합되어 탄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삼대족기

31 蘇秉琦 지음, 朴載福 옮김, 2008, 『中國 文明의 起源을 새롭게 탐구한 區系類型論』, 도서출판 考古. 이 절은 기본적으로 이 책 제5장과 제6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출처가 다를 경우는 따로 표기하였다.

32 소병기는 이 삼대족기의 다리인 대족(袋足) 부분의 제작방식이 앙소문화의 소구첨저병의 저부 제작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는 홍산문화에서 전국 시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유행하는 한편,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汾河岸邊磬和鼓’는 도사(陶寺) 유적에서 출토된 악기로 추정되는 석경과 북을 의미하는데, 북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며 북을 두드리는 가죽 부분은 없지만 북 내부에서 악어 골판(骨板)이 출토되어 고문헌에 나오는 타고(鼙鼓)로 이해된다. ‘夏商周及晉文公’은 도사문화(陶寺文化)의 전통이 있는 중원지역에서 하상주 삼대(三代)가 형성 및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구절은 크게 3개의 지역 간 교류를 시간상으로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소병기는 서남방의 ‘양소문화(묘저구유형)-하상(夏商)문화’, 북방의 ‘하투지역 신석기문화-청동기문화’, 동북방의 ‘홍산문화-하가점하층문화’가 상호 교류한 것으로 보고, 그 교차점으로 하북성 서북부 장가구(張家口) 지역을 지목하였다. 장가구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三關遺蹟)에서 홍산문화, 양소문화 묘저구유형, 안양 후강1기문화(後崗一期文化) 요소가 모두 확인되고, 대족기(袋足器) 역시 확인되어 여기서 세 지역의 문화가 합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가구

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갈래길(三岔口)’과 ‘Y형 문화대(Y形文化帶)’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7,000~5,000년 전 사이에 화산의 양소문화 묘저구유형에 기원을 두고 있는 장미꽃 무늬가 서남에서 동북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황하, 분하(汾河), 태행산을 따라 북상하여, 산서성, 하북성 북부의 상간하(桑幹河) 상류에 이르고 다시 내몽골 하곡 지역에 이른 후, 연산 북부 대릉하(大凌河)에 연원이 있는 홍산문화와 충돌한 후 화(花, 華)와 용(龍)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다시 하곡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여 삼대족기의 출현을 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5,000~4,000년 전 사이 분하를 따라 다시 남하하여, 진남에서 주변(주로 동방과 동남방)에서 연원한 여러 문화들과 다시 결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도사문화인 것이다. 이 도사문화는 이후 하상주 삼대로 이어지는 문명화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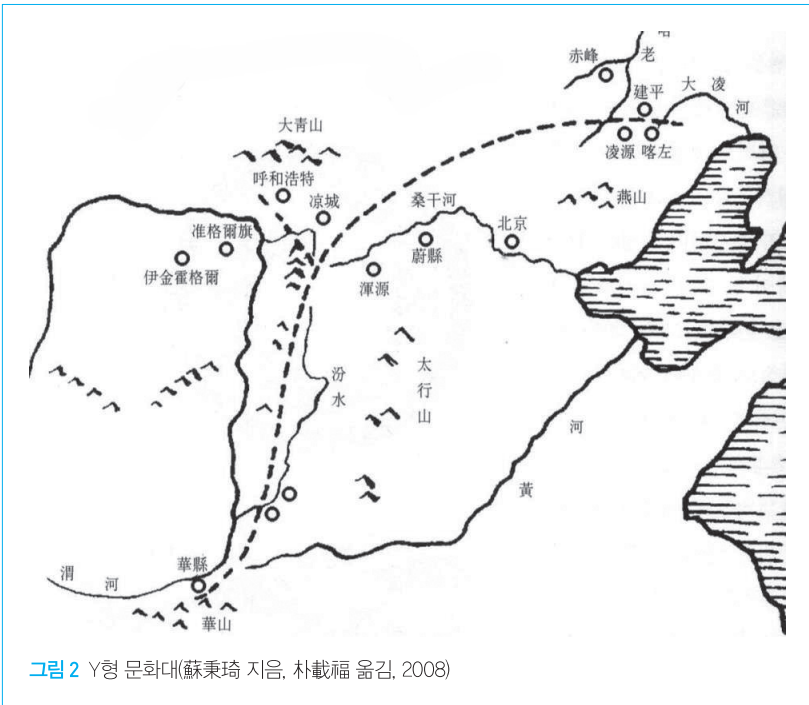


그림 2 Y형 문화대(蘇秉琦 지음, 卞載福 옮김, 2008)

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바로 이 Y형 문화대에서 오늘날의 화인(華人), 용의 계승자, 중국인과 관련된 요소가 모두 확인되기에 중국문명 기원 중 핵심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2. 홍산문화와 앙소문화 묘저구유형과의 관계 고찰

중국문명의 발화는 홍산문화와 앙소문화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홍산문화의 용린문 채도문양과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의 장미꽃으로 비유되는 구련문(勾蓮紋)의 만남인 것이다. 대체로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의 구련문이 홍산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홍산문화에서 구련문 채도가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절에서는 채도를 중심으로 홍산문화의 채도가 묘저구유형의 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홍산문화와 앙소문화의 시공적 병행관계

(1) 홍산문화의 시공간 범위

홍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노합하(老哈河), 대소릉하(大小凌河)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넓게는 동쪽으로 의무려산을 넘어 하요하 서안에 다다르고, 남쪽은 발해연안과 화북평원 북부에 이른다. 한편, 고미선(高美漩)과 이공독(李恭篤)에 의하면 내몽골 동남부지역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홍산문화 유적이 분포하며, 대릉하 유역은 비교적 늦은 시기의 홍산문화 유적이 분포한다고 한다.³³ 홍산문화는 대체로 6,500년~5,000년 전의 시간 범위를 가진다. 이 긴 시간 동안 존속한 홍산문화는 세부적으로 2분기,³⁴ 3분기,³⁵

33 高美漩·李恭篤, 1986,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紅山文化遺存分期探索」, 『考古』 1986-6.

34 高美漩·李恭篤, 1986, 위의 글; 趙賓福, 2003, 『東北石器時代考古』, 吉林大學出版社.

35 楊虎, 1989, 「關於紅山文化的幾個問題」,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周年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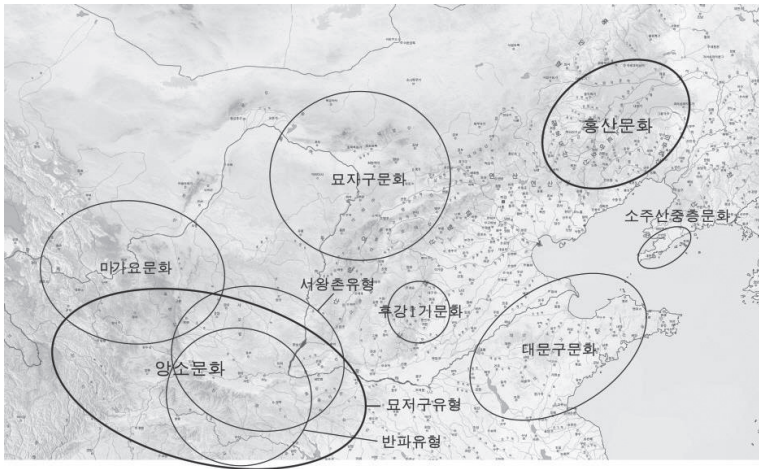


그림 3 홍산문화와 양소문화 분포 범위

4분기³⁶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전, 중, 후기 등 3분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기는 6,500~6,000년 전, 중기는 6,000~5,500년 전, 후기는 5,500~5,000년 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 集』, 文物出版社; 張星德, 1991, 「紅山文化分期初探」, 『考古』 1991-8; 顧昱, 2001, 「紅山文化陶器分期研究」, 『四川大學考古專業創建四十周年暨馮漢驥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四川大學出版社; 趙賓福·薛振華, 2012, 「以陶器爲視角的紅山文化發展階段研究」, 『考古學報』 2012-1; 劉國祥, 201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 36 朱延平, 1997, 「東北地區南部公元前三千紀初以遠的新石器考古學文化編年·譜系及相關問題」, 『考古學文化論集(四)』, 文物出版社; 陳國慶, 2008, 「紅山文化研究」, 『華夏考古』 2008-3; 索秀芬, 2011, 「紅山文化研究」, 『考古學報』 2011-3.
- 3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10, 『中國考古學·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44~345쪽; 趙賓福·薛振華, 2012, 앞의 글; 劉國祥, 2015, 앞의 책, 19쪽.

(2) 양소문화의 시공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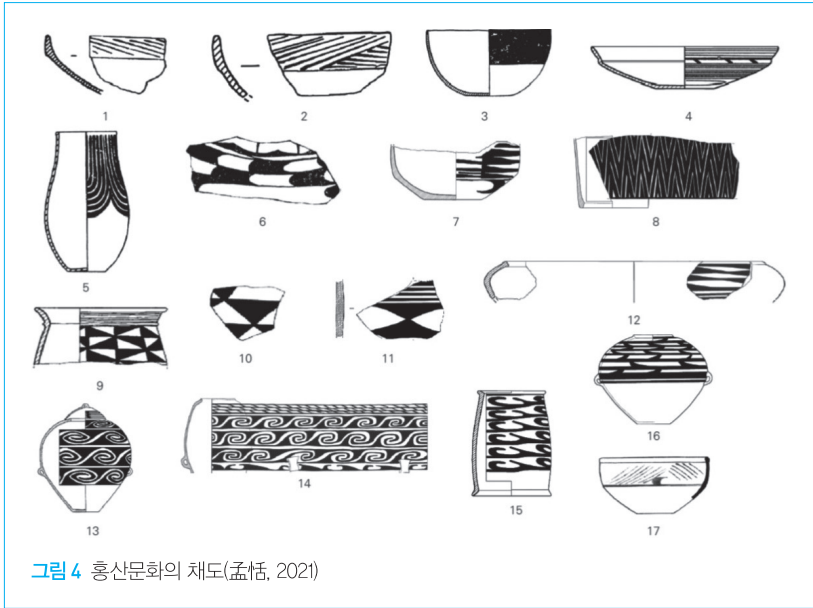
양소문화는 위하 유역의 관중(關中: 섬서성 중부), 진남(晉南: 산서성 남부), 예서(豫西: 하남성 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서로는 감숙성의 조하(洮河) 유역과 칭해성의 동부, 동으로는 황하 하류지역, 북으로는 내몽골 남부, 남으로는 한수(漢水) 상류와 서한수(西漢水) 유역까지 분포한다. 분포지역과 존속 시기가 넓고 긴 만큼 다양한 하위 문화유형을 가진다. 현재까지도 양소문화의 하위 문화유형과 각 존속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 문화유형간의 단선적인 계보를 파악하기 힘들다.³⁸ 여기서는 반파유형, 묘저구유형(廟底溝類型), 서왕촌유형(西王村類型)을 대표적인 문화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은 시간적으로도 선후관계를 가지는데 양소문화를 전·중·후기로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7,000~6,000년 전인 전기는 반파유형이 대표적이고, 약 6,000~5,500년 전인 중기는 묘저구유형이 대표적이며, 약 5,500~5,000년 전인 후기는 서왕촌유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

2) 홍산문화와 양소문화 묘저구유형의 관계 고찰-채도를 중심으로

홍산문화에서는 전기의 늦은 단계에 채도가 출현하여 중기부터 번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채도는 홍산문화 후기 우하량 단계가 되면 제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된 토기에 채도문양이 주로 장식된다. 채도의 문양은 크게 기하학문(幾何形), 수린문(垂鱗紋)·용린문(龍鱗紋), 구련와문(勾連渦紋)으로 구분된다.³⁹

이 중 류국상은 전기를 6,200년 전, 중기를 5,800년 전, 후기를 5,300년 전을 기준으로 각각 2단계로 세분한다. 한편, 김재운(2019)은 홍산문화의 시간 범위는 6,000~4,400년 전이고, 일반적으로 후기로 편년하는 우하량 유적군은 5,000~4,400년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홍산문화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견해가 있어, 중국학계의 홍산문화 연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중국학계에서 홍산문화를 중원지역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까지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6,500~5,000년 전의 시간 범위를 따르고자 한다.

38 張宏彥, 2006, 「關於仰韶文化時空範圍的界定問題」, 『考古與文物』 2006-5, 66~70쪽.



그런데 이러한 채도는 홍산문화 이전 단계의 신석기문화(소하서문화, 홍릉와문화, 부하문화, 조보구문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외래의 영향으로 형성된 점은 틀림없다. 한편, 황하 상류 감청지역의 대지만문화(大地灣文化) 전기(7,000~6,000년 전, 조보구문화와 병행)에는 이미 채도가 출현하여,⁴⁰ 홍산문화의 채도는 황하 유역의 채도 요소를 수용한 결과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원지역의 양소문화에서도 채도가 성행하는데, 양소문화 반파유형(7,000~6,000년 전)의 채도는 기하학문과 물고기, 사슴, 개구리, 새 문양이 확인되며, 특히 물고기문양(魚紋)이 특징적이다. 반파유형 다음 단계인 묘저구유형

3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 文物出版社.

4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10, 앞의 책, 121쪽.

(6,000~5,500년 전)의 채도는 이전 단계의 단순한 기하학문과 곡선, 장식성이 강조된 화려한 화훼(花卉)문양이 주를 이루며, 동물문양은 새문양을 특징으로 한다.⁴¹

이에 대해 곽대순(郭大順)은 홍산문화의 이전 단계부터 존재하였던 각획문 전통의 용문양이 그 형태는 유지하되 채도기법이 적용되며, 양소문화 묘저구유형의 구련문이 확인되는 것은 소빙기가 ‘華山玫瑰燕山龍’으로 표현한 것처럼 중원과 동북의 결합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결합에 의해 홍산문화의 ‘단묘총’이 요서지역에서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곧 중화문화의 전통이 처음 출현함을 의미하는데, 우하량 유적의 ‘단’의 평면형태의 전반부는 북경 천단(天壇)의 환구(圓丘)와 비슷하고, 후반부는 천단 기년전(祈年殿)의 평면 방향의 기단과 비슷하며, 묘에서 출토된 채색 신상의 눈에 옥석을 상감하여 눈동자를 만든 것은 전통 채소기법(彩塑技法)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총의 구조와 후세 제왕의 능묘가 유사하다. 이와 함께 채도 문양에서 보이는 용과 꽃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화인(華人)’과 ‘용의 후손(龍的傳人)’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⁴²

그런데 홍산문화 채도와 양소문화 채도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양소문화 묘저구유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출현했다는 홍산문화와 양소문화 묘저구유형 구련문의 차이성에 대해서는 왕인상(王仁湘)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묘저구유형의 채도가 산서, 하남, 호북, 섬서, 감숙, 산둥, 소북(蘇北) 등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홍산문화의 구련문 스타일과 묘저구유형의 구련문은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⁴³ 물론, 조빈복(趙賓福)의 견해처럼 큰 틀에서는 도안의 구도 방식이 유사하여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⁴⁴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면 홍산문화의 구련문은 사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10, 위의 책, 245쪽.

42 郭大順, 2006, 「從“三岔口”到“Y”形文化帶—重溫蘇秉琦先生關於中華文化與文明起源的一段論述」, 『內蒙古文物考古』 2006-2, 96~104쪽.

43 王仁湘, 2011, 『史前中國的藝術浪潮—廟底溝文化彩陶研究』, 文物出版社.

44 趙賓福·任瑞波, 2016, 「中國東北地區新石器時代彩陶研究」, 『考古與文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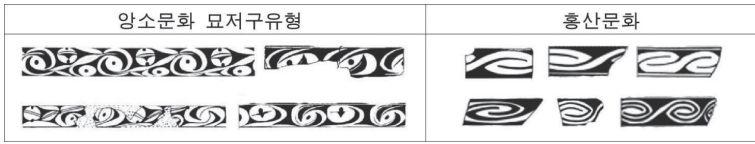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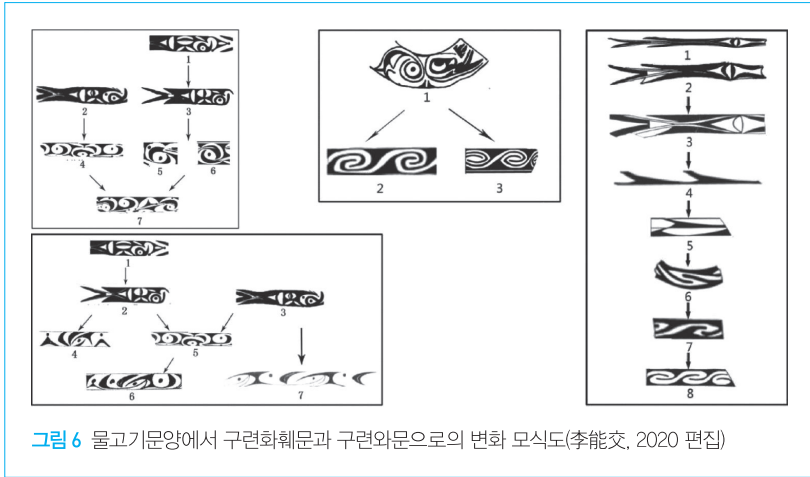
그림 5 묘저구유형과 홍산문화 구련문(李能交, 2020 편집)

선으로 누운 'S' 자의 양 끝단이 안으로 말린 형태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문양대를 구성하며 기하학문과 같이 단순한 형태이다. 반면 묘저구유형의 구련문은 꽃의 중앙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에서 꽃잎으로 추정되는 2개 또는 3개의 갈퀴가 꽃의 중심을 감싸며 휘돌아 나오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그중 하나의 갈퀴는 사선으로 길게 뻗으며 다음 문양 단위와 연결되면서 문양대를 구성하는데 장식성이 상당하여 꽃이나 넝쿨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묘저구유형 구련문의 문양 단위는 연속되기도 하지만 단속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양의 차이를 고려하면 홍산문화의 구련문은 '구련와문(勾連渦紋)', 묘저구유형의 구련문은 '구련화훼문(勾連花卉紋)'으로 구분하는 것이 형태적 차이를 더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문양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⁴⁵ 이능교(李能交)의 연구에 따르면 묘저구유형 구련화훼문의 기원은 반파유형에서 유행하던 물고기문양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도식화된 물고기의 얼굴과 몸통 내부의 문양이 점차 추상화되고, 물고기라는 외형을 잃어간다. 나중에는 내부의 문양이 더욱 추상화되어 마치 꽃 또는 넝쿨이 얽힌 형태의 문양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홍산문화의 구련와문 역시 물고기문양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문양의 추상화 방향

2016-1, 26~37쪽.

45 李能交, 2020, 「中國北方新石器時代晚期勾連渦紋彩陶紋樣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의 차이로 인해 구련와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변화도를 참고하면, 구련화훼문은 그 변천 과정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반면, 구련와문의 변천 과정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구련와문은 물고기문양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홍룡와문화에서 볼 수 있는 타래문 계통 문양과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홍룡와문화와 홍산문화 사이의 시간 차이 때문에 양자의 연결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타래문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존속하는 문양이어서 홍룡와문화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홍산문화 바로 이전 단계인 조보구문화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어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홍산문화 이전 단계에 이미 존재했던 각획문으로 표현된 타래문 계통(그림 7-15)이 홍산문화의 채도 속에서 구련와문으로 구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홍산문화의 채도 문양은 대부분 홍산문화 이전 같은 지역 고고학문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주연평(朱延平)은 8종의 홍산문화 채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⁴⁶ 홍산문화 채도의 평행사선문(平行斜線紋), 흑채구련문(黑



그림 7 홍산문화 채도와 동북지역 각형, 압인문 토기 비교(趙賓福·任瑞波, 2016 수정 가필)

1. 호두구통(胡頭溝筒) 5 2. 서수천(西水泉)H4:2 3. 나사태 채집(那斯台采) 4. 이도량(二道梁)T69 ①:1 5. 삼도만지(三道灣子)H1:4 6. 소동산(小東山)G1:120 7. 나사태 채집 8. 서수천F17:4 9. 호두구통5 10. 백음장한(白音長汗)AF9 ②:8 11. 백음장한BF62 ③:1 12. 백음장한AF31 ①:6 13. 서수천H1:5 14. 정구자서량(井溝子西梁)F1 ②:34 15. 백음장한AF32 ①:6 16. 백음장한AH45:10 17. 남태지(南台地)3546F1:2 18. 백음장한BF5 ①:7 19. 백음장한BF68 ③:1

彩勾連紋), 흑채린격문(黑彩鱗格紋), 횡방향 평생사선문, 종방향의 긴 삼각흑채화문(長三角黑彩花紋), 횡방향의 긴 삼각문, 능형흑채화문(菱形黑彩花紋), 다중반원형 수호문(多重半環狀垂弧紋) 등은 모두 홍룡와문화와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전기단계의 각형문 또는 압인문과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⁴⁷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서지역에서 홍산문화보다 이른 소하서문화, 홍룡와문화, 부하문화, 조보구문화에서는 모두 채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홍산문화 채도의 출현은 의심의 여지없이 외부 문화요소의 영향으로 생긴 결과이며, 당시 채도가 유행하던 앙소문화 문화권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46 朱延平, 2007, 「紅山文化彩陶紋樣探源」, 『邊疆考古研究(6)』, 科學出版社.

47 趙賓福·任瑞波, 2016, 앞의 글, 26~37쪽.

그런데 그것이 소병기나 광대순이 말하는 것처럼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가령 홍산문화 중기의 이른 단계에 속하는 주거지 내에서 후강1기문화의 전형적인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후강1기문화는 6,500~5,500년 전이며, 홍산문화의 전기, 중기에 해당한다. 이는 홍산문화와 후강1기문화 사이에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산문화의 채도 공예 기술은 아마 후강1기문화가 요서지역에 전파된 결과일 가능성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⁴⁸ 따라서 묘저구유형 이전 시기부터 황하 유역과의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는 묘저구유형 단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묘저구유형과의 관계는, 객좌 동산취에서 출토된 채도 원저발의 문양이 묘저구유형에서 확인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함이 지적된 바 있으며,⁴⁹ 이 외에도 소량의 렴구관, 채도발, 쌍이관류에서 기형과 문양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⁵⁰ 앙소문화 묘저구유형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교류하였을까.

홍산문화와 묘저구유형의 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내몽골 중남부에 분포하는 묘자구문화(廟子溝文化)의 존재가 주목된다. 묘자구문화는 묘자구유형(廟子溝類型), 해생불랑유형(海生不浪類型), 아선2기유형(阿善二期類型)이 있으며 여기서 채도, 흑도, 소량의 홍채가 발견되었다. 채도의 문양은 구련문, 평행선문, 방격문, 삼각문 등이 있다. 이러한 채도 문양은 모두 홍산문화의 채도 문양과 유사하다.⁵¹ 그리고 이 묘자구유형에서는 전형적인 묘저구유형의 토기와 채도도 함께 발견된다.⁵² 따라서 이 묘자구문화는 앙소문화 묘저구유형과 홍산문화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묘저구유형과 홍산문화는

48 劉國祥, 2015, 앞의 책, 19쪽.

49 朱延平, 2007, 앞의 글.

50 陳國慶, 2012, 「紅山文化來源在探討」, 『邊疆考古研究(11)』, 科學出版社.

51 陳國慶, 2012, 위의 글.

52 魏建·常璐, 2015, 「廟子溝文化與馬家窯文化比較研究」, 『邊疆考古研究(18)』, 科學出版社.



묘저구문화를 통해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간접적인 관계는 묘저구유형과 홍산문화의 채도의 사용방식이나 사회구조의 차이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즉, 홍산문화 사회는 대형의 단, 묘, 총으로 대표되는 종교 중심의 사회로 이와 관련된 특수한 의미를 지닌 다수의 채도와 옥기가 사용된다. 반면, 묘저구유형 사회는 무덤의 규모는 크더라도 부장품은 소략하고, 대형 취락과 대형 공공건축이 존재한다.⁵³ 채도는 일상용기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옥기는 소수의 옥월(玉鉞)과 같은 기종을 제외하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백겸(李伯謙)은 홍산문화를 신권에 의존하는 사회, 양소문화는 군권과 왕권에 의존하는 사회로 규정하기도 하였다.⁵⁴ 따라서 홍산문화와 양소문화 묘저구유형은 기반 문화와 사회적 성격 자체가 다른 가운데 채도의 존재와 문양의 일부 유사성만 있을 뿐이다. 이 역시 묘저구유형이 홍산문화에 직접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53 李新偉, 2020, 「“華山玫瑰燕山龍”與“良渚琮璧海岱城”-蘇秉琦區系類型理論的新思考」, 『南方文物』 2020-1, 1~8쪽.

54 李伯謙, 2009, 「中國古代文明演進的兩種模式-紅山, 良渚, 仰韶大墓隨葬玉器觀察隨想」, 『文物』 2009-3, 47~56쪽.

IV. 맺음말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 단·묘·총 유적군의 발견은 기존의 ‘중원중심론’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다양한 지역문화를 평등하고 대등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구계유형론’, ‘중국상호작용권’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출현하도록 하였다. 물론 여러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원지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중원화’ 같은 복합적인 관점도 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다원일체론’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중원지역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문화를 하나의 중국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홍산문화의 경우, 중원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에서 유행하던 채도가 출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원문화와 홍산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이 교류하던 통로(Y형 문화대)를 당시 중국에서 문화의 교류와 충돌이 제일 활발한 용광로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도 문양의 차이와 용도, 기반 문화와 사회적 성격의 차이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으며, 채도의 교류 역시 홍산문화와 묘저구유형 양자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묘저구문화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홍산문화와 중원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산문화를 중국문명의 일부로 여기는 근거는 묘저구유형의 채도와 의 관계를 다소 확대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학계의 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한반도 역시 중국문명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가령, 신석기시대 중기 빗살무늬토기문화에서 보이는 문양요소의 홍산문화와의 관련성, 중국 연안에서도 발견되는 첨저 기형 토기 등의 요소,⁵⁵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의 외반구연호와 도작농업의 출현이 중국과

55 임상택, 2014,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의 비교」, 『백산학보』 100, 117~161쪽.

연관성이 있다는 것⁵⁶ 등의 사례들 역시 일부 문화요소의 공통점 외 이를 제외한 유적유물 구성이나 당시 사회의 기반 문화는 차이점이 훨씬 크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 정보 교환망이나 상호작용권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또는 내륙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중국학계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문화와 송국리문화 역시 중국문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 비약된 점이 있지만 논리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나 청동기문화를 중국문명의 일부로 보는 견해를 한국학자나 중국학자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6 안재호, 2019, 「松菊里文化의 起源 再考」, 『영남고고학』 83, 91~125쪽.

참고문헌

단행본

- 蘇秉琦 지음·朴載福 옮김, 2008, 『中國 文明의 起源을 새롭게 탐구한 區系類型論』, 도서출판 考古.
- 王仁湘, 2011, 『史前中國의 藝術浪潮-廟底溝文化彩陶研究』,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 文物出版社.
- 趙賓福, 2003, 『東北石器時代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廟底溝與三里橋』,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10, 『中國考古學·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1895~1949)』,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Chang, K. 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fourth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논문

- 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56.
- 김재운, 2019a, 「홍산문화 편년에 대한 검토-‘압인-자문토기’를 중심으로」, 『고고학』 18-2.
- _____, 2019b,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1지점 ‘여신묘’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4.
- _____, 2020, 「내몽골 홍산문화의 굽은 동물형 옥기 등장시점 검토」, 『인문학연구』 45.
- _____, 2021,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연구사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41.
-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량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 _____, 2017,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 안재호, 2019, 「松菊里文化의 起源 再考」, 『영남고고학』 83.
- 오대양, 2013 「홍산문화 적석총유적의 형식과 발전과정」, 『동양학』 57.
- _____, 2020, 「요서와 요동지역 적석총문화의 상관성 검토」, 『유라시아문화』 2.
- 우실하, 2009, 「‘요하문명론’의 초기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 『고조선단군학』 21.
- 원중호, 2019, 「中國 遼寧省 牛河梁 積石塚 變遷過程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청규·우명하, 2020,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107.
- 이해련, 2008, 「홍산문화의 연구현황과 문제점-토기와 옥기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택, 2014,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의 비교」, 『백산학보』 100.
- 정대영, 2004, 「中國文明起源研究의 動向과 成果-中國考古學의 研究成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3.
- 조법중, 2013, 「중국 요하문명론의 전개와 의미」, 『한국사학보』 51.
- 홍은경, 2016a, 「遼河文明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2.
- _____, 2016b, 「지자문(之字紋)토기 연구」, 『인문학연구』 31.
- 홍지현, 2020, 「우하량 유적을 통해 본 홍산문화의 제사체계 형성과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69.
- 顧罡, 2001, 「紅山文化陶器分期研究」, 『四川大學考古專業創建四十周年暨馮漢驥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四川大學出版社.
- 高美漩·李恭篤, 1986,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紅山文化遺存分期探索」, 『考古』 1986-6.
- 郭大順, 2006, 「從“三岔口”到“Y”形文化帶-重溫蘇秉琦先生關於中華文化與文明起源的一段論述」, 『內蒙古文物考古』 2006-2.
- 孟恬, 2021, 「紅山文化彩陶紋樣的類型及其相關問題」, 『文物鑒定與鑒賞』 2021-4.
- 傅斯年, 2018, 「夷夏東西說」(1933), 『民族與古代中國史』, 北京出版社.
- 費孝通, 1989,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北京大學學報』 1989-4.
- 徐中舒, 1931, 「再論小屯與仰韶」, 『安陽發掘報告』(第三冊), 中研院-歷史語言研

究所.

- 石興邦, 1959, 「黃河流域原始社會考古研究上的若幹問題」, 『考古』 1959-10
- 索秀芬, 2011, 「紅山文化研究」, 『考古學報』 2011-3.
-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 安志敏, 1959, 「試論黃河流域新石器時代文化」, 『考古』 1959-10.
- , 1972, 「略論中國新石器時代文化的年代問題」, 『考古』 1972-6.
- 安特生, 1923, 「中華遠古之文化」, 『地質彙報』 5.
- 梁思永, 1959, 「小屯龍山與仰韶」(1933),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 楊虎, 1989, 「關於紅山文化的幾個問題」,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周年論文集』, 文物出版社
- 嚴文明, 1978, 「甘肅彩陶的源流」, 『文物』, 1978-10.
- , 1987, 「中國史前文化的統一性和多樣性」, 『文物』 1987-3.
- 吳春明, 2013, 「“重瓣花朵”與“多元一體”」, 『南方文物』 2013-1.
- 魏建·常璐, 2015, 「廟子溝文化與馬家窯文化比較研究」, 『邊疆考古研究(18)』, 科學出版社.
- 劉國祥, 201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 劉耀, 1947, 「龍山文化與仰韶文化之分析」, 『考古學報』 1947-2.
- 李能交, 2020, 「中國北方新石器時代晚期勾連渦紋彩陶紋樣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伯謙, 2009, 「中國古代文明演進的兩種模式-紅山, 良渚, 仰韶大墓隨葬玉器觀察隨想」, 『文物』 2009-3.
- 李新偉, 2012, 「中國史前文化格局構建的心路歷程」, 『考古學研究』 九, 文物出版社.
- , 2020, 「“華山玫瑰燕山龍”與“良渚琮璧海岱城”-蘇秉琦區系類型理論的新思考」, 『南方文物』 2020-1.
- 張光直, 1989,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 張宏彥, 2006, 「關於仰韶文化時空範圍的界定問題」, 『考古與文物』 2006-5.
- 張星德, 1991, 「紅山文化分期初探」, 『考古』 1991-8.
- 趙賓福·薛振華, 2012, 「以陶器為視角的紅山文化發展階段研究」, 『考古學報』 2012-1.

- 趙賓福·任瑞波, 2016, 「中國東北地區新石器時代彩陶研究」, 『考古與文物』 2016-1.
- 朱延平, 1997, 「東北地區南部公元前三千紀初以遠的新石器考古學文化編年·譜系及相關問題」, 『考古學文化論集(四)』, 文物出版社.
- _____, 2007, 「紅山文化彩陶紋樣探源」, 『邊疆考古研究(6)』, 科學出版社.
- 陳國慶, 2008, 「紅山文化研究」, 『華夏考古』 2008-3.
- _____, 2012, 「紅山文化來源在探討」, 『邊疆考古研究(11)』, 科學出版社.
- 夏鼐, 1977, 「碳-14 年代測定和中國史前考古學」, 『考古』 1977-4.

Andersson, J. G., 1943, "Researches into the prehistory of the Chinese." *Bulletin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BMFEA) No. 15.

기타 자료

- 賈笑冰, 2021, 「紅山文化與中國考古學百年曆程」, 中國考古網(2021-04-07)
 [http://nearme.yidianzixun.com/article/OTkBdfd9?s=&appid=browser&__publisher_id__=ur77f1BO7XPcHMLfkeobmg(검색일: 2021. 7. 9.)].

홍산문화와 중원 앙소문화의 관계 고찰

배현준

중국고고학에서 홍산문화 단·묘·총 유적군의 발견은 기존의 ‘중원중심론’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다양한 지역문화를 평등하고 대등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구계유형론’, ‘중국상호작용권’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출현하도록 하였다. 물론 여러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원지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복합적인 관점도 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다원일체론’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중원지역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문화를 하나의 중국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실제적 근거가 필요하다. 홍산문화의 경우, 중원 앙소문화 묘저구유형에서 유행하던 채도가 출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원문화와 홍산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이 교류하던 통로(Y형 문화대)를 당시 중국에서 문화의 교류와 충돌이 제일 활발한 용광로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도 문양의 차이와 용도, 기반 문화와 사회적 성격의 차이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으며, 채도의 교류 역시 홍산문화와 묘저구유형 양자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묘저구문화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홍

산문화와 중원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산문화를 중국문명의 일부로 여기는 근거는 묘저구유형의 채도와의 관계를 다소 과장하였기 때문이다. 채도에서 보이는 일부 유사성 외에는 고고학적 물질문화 및 사회 성격의 차이가 크다.

주제어: 신석기시대, 홍산문화, 양소문화, 묘저구유형, 채도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ngshan and Yangshao Cultures in China

Bae Hyunjoon

In Chinese archaeology, the discovery of Hongshan culture promoted the disintegration of the ‘Central Plains Center Theory’, and the emergence of the ‘Regional System Theory’ and ‘Chinese Interaction Circle Theory’, which observed the cultures of each region without bias. Of course, there still existed theor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Central Plains, while respecting the diversity of regional cultures. These theories finally became the ‘Diversity in Unity Theory’.

In an attempt to put regional cultures, that are diverse, independent and sometimes more advanced than the Central Plains, in one China, evidences connecting them become necessary. For instance, popular painted pottery of Miaodigou type in the Yangshao culture of the Central Plains are also found in the Hongshan culture, implying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It would be considered that the Central Plains culture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Hongshan culture, and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se is regarded as the most active cultural belt in China.

But there exists the differences and functions of painted pottery patterns, in addition, basic culture and social characteristics have more differences than commonalities. And the communication of painted pottery is not the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but the communication through Miaozigou type is more likely. Therefore, the basis for taking Hongshan culture as a part of Chinese civilization is not solid.

The reason why the Hongshan culture is usually considered as part of Chinese civilization is because it exagg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ted pottery in Hongshan Culture and Miaodigou culture. In fact, apart from the few similarities that can be seen on painted pottery, there exists no common ground between the two cultures in either archaeological culture or social characteristics.

Keywords: Neolithic Age, Hongshan culture, Yangshao culture, Miaodigou type, Painted pottery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형태 비교

– 용산시대를 중심으로

박진호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북방지역의 취락 유적 검토
- III. 중원지역의 취락 유적 검토
- IV. 북방 석성문화와 주변문화의 관계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중국 고고학계는 섬서성(陝西省) 유림시(榆林市)에서 발견된 석묘(石峁) 유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석묘 유적은 용산시대¹ 후기-이리두문화 초기²에 해당하는 석성 유적으로, 면적은 400만m²를 넘는다. 단순히 면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중원(中原)지역의 도사 유적(289만m²), 이리두 유적(300만m²)보다 규모가 큰데, 이는 중국 선사 유적에서 발견된 규모가 가장 큰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이 유적을 용산시대 후기 북방문화권을 대표하는 초대형 중

* 투고: 2021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11월 12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1-기획연구-24).

- 1 용산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뉘는데, 좁은 의미는 산둥지역에서 발견된 흑색마연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후기문화를, 넓은 의미는 산둥지역을 포괄하는 황하 유역 일대에서 발견된 흑색마연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후기 문화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 차이에 의해 산둥지역의 용산문화를 ‘산둥 용산문화’ 혹은 ‘전형 용산문화’로 지칭하며, 하남성, 섬서성 일대에서 발견되는 용산문화를 개별적인 문화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엄문명(嚴文明)은 ‘산둥 이외 지역에서 용산문화라고 불리던 것들에 대해 각자 고유한 문화로서 적절한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동시에 이들의 연대 범위가 대체로 비슷하고, 유물에서 보이는 유사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 황하 유역에서 나타나는 신석기시대 후기문화들을 ‘용산시대’로 포괄하여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용산시대’의 연대는 기원전 2800~기원전 1700년 정도이며, 전기(기원전 2800~기원전 2300)와 후기(기원전 2300~기원전 1700)로 나뉜다. 이 ‘용산시대’라는 용어가 국내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범위가 신석기시대 후기의 황하 중류지역(하남성, 섬서성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글 전체의 편의를 위해 ‘용산시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嚴文明, 1981, 「龍山文化與龍山時代」, 『文物』 第六期, 41~48쪽; 오대양, 2017, 「산둥 용산문화의 최근 연구동향과 쟁점」, 『백산학보』 109, 5~15쪽 참조.
- 2 대략 기원전 2300~기원전 180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심취락으로 규정하고 2012년 “10대 고고학 신발견(十大考古新發現)”에 선정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세계문화유산 예비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 유적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선사 유적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제외하고라도, 중화문명 발전사에서 국가기원을 찾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기존에는 중원지역 이리두 유적 2기 단계 이후에 발견되는 궁전지 등을 포함하는 대형 성지와, 도사유적 중기 이후의 궁전지, 왕족묘, 기상관측대 등의 유구를 포괄하는 성지를 국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초대형 취락으로 인식하였지만, 최근 이보다 규모가 큰 석묘유적이 발견되자 이 유적 또한 국가급 정치체를 통제하던 초대형 중심취락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³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선사 유적을 고대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연결하거나, 중화문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⁴

하지만 석묘 유적이 위치한 섬서성 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원지역과 구별되는 북방지역으로 인식되었고, 고고학적인 양상 또한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북방지역 용산시대에 나타나는 석성⁵에 주목하였다. 당시 중원지역에서는 토축 담장을 두른 토성이 활발히 건설되었고, 이것은 북방지역에서 석성이 활발히 건설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석묘 유적이 발견되는 섬서성 북부와 그 인근 북방지역의 취락 형태, 그리고 중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취락형태에 대해 기초적인 비교를 통하여 용산시대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논하고, 석묘 유적을 비롯한 북방지역의 석성문화가 중원문명의 구성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戴向明, 2014, 「陶寺, 石峁與二裏頭」, 『夏商都邑與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 沈長雲, 2019b, 「黃帝部族居邑石峁」, 『中國地名』第二期, 中國地名學研究會; 沈長雲, 2019a, 「石峁遺址與華夏民族的發祥」, 『中華文化論壇』第六期, 四川省社會科學院.

5 유적의 규모 및 그 내부에서 발견되는 유구들의 복합화 정도에 상관없이 석축 담장을 두른 취락을 석성으로 칭하였다.

II. 북방지역의 취락 유적 검토

용산시대 이전의 북방지역은 중원지역과 함께 양소문화권으로 여겨졌으며, 취락형태 또한 두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시대가 되면서 북방만의 특색이 발현되기 시작하여, 문화적으로 큰 특징을 가진 독립적 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돌을 이용해 담장을 쌓고, 주거지 등의 유구를 만든 것이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두 유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북으로 내몽골 중남부지역, 남으로 섬서성 북부, 산서성 서북부지역까지 석성이 출현한다.

1. 음산(陰山)산맥 남부

음산산맥은 내몽골 중남부지역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산맥으로, 황하를 사이에 두고 오르도스고원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용산시대 취락 유적은 아선(阿善), 서원(西圓), 사목가(莎木佳), 흑마판(黑麻板), 위준(威俊) 유적 등 5곳으로, 음산산맥에 속하는 대청산 남쪽 기슭에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⁶ 모두 용산시대 전기의 아선문화(阿善文化) 단계에 해당한다. 각 유적은 2개 혹은 3개 지점으로 구성되며, 각 지점은 서로 다른 대지(臺地)에 위치한다. 아래에서는 이 유적들 중 아선 유적과 위준 유적을 소개한다.

1) 아선 유적

내몽골자치구 포두시(包頭市) 아선구문(阿善溝門) 동쪽 지역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2개의 지점으로 구성되며, 각 지점은 서로 다른 대지에 위치한다. 유적 면적은 5만m² 정도이다. 유적은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1기와 2기에서는 돌을 이용한 유구가 보이지 않고 수혈식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3기에서 발견

6 許宏, 2017, 『先秦城邑考古』, 金城出版社, 69~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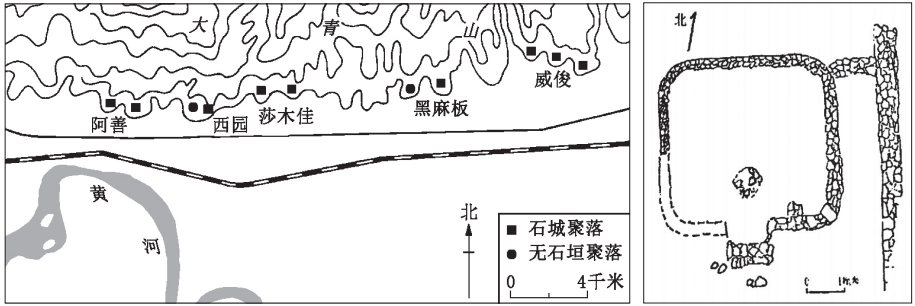


그림 1 음산산맥 남부지역의 취락 배치(좌)와 아선 유적 F1호 주거지(우) (좌: 許宏, 2017; 우: 內蒙古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所, 2009a)

되는 주거지는 대부분 석축의 지상식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지상식 석축 주거지의 평면은 방형, 장방형, 타원형 등으로 다양한 편이며, 크기도 균일하지 않다. 유적 남단에서는 특수한 석조 건축물 터가 발견되었는데, 잔존 길이가 51m, 평면은 만곡한 호형(弧形)이다(그림 1).⁷

2) 위준 유적

아선 유적이 위치한 대청산 남쪽 기슭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동서로 세 지점⁸이 배열된 형태이다. 세 지점은 동서로 약 1,500m 범위에 위치하며 모두 석축 담장이 유적을 두르는 석성취락이다. 세 취락은 모두 대지 위에 건설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위준 I 지점의 면적은 약 1만 4,000m², II 지점은 1만 8,000m², III 지점은 약 8,000m²이다. 세 취락에서 모두 주거지가 발견

7 內蒙古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 包頭市文物管理所, 2009a, 「內蒙古包頭市阿善遺址發掘簡報」, 『包頭文物考古文集(上)』, 內蒙古大學出版社.

8 원 보고서에는 VI호, VII호, VIII호 대지로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각각 I, II, III 지점으로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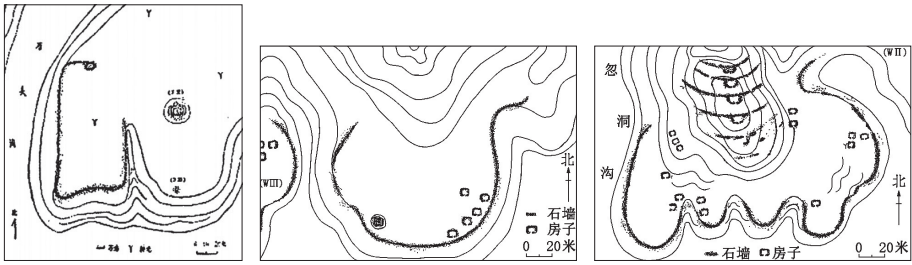


그림 2 위준 유적 I지점(좌), II지점(중), III지점(우) 지점 평면도(좌: 內蒙古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 包頭市文物管理所, 2009b; 중·우: 許宏, 2017)

되었으며, 두 취락에서 제단유구로 추측되는 건축물이 발견되었다(그림 2).⁹

2. 대해(岱海)지역

대해는 내몽골자치구 오란찰포시(烏爾察布市) 양성현(涼城縣)에 위치한 호수로, 대해지역은 그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에서 발견된 용산시대 취락은 서백옥(西白玉), 노호산(老虎山), 판성(板城), 대묘파(大廟坡) 유적 등 10여 곳이다. 유적 규모는 대부분 10만m² 이내이며, 유적 간 거리는 약 3~5km이다. 10여 곳 중 언급한 네 곳의 유적이 석축 담장을 두른 석성취락이다. 그중 서백옥, 노호산, 판성 세 유적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며, 대묘파 유적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분포한다. 네 유적은 모두 만한산(繡漢山)의 동남쪽 기슭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석축 담장은 유적의 두 면 혹은 세 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유적 내부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열을 짓거나 밀집되어 배치되고 있다. 대해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 간 면적 차이나 유구, 유물 등 방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중심취락

9 內蒙古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 包頭市文物管理所, 2009b, 「包頭威俊新石器時代地面建築遺址」, 『包頭文物考古文集(上)』, 內蒙古大學出版社.

을 규정하기 어렵다.¹⁰ 이 지역에서 용산시대 전기 아선문화 단계의 취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용산시대 후기인 노호산문화 단계에 속한다.

1) 노호산 유적

내몽골자치구 양성현 영흥진에 위치한 석성취락이다.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 내 고도 차이가 100m 정도이다. 평면은 불규칙 삼각형이며, 면적은 약 13만²m²이다. 담장은 흙으로 형태를 잡고 그 바깥에 다시 돌을 쌓은 형태이다. 유적 내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는 방형 구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위를 한 변의 길이가 약 40m인 석축 담장이 두르고 있다. 그 내부에 다시 석축 건축물의 흔적이 남아 있어 제단류 유구로 추측된다. 전체 유적은 산세에 의해 8개의 단을 형성하는데, 매 단마다 주거지들이 분포해 있다. 유적 서남쪽의 담장 바깥에서는 토기가마가 발견되어 유적이 토기 제작 구역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노호산 유적을 두르고 있는 담장은 먼저 흙을 층층히 쌓는 판축 기법을 이용했으며, 다시 바깥으로 돌을 쌓아 완성하였다. 또한 돌 사이에는 잡석과 진흙을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그림 3 좌).¹¹

2) 판성 유적

내몽골자치구 양성현 영흥진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노호산 유적에서 3.5km 떨어져 있다. 유적의 정상부에는 5m² 크기의 방형 석축 제단 5기가 있는데, 산 등성이를 따라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약 200m로, 석축 제단의 중심부에서 소토면(燒土面)이 발견되어 제단류 유구로 추측하고 있다(그림 3 우).¹²

10 許宏, 2017, 앞의 책, 93~94쪽.

11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0, 『岱海考古(一)-老虎山文化遺址發掘報告集』, 科學出版社, 199~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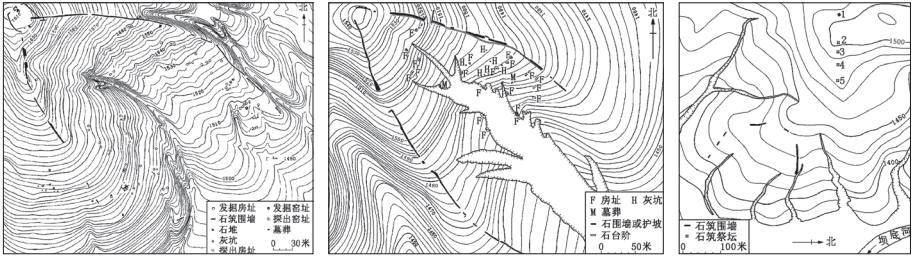


그림 3 노호산 유적(좌), 서백옥 유적(중), 판성 유적(우)의 평면도(許宏, 2017)

3) 서백옥 유적

서백옥 유적은 내몽골자치구 양성현 영흥진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노호산 유적과 형태가 비슷한데, 면적만 약간 작다(약 9만m²)(그림 3 중).¹³

3. 남류황하(南流黄河) 유역

남쪽으로 흐르는 황하라는 뜻으로, 황하 주변으로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격이기(准格爾旗),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청수하현(清水河縣), 섬서성 북부, 산서성 서북부 지역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 지역에서는 용산시대 전기 아선문화 단계의 유적과 후기의 노호산문화 유적이 모두 발견된다. 준격이기 지역의 백초탑(白草塔), 채자탑(寨子塔), 채자상(寨子上), 채자을단(寨子坛), 산서성 백애구(白崖溝) 유적 등은 아선문화 단계에 해당하며, 섬서성 석라라산(石擦擦山), 석묘(石峁), 목주주량(木柱柱梁), 산서성 벽촌(碧村) 유적 등은 노호산문화 단계에 해당한다.

12 許宏, 2017, 앞의 책, 95쪽.

13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0, 앞의 책, 393~458쪽; 許宏, 2017, 위의 책, 95쪽.

1) 백초탑 유적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격이기 백초탑촌에 위치한 석성취락이다. 하투(河套) 일대의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석성지로 여겨지는데, 그 연대 상한은 대략 중원지역의 앙소시대 묘저구2기문화 단계로 편년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이 절벽과 황하로 둘러싸여 석축 담장(길이 약 240m)이 발견된 곳은 동남쪽뿐이다. 유적에서는 수혈식 주거지들이 발견되었는데, 연대가 이른 주거지는 물론 늦은 주거지 또한 석축 담장 내부에 분포하고 있어, 석축 담장을 두른 취락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연용되었음을 보여준다(그림 4 좌).¹⁴

2) 채자탑 유적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격이기 동부에 위치하는 석성취락으로, 인근의 용산시대 전기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약 5만m²)이다. 유적의 동, 서, 남쪽의 지세가 험해 북쪽에만 평행하는 두 줄의 석축 담장이 건설되었다. 두 줄의 담장은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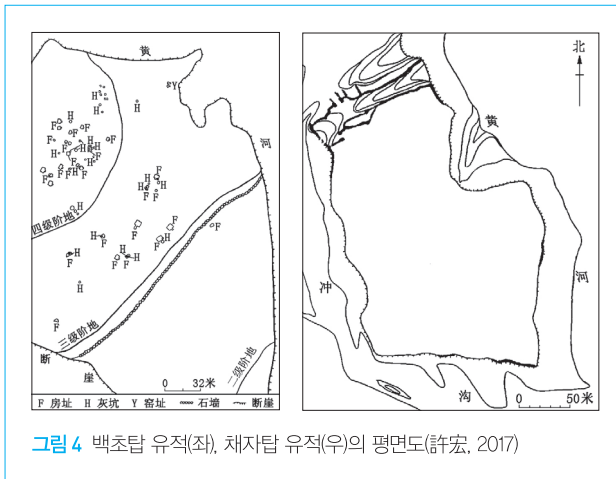


그림 4 백초탑 유적(좌), 채자탑 유적(우)의 평면도(許宏, 2017)

14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a, 「准格爾旗白草塔遺址」, 『內蒙古文物考古文集(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82~205쪽; 許宏, 2017, 앞의 책, 71~72쪽.

가 각각 142m, 137m로 문지가 발견되었다. 담장은 기본적으로 흙을 쌓아 올린 뒤 바깥으로 돌을 쌓아 완성하였고, 그 사이에는 잡석과 진흙을 채워 넣었다. 석축 담장 바깥으로 환호가 발견되었으며, 이 외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4 우).¹⁵

3) 채자상 유적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격이기 마가을단촌(馬家坨旦村)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백초탑 유적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유적은 약 3만m²로, 평면은 대체로 장방형을 띠지만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유적 외곽으로 석축 담장을 건설했는데, 동남쪽 일부에서는 담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3기의 주거지 중 2기가 석축 담장을 두른 지면식이다(그림 5 우).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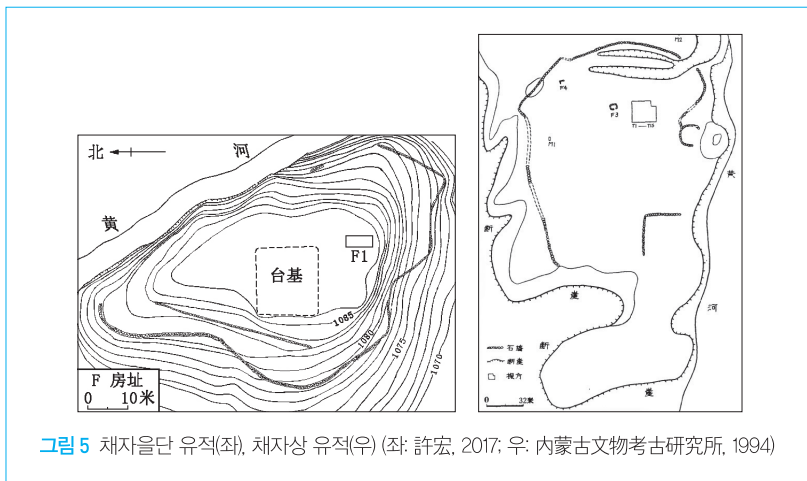


그림 5 채자을단 유적(좌), 채자상 유적(우) (좌: 許宏, 2017; 우: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15 許宏, 2017, 위의 책, 72쪽.

1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b, 「准格爾旗寨子上遺址發掘簡報」, 앞의 책, 174~182쪽.

4) 채자을단 유적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격이기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석축 담장이 구릉 정상부를 두르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1만 5,000m²이며, 석축 담장의 하단 너비는 약 4.5m, 상단 너비는 약 0.5~3.5m, 잔고 1.5m이다. 유적의 중심부에 인공적으로 터를 다진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제단류의 유구로 여겨진다(그림 5 좌).¹⁷

5) 백애구 유적

산서성 흥현(興縣)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용산시대 전기 석성 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큰 유적이다(약 120만m²). 석축 담장이 유적의 외곽을 두르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다. 취락 내부에서는 바닥에 그림이 그려진 주거지, 무덤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유적의 규모로 보아 부근의 취락을 대표하는 중심 취락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6 좌).¹⁸



17 許宏, 2017, 앞의 책, 72쪽.

18 許宏, 2017, 위의 책, 73쪽.

6) 벽촌 유적

산서성 흥현 벽촌에 위치한 석성취락이다. 석묘 유적과 동시기의 석성으로, 총면적은 약 75만²m²이다. 유적 동쪽에서 석축 담장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잔존 길이는 약 200m이다. 유적 중심에서 칸을 구분한 석축 주거지가 발견되었다(그림 6 우).¹⁹

7) 석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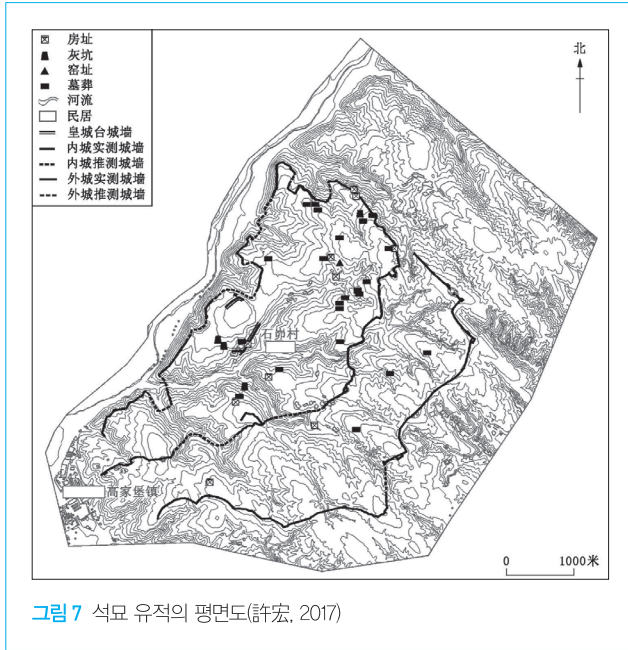
섬서성 유림시 신목시(神木市)에 위치한 대형 석성취락이다. 용산시대 후기 중에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며, 황하 지류인 독미하(秃尾河) 주변의 구릉 지대(해발 약 1,100~1,300m)에 위치한다. 유적은 내성(210만²m²), 외성(내·외성 사이 190만²m²) 그리고 그 내부의 황성대(皇城臺)로 구성된 대형 석성지로, 총면적은 400만²m²를 넘는다. 그중 황성대는 네 주위를 돌로 에워싸 계단형태로 만든 구역으로, 대체로 말각 방형의 형태를 띤다. 황성대 정상부 면적은 8만²m² 이상으로 이 지역 중·소형 취락보다 큰 규모이다. 내성 외곽으로는 황성대를 중심으로 산세를 따라서 석축 성벽을 쌓았다.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으로 동북-서남 방향으로 긴 모습이다. 외성은 내성 동남부 성벽에 이어 건설되었으며, 동남 방향을 향해 한 줄의 불규칙한 호형 벽을 쌓아 이었다. 황성대와 내·외성 성벽에서 모두 성문과 돈대(墩臺), 옹성류의 부속 건축 유구가 발견되었고, 외성벽에는 마면(馬面)이나 각루 등이 발견되었다.²⁰ 여러 학자는 이러한 유구들을 보고 석묘유적 강한 방어적 특성을 가지는 유적이라고 하였다(그림 7).²¹

현재 내성의 일부 구역과 외성 동북쪽 문지만 발견되어, 자세한 유적의 면모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적 범위 내 여러 곳에서 거주구역, 토기가마,

19 王曉毅, 張光輝, 2016, 「興縣碧村龍山時代遺存初探」, 『考古與文物』 第四期, 80~87쪽; 許宏, 2017, 위의 책, 95쪽.

20 陝西省考古研究院 主編, 2016, 『發現石峁』, 文物出版社, 30~142쪽; 許宏, 2017, 위의 책, 98~100쪽.

21 陝西省考古研究院 主編, 2016, 앞의 책, 146~136쪽.



무덤구역 등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었다. 유적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층위관계에 근거해 해당 유적의 연대를 용산시대 후기-이리두 초기²²로 편년하고 있다.

8) 석라라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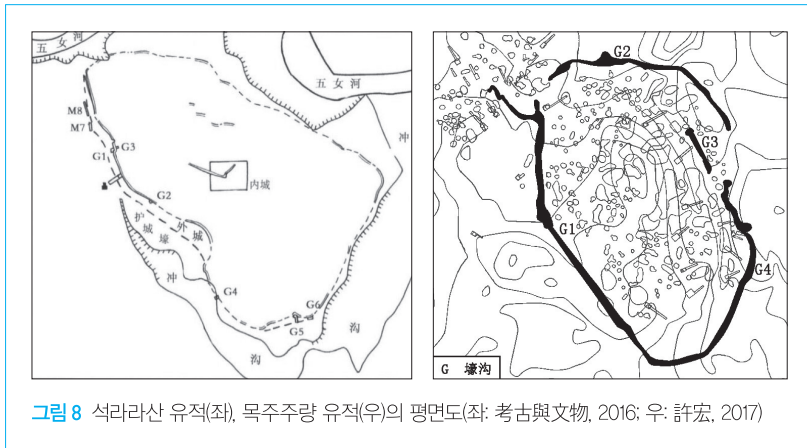
섬서성 가현(佳縣)에 위치한 석성취락으로, 산 정상부에 건설된 내성, 산의 중하부를 두르는 외성 그리고 서남쪽 외성 담장과 평행하는 환호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약 15만m²이다. 내성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면적은 약 3,000m²이다. 외성은 불규칙한 사변형으로 취락 내부 면적은 약 6만m²이다. 내성벽과 외성벽 모두 먼저 돌을 쌓고 진흙으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으

22 대략 기원전 2300~기원전 1800년 전후의 시기이다.

며, 일부분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담장을 짓지 않았다. 이 유적은 용산시대 전기의 아선문화 단계에 지어져 노호산문화 시기까지 연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8 좌).²³

9) 목주주랑 유적

섬서성 유림시 신목시에 위치한 취락으로, 인근의 동시기(용산시대 만기) 유적 중 유일하게 석축 담장이 없고, 환호만 존재하는 취락이다. 환호의 전체 형태는 타원형이며, 깊이는 2.5~3m이다. 유적 면적은 약 1만 7,000m²이다. 그 내부에서 주거지와 회갱 등이 발견되었다. 연대는 용산시대 만기이다(그림 8 우).²⁴



23 陕西省考古研究院, 2016, 「陝西佳縣石椽山遺址龍山遺存發掘簡報」, 『考古與文物』第4期, 3~13쪽.

24 許宏, 2017, 앞의 책, 101~102쪽.

Ⅲ. 중원지역의 취락 유적 검토

중원지역에서 용산시대 이전의 앙소시대에는 환호를 두른 취락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앙소시대 후기에 와서야 판축 성벽을 두른 성지가 출현하였고, 용산시대에 와서는 더욱 많은 유적이 판축 성벽을 건설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용산시대 중원지역의 취락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서성 남부지역

산서성 남부지역의 용산시대 취락은 도사유적을 비롯해 임분분지(臨汾盆地)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분지는 분하(汾河) 하류 유역에 위치하며, 지금까지 100여 곳 이상의 동시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유적들은 면적과 유구·유물 발견 정황에 따라 각각의 등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중심 취락에는 도사 유적이 꼽힌다. 여기에서는 도사 유적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유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도사 유적

산서성 양분현(襄汾縣) 도사촌에서 발견된 대형 취락 유적으로, 중원지역 용산시대 유적 중 규모가 가장 큰 유적이다. 연대는 기원전 2600~기원전 200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건설된 소성, 중기에 건설된 소성과 대성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중기 대성(약 289만 m^2)의 평면은 대체로 방형이며, 초기 소성(약 56만 m^2)은 대성의 동북부에 위치한다. 중기 대성이 건설될 당시 초기 소성은 폐기되었으며, 궁전구역으로 사용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성 이외에 환호(내부 면적 약 13만 m^2)와 파괴된 토축 담장이 발견되었으며, 그 남쪽으로 대형 무덤군이 발견되었다. 중기 단계에 대성이 건설되면서 유적의 규모는 약 5배로 커졌으며, 대규모 궁전, 왕족묘지 그리고 기상관측대 등을 건설하였다. 중국학계에서는 중기 단계의 도사 유적은 주변 취락군을 통제하는 중심취락으로 기능했다고

보고 있다(그림 9 좌).²⁵

2) 남석(南石) 유적

산서성 익성현(翼城縣) 남석촌(南石村)에 위치한 취락 유적이다. 면적은 약 200만²m이다.²⁶

3) 개화(開化) 유적

산서성 익성현 개화촌(開化村)에 위치한 취락 유적으로, 도사 유적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다. 면적은 약 128만²m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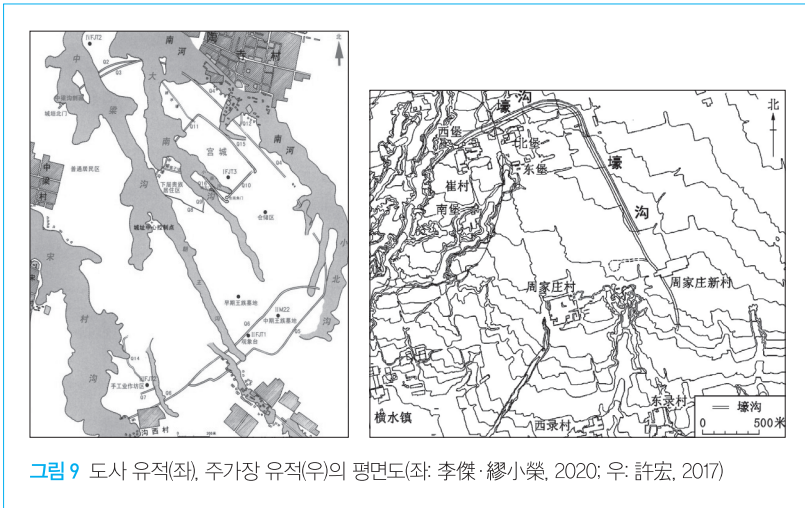


그림 9 도사 유적(좌), 주가장 유적(우)의 평면도(좌: 李傑·繆小榮, 2020; 우: 許宏,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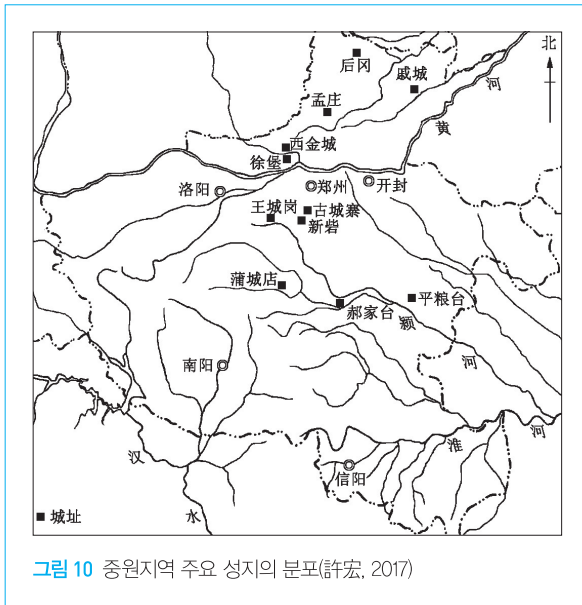
- 25 류리·전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68~273쪽; 許宏, 2017, 위의 책, 102~105쪽; 李傑·繆小榮, 2020, 「二裏頭遺址與陶寺遺址比較研究」, 『南方文物』第二期, 61~67쪽.
- 26 暢紅霞·梁子明 등, 1996, 「山西翼城南石遺址調查, 試掘報告」, 『三晉考古』.
- 27 王魏 主編, 2014, 『中國考古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47쪽.

4) 주가장(周家莊) 유적

산서성 운성시(運城市) 강현(絳縣) 주가장촌에 위치한 취락유적으로, 유적 외곽에 환호가 둘러져 있다. 환호 내부의 면적은 약 300만 m^2 이며, 주거 구역과 무덤 구역, 토기제작지, 등이 분리되어 발견되었다(그림 9 우).²⁸

2. 하남성 지역

하남성 지역의 용산시대 취락은 매우 광범위하게 출현한다. 더불어 이 시기의 인구밀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데, 문화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성의 양소문화 단계의 유적은 약 800여 곳, 용산시대 유적은 약 1,000여 곳이 발견되었다. 얼핏 비슷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양소문화의 지속시간이 용산시대의 약 2배



28 許宏, 2017, 앞의 책, 106~107쪽.

인 것을 감안하면, 용산시대의 인구와 유적 수량의 증가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며, 인구와 유적 수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유적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들이 출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등봉(登封) 왕성강(王城崗) 유적, 신밀(新密) 신채(新寨) 유적 등이 있다(그림 10).

1) 후강 유적

안양시 서북부에 위치한 유적으로 면적은 약 10만 m^2 이다. 유적의 외곽으로 잔존 길이 70m, 너비 2~4m의 용산시대의 토축 담장이 발견되었다. 토축 담장의 건설과 사용 시기는 용산시대 전기 단계인 기원전 2500~기원전 2100년으로 여겨진다.²⁹

2) 왕성강 유적

왕성강 유적은 하남성 등봉시 고성진(告成鎭)에 위치한 토성 유적으로, 유적이 연속된 시간이 매우 길어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용산시대의 소성 2기와 대성 1기가 발견되었다. 기원전 2200년경 먼저 소성 2기(약 1만 m^2)가 출현했고, 이후 기원전 2100~기원전 2050년에 대성 1기(35만 m^2)가 건설되었다. 용산시대 중원지역은 방어취락이 출현해 여러 중심지 간의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왕성강 유적 또한 이런 성지 중 하나이며,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판축기법을 이용한 토성을 쌓았다. 왕성강 유적은 주변에 위치한 무성벽(無城壁) 소형 유적들의 중심취락으로 기능하였다(그림 11 좌).³⁰

3) 신채(新寨) 유적

신채 유적은 하남성 정주시 신밀시에서 발견된 토성 유적으로, 총면적 약

29 張國碩, 2014, 『中原先秦城市防禦文化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9~30쪽.

30 張國碩, 2014, 위의 책, 30쪽; 許宏, 2017, 앞의 책, 106~107쪽; 류리·천상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앞의 책, 266~2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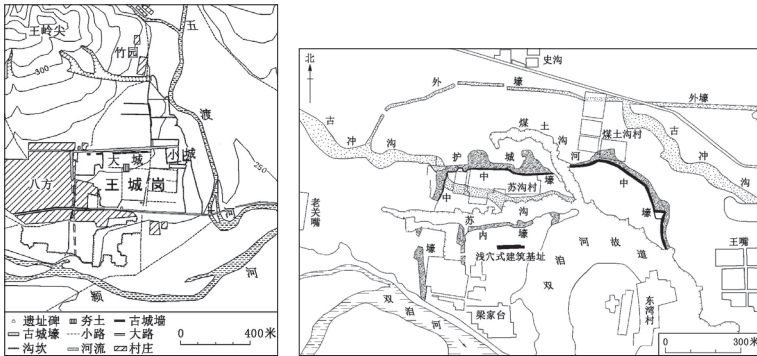


그림 11 왕성강 유적(좌), 신채 유적(우)의 평면도(許宏, 2017)

100만m²이다. 성의 평면은 방형이고, 현재 동, 서, 북 삼면의 성벽이 남아 있으며 그 외곽으로 환호가 형성되어 있다. 성 내부에는 용산시대의 성지와 이리두 문화 신채기 성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산 시기 성의 동벽과 북벽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溝)에 흙을 채워 올려 만든 것이다(그림 11 우).³¹

4) 평량대(平糧臺) 유적

평량대 유적은 하남성 회양구(淮陽區)에 위치한 토성 유적으로, 유적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이며 면적은 약 3만 4,000m²이다. 성벽은 모두 판축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상부의 잔존 너비 약 8~16m, 하부 잔존 너비 약 13m 이상이다. 보존이 가장 잘된 성벽의 높이는 3.6m 정도이다.³²

5) 학가대(郝家臺) 유적

하남성 탐하시(漯河市) 언성구(郟城區)에 위치한 토성 유적으로 장방형의 평면

31 張國碩, 2014, 위의 책, 34쪽; 許宏, 2017, 앞의 책, 114~115쪽.

32 張國碩, 2014, 위의 책,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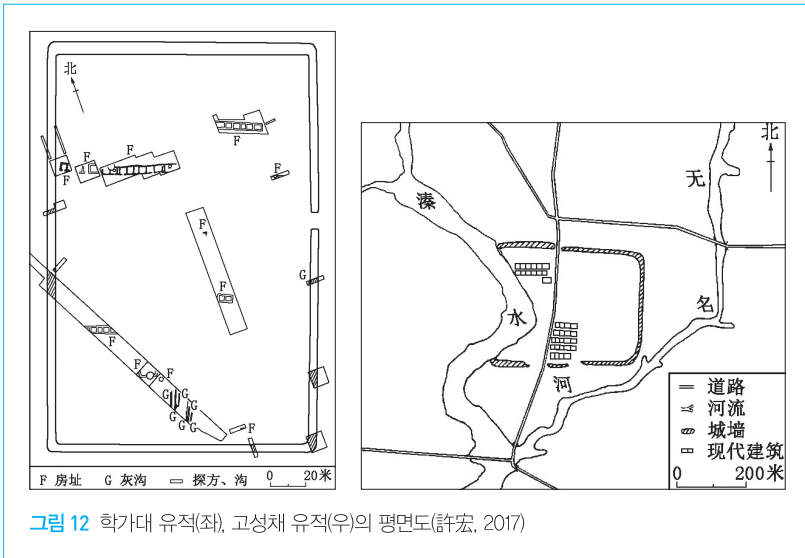
을 가진다. 면적은 약 3만 2,000m²이다(그림 12 좌).³³

6) 맹장(孟莊) 유적

하남성 휘현시(輝縣市)에 위치한 토성 유적이다. 용산시대 성지의 평면은 제형으로, 면적은 약 16만m²이다. 성벽 바깥을 두르는 너비 20m, 깊이 3.8~4.8m 정도의 환호가 발견되었다.³⁴

7) 고성채(古城寨) 유적

하남성 정주시(鄭州市) 신밀시(新密市)에 위치한 토성 유적이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총면적은 약 17만m²이다. 동, 남, 북 삼면의 성벽은 잘 남아 있으며, 서벽은 현대 하천에 의해 유실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대형 판축 유구가 발견되었는



33 張國碩, 2014, 위의 책, 32쪽.

34 張國碩, 2014, 위의 책, 34쪽.

데,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용한 건물지로 추측된다(그림 12 우).³⁵

IV. 북방 석성문화와 주변문화의 관계

이상에서 용산시대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취락형태는 크게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을 위주로 하는 석성, 흙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을 위주로 하는 토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겨난 것일까? 이 장에서는 두 지역 취락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 북방지역 석성과 중원문화, 나아가 요서지역에서 나타나는 석성취락과의 관계에 대해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북방 석성문화와 중원문명

중국에서는 일반인부터 역사학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삼황오제’ 시대부터 역사의 시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하(夏)나라의 존재까지는 무시할 수는 없는 듯하다.

중국학계에서는 중원지역의 왕성강 유적, 신채 유적, 이리두 유적 등을 하 시기에 발달한 도시로 보고 있으며, 도사 유적을 요순(堯舜) 시대의 도읍으로 여기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³⁶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공간적인 면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세부적인 유적 위치와 연대 등이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 일례로 현대 중국 고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병기(蘇秉琦)가 황제를 우하량 유적으로 대표되는 요서지역의 중·후

35 張國碩, 2014, 위의 책, 33쪽.

36 李民, 1985, 「堯舜時代與陶寺遺址」, 『史前研究』 第四期, 34~38쪽; 何驚, 2004, 「陶寺文化遺址走出堯舜禹“傳說時代”的探索」, 『中國文化遺產』 第一期, 59~63쪽.

기 신석기문화인 홍산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많은 학자가 이 내용을 반박한 것과 달리, 최근 석묘 유적이 발굴된 이후에는 여러 학자가 이 유적을 황제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은 실제 고고학적 발견과 사서의 기록을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섬서성 북부지역의 석묘 유적을 전설상의 황제와 연결하고, 중화문명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할 세력으로 보는 의견은 지리적으로도 요서지역의 홍산문화에 비해 중원지역의 도사, 이리두 등의 유적과 더욱 가까워 황제와 그 뒤로 이어지는 후예들과 더욱 잘 연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석묘 유적을 황제와 연결하거나 중원문명 형성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중원지역의 대형 성지인 도사, 이리두 유적을 사서 속 인물과 연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용산시대 북방지역에서 보이는 취락형태는 기존 중원문명으로 인식되던 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용산시대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형태는 두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두 지역의 취락형태를 종합해보면, 먼저 오르도스, 섬서성 북부, 선서성 서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북방 지역의 취락은 주로 하안가에 늘어서 배치되어 있으며,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산지 혹은 대지를 선택하여 건설되었다. 취락을 보호하거나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석축 담장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성지들의 석축 담장은 일반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을 쌓아 만들거나, 먼저 흙을 이용하여 담장을 만든 후 그 바깥에 흙을 쌓은 형태가 많다. 이렇게 쌓은 석축 담장 사이에는 잡석이나 진흙을 채워 보강하였다. 일부 담장이 없거나, 환호가 둘러진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토축 담장을 두른 유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적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10만 m^2 이하이며, 대형 취락의 경우 수십만 m^2 이상인 경우도 보인다.

중원지역의 유적들은 북방지역 취락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안가에 위치하지만, 해발이 높지 않은 평원지역을 선택해 취락을 형성하였다. 성벽, 담장 또는 다른 세력과의 구분을 위한 시설로 토축 담장 또는 환호를 택하였다. 토축 담장만 있는 형태, 토축 담장 없이 환호만 있는 형태, 둘 다 있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석축 담장을 두른 유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담장을 쌓을 때는 기본적으로 흙을 쌓아 만드는데, 평지에 바로 쌓거나, 약간의 기초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담장을 쌓기도 하였다. 일부 유적에서는 이미 판축기법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유적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3만m²부터 30만m²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며, 특수한 중심취락은 300만m²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심지어 취락 내부의 유구에서도 나타난다. 북방지역 석성취락 내부의 유구들이 보편적으로 돌을 이용해 만드는 것과는 달리 중원지역의 취락 내부의 유구들은 토축 혹은 목골구조의 건축물이 흔하게 보인다.

취락의 평면형태 또한 차이가 난다. 평원지역에 지어진 중원지역의 취락이 비교적 규칙적인 정방형 혹은 장방형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데 반해, 북방지역의 취락은 기본적으로 산지 지형을 이용해 취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용산시대 후기의 대형 유적인 석묘 유적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표 1).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취락형태의 차이는 무엇보다 두 집단이 처한 환경적인 차이와 유관해 보인다. 예로부터 중원지역과 북방지역을 가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후에 따른 경제형태의 차이였다. 예컨대 북방지역은 전통적으로 농목(農牧) 교차지대로, 중원지역은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더군다나 북방지역은 기후 변화에 더 취약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해야 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경제가 확실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

〈표 1〉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형태 비교

구분	북방지역	중원지역
입지	하안가(해발 높은 산지)	하안가(평원 지대)
유적 평면	입지한 지형에 따라 다양함	방형, 장방형
성벽형태	석축 많음, 토축 없음	토축 많음, 석축 없음
주거지 벽면형태	수혈식, 석축	수혈식, 목골 구조

에³⁷ 북방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었고, 또 그것이 정주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방지역은 목축 또는 가축사육의 비중이 중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컸으며,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례로 용산시대의 시작을 전후로 한 시기에 아선문화가 출현했고, 초기 청동기문화인 주개구문화(朱開溝文化)³⁸가 등장하는 시기까지 오르도스 지역과 대해지역의 화분 분석 및 호심(湖心) 천공 분석 결과는 해당 지역의 기후 변화가 매우 심했음³⁹을 말해 준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북방지역의 생존전략이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가진 중원지역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상에서 보여지는 환경적인 차이가 두 집단이 각기 다른 생업경제 및 취락형태를 가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용산시대 북방지역의 석성축조 집단과 중원지역의 토성축조집단이 명확히 성격이 다른 집단에 의해 건설된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두 지역을 교류·호혜·경쟁 등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 집단에 의해 형성된 다른 유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 역사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석묘 유적을 비롯한 북방 석성문화를 고대 중원문명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여기는 것이나, 전설상의 황제와 연결 짓는 움직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중화문명 인식과는 맞지 않으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더라도 두 지역 집단을 연결시키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37 류리·천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앞의 책, 355~356쪽.

38 기원전 2000~기원전 1400년 사이에 존재한 초기 청동기문화로 내몽골 중남부의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 분포지역으로 한다

39 류리·천싱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앞의 책, 355쪽.

2. 북방 석성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

앞서 언급했듯이 용산시대의 시작부터 북방지역에서는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집단은 기후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거주지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용산시대 전기에 음하산맥 남부와 남류황하 지역에서 아선문화가 발달하여 석성취락이 출현했지만 시기가 지나 노호산문화가 발달하는 용산시대 후기에는 비교적 위도가 낮은 남류황하 지역과 인근의 대해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석성의 전통이 이어졌다.

그리고 용산시대 후기의 노호산문화 이후에 북방지역에서는 초기 청동기문화인 주개구문화가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 석축 주거지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석성취락이 이전 시기와 같이 명확히 발견되지 않아 석성 축조집단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더 남쪽의 중원지역이나 산둥, 장강 유역 등에서는 이러한 석성 축조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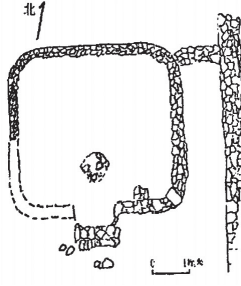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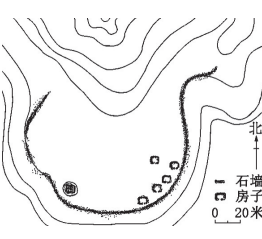

필자는 이것과 관련하여 용산시대 북방지역에서 출현한 석성 축조집단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현하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취락들의 관련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하가점하층문화는 기원전 2000~기원전 1400년 사이에 요서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로 노호산문화와 시기적으로 이어진다.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의 특징으로 산기슭을 따라 늘어선 석성군, 돌을 이용해 담장을 쌓은 주거지 등 중국 북방지역 용산시대에 보이던 석성취락의 특징들이 보인다. 그리고 당시 요서지역의 기후가 농업을 기초로 하여 가축사육을 보조적 생업 수단으로 삼았다⁴⁰는 사실 또한 두 지역의 관련성을 주목하게 한다.

일찍이 중국학계에서는 북방지역의 노호산문화가 동북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⁴¹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하

40 林眞浩, 2020, 「夏家店下層文化聚落, 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考古系博士學位論文, 209~220쪽.

41 田廣金, 1997, 「論內蒙古中南部史前考古」, 『考古學報』第二期, 121~145쪽.

〈표 2〉 아산문화, 노호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형태 비교

구분	아산문화	노호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석축 주거지	 <p>아선 F1호</p>	 <p>노호산 F33호</p>	 <p>강가둔(康家屯) F23호</p>
주요 석성 유적	 <p>위준 Ⅱ 지점</p>	 <p>위준 Ⅲ 지점</p>	 <p>노호산</p>
취락 배치	 <p>강가둔</p>	 <p>음산산맥 남부</p>	 <p>대해 부근</p>
	 <p>음하·영금하 유역</p>	 <p>음하·영금하 유역</p>	 <p>음하·영금하 유역</p>

지만 북방지역에서 발견되는 아산문화, 노호산문화의 취락형태와 동북지역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은 입지, 배치, 축성법 등 방면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두 지역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석묘 유적의 주요 발굴자인 손주용(孫周勇)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유적 중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일부 두개골에서는 둔기로 내려친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불에 탄 현상이 발견되었다. 체질특징 분석, 고(古) DNA 분석, 음식물 분석 등을 통해 살해당한 사람들은 석묘 유적에서 발견된 묘장 구역에 묻힌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사람들은 하가점하층문화 일부 인군의 특징과 유사했다.”⁴² 이러한 점들은 당시 석묘 유적과 하가점하층문화 지역이 경쟁관계든 교류관계든 서로 간에 연결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가점하층문화가 발전하기 전 요서지역의 신석기문화는 흥룡와(興隆窪)문화부터 홍산(紅山)문화, 소하연(小河沿)문화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통형관을 주요 토기 기종으로 하며, 환호를 두른 취락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하가점하층문화 시기가 되면서 주요 토기 기종은 세 발 달린 역(鬲)과 언(甗)으로 대체되었고, 취락과 주거지 또한 석축 담장을 두른 것으로 이전 시기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취락, 기후의 유사성 외에 역, 언과 같은 비대족삼족기(肥袋足三足器) 역시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상세한 이동경로나 방법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방지역의 석성전통이 하가점하층문화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 취락형태, 기후, 토기 등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이후 두 지역을 관련지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2 孫周勇, 2018, 「石峁遺址, 一座影響深遠的史前最大城址」, 『在線文博』(https://www.sohu.com/a/246419464_488371).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용산시대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는데, 아선, 노호산, 석묘 유적으로 대표되는 전자와, 도사, 왕성강, 이리두 유적으로 대표되는 후자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는 유적을 두르고 있는 성벽의 형태이다. 전통적으로 석성 유적은 중국 선사 유적 중에서도 북방지역에서만 발견되며, 중원문명을 구성하는 주류의 문화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 구계유형이론(區系類型理論) 등이 대두되고 중국의 광대한 영토 범위 안에서 고고학 발굴이 이어지자, 중원중심론(中原中心論)에 수정이 필요했다. 이른바 현재 중국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 중화문명이라는 것은 중국영토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중국학계는 중원 이외 북방 및 남방 지역에서 ‘대단한 발견’들이 이어지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모두 중국문명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면, 사서(史書)상에 기재된 인물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규모 석성이 발굴되고 있는 석묘 유적 또한 동시기 중원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와의 차이가 어떻든 간에 중국문명을 형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중요 유적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된다. 나아가 이 유적을 도사, 이리두 유적과 더불어 중국 내 용산시대 후기-이리두문화 시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초기 국가의 중심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지역의 고고학적 양상, 특히 취락방면의 차이는 두 집단의 현격한 성격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후 발전한 내몽골 중남부, 오르도스, 대해 등 지역과 중원지역에서 모두 용산시대 북방지역의 석성 축조 전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석묘 유적을 비롯한 북방의 석성 축조집단이 하-상-주 ‘삼대’로 대표되는 중원문명의 형성 시기에 중원의 큰 경쟁상대로 자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용산시대를 관통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북방지역에서 대량으로 축조된 석성취락들은 이리두문화 이후 시기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대량의 석성취락이 출현한다. 요서지역에 하가점하층문화가 출현하게 되면서 기존 요서지역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던 비대족 삼족기가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내몽골 중남부 지역과 그 부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방지역 석성 축조집단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두 지역의 석성이 계통적으로 이어지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추후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취락형태, 무덤에서 발견되는 인골들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분석 및 유물 분석 등을 통해 두 지역 문화의 연관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류리·천상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9, 『중국고고학-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0, 『岱海考古(一)-老虎山文化遺址發掘報告集』, 科學出版社.

陝西省考古研究院 主編, 2016, 『發現石峽』, 文物出版社.

王魏 主編, 2014, 『中國考古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張國碩, 2014, 『中原先秦城市防禦文化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許宏, 2017, 『先秦城邑考古』, 金城出版社.

논문

오대양, 2017, 「산동 용산문화의 최근 연구동향과 쟁점」, 『백산학보』 109.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a, 「准格爾旗白草塔遺址」, 『內蒙古文物考古文集(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_____, 1994b, 「准格爾旗寨子上遺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內蒙古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 包頭市文物管理所, 2009a, 「內蒙古包頭市阿善遺址發掘簡報」, 『包頭文物考古文集(上)』, 內蒙古大學出版社.

_____, 2009b, 「包頭威俊新石器時代地面建築遺址」, 『包頭文物考古文集(上)』, 內蒙古大學出版社.

朴眞浩, 2020, 「夏家店下層文化聚落, 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考古系博士學位論文.

陝西省考古研究院, 2016, 「陝西佳縣石擦擦山遺址龍山遺存發掘簡報」, 『考古與文物』 第4期.

- 沈長雲, 2019a, 「石峁遺址與華夏民族的發祥」, 『中華文化論壇』第六期, 四川省社會科學院.
- 沈長雲, 2019b, 「黃帝部族居邑石峁」, 『中國地名』第二期, 中國地名學研究會.
- 嚴文明, 1981, 「龍山文化與龍山時代」, 『文物』第六期.
- 王曉毅, 張光輝, 2016, 「興縣碧村龍山時代遺存初探」, 『考古與文物』第四期.
- 李傑·繆小榮, 2020, 「二裏頭遺址與陶寺遺址比較研究」, 『南方文物』第二期.
- 李民, 1985, 「堯舜時代與陶寺遺址」, 『史前研究』第四期.
- 戴向明, 2014, 「陶寺, 石峁與二裏頭」, 『夏商都邑與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田廣金, 1997, 「論內蒙古中南部史前考古」, 『考古學報』第二期.
- 暢紅霞·梁子明 等, 1996, 「山西翼城南石遺址調查, 試掘報告」, 『三晉考古』.
- 何鷺, 2004, 「陶寺文化遺址走出堯舜禹“傳說時代”的探索」, 『中國文化遺產』第一期.

기타 자료

- 孫周勇, 2018, 「石峁遺址, 一座影響深遠的史前最大城址」, 『在線文博』(https://www.sohu.com/a/246419464_488371).

중국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취락형태 비교

- 용산시대를 중심으로 -

박진호

최근 중국 고고학계는 석묘(石冢) 유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 면적은 400만m²를 넘어 단순히 면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중원(中原)지역의 도사(陶寺) 유적, 이리두(二裏頭) 유적보다 크다. 중국학계에서는 이 유적을 용산시대 후기 북방문화권을 대표하는 초대형 중심취락으로 규정하고, 고대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연결하거나, 중화문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석묘 유적이 위치한 섬서성 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원지역과 구별되는 북방지역으로 인식되었고, 고고학적인 양상 또한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북방지역 용산시대에 나타나는 석성에 주목하였다. 당시 중원지역에서는 토축 담장을 두른 토성이 활발히 건설되었고, 이것은 북방 지역에서 석성이 활발히 건설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석묘 유적이 발견되는 섬서성 북부와 그 인근 북방지역의 취락 형태, 그리고 중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취락형태에 대해 기초적인 비교를 통하여 용산시대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은 두 집단의 성격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석묘 유적

을 비롯한 북방의 석성 축조집단이 중원문명이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제어: 용산시대, 석묘 유적, 석성, 북방지역, 하가점하층문화

ABSTRACT

Comparison of Settlement Patterns in the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of China—Focusing on Longshan Period

Park Jinho

Recently, the Chinese archaeological Academia is very interested in Shimao site. The area exceeds 4 million square meters and is larger than the Taosi and Erlitou sites of the Jungwon area just by comparing the area. Chinese academia defines this site as a central village representing the northern culture of the late Longshan period and recognizes it as a component of Chinese civilization or connecting people from ancient history.

However, the northern part of Shaanxi, where the stone tomb remains are located,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as a northern area distinct from the Jungwon area, and the archaeological aspect also shows a noticeable difference. Among them, I paid attention to the stone fortress that appeared in the Longshan period in the northern region. At that time, earthen ramparts with soil fences were actively

built in the Jungwon area, which is in contrast to the active construction of stone ramparts in the northern area.

This paper analyze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ern and Jungwon regions of the Longshan period through basic comparisons of the settlements in the northern part of Shaanxi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Jungwon area.

In conclusion, the archaeological aspects of the two regions show the difference in personality between the two group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tone castle construction group in the north, including the remains of the stone tomb,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civilization.

Keywords: Longshan period, Shimao site, Stone fortress, Northern Region, Lower Xiajiadian cultur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계승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유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고고학적 검토: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유사성
- III. 문헌적 뒷받침: 상문화의 북방기원설
- IV. 반론의 여지: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차이점
- V. 현실적 배경: 지역문명 만들기
- VI. 맺음말



I. 머리말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는 지금의 서요하(西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던 청동기시대 문화로, 그 시간적 범위는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400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1920~1930년대 일본 학자들이 지금의 적봉(赤峰)과 통료(通遼, 당시 哲盟) 일대에 대한 고고조사를 진행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요하(遼河) 유역 고고문화에 대한 성과가 축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습된 명도전(明刀錢)을 근거로 그 연대를 중원의 진한(秦漢) 시기로 추정하고, ‘적봉제2기문화(赤峰第2期文化)’라 일컬었다.¹ 1950년대 이후, 고고자료가 축적되면서 관련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대 북경대학(北京大學)의 여준악(呂遵諤)은 적봉지역에 대한 고고조사를 진행한 후, ‘적봉제2기문화’는 사실상 성질이 다른 몇 가지 고고문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² 1960년에 이르러 약왕묘(藥王廟)와 하가점 유적을 발굴한 이후, 층위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문화적 면모를 근거로, 층위에 따라 각각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로 명명하였다.³

* 투고: 2021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11월 12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1-기획연구-24).

1 濱田耕作, 1929, 「貔子窩」, 『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1冊;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6冊.

2 呂遵諤, 1959, 「內蒙古赤峰紅山調查報告」, 『考古學報』1959-3.

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 「內蒙古赤峯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1961-2. 보다 상세한 발굴사에 대해서는 陳平(2002)의 「夏家店下層文化研究綜述」(『北京文物與考古』5), 박진호(2020a)의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59) 등 참조.

1961년 발표된 ‘간보(簡報)’에서 발굴팀은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바로 은상문화(殷商文化)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대 또한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이다.⁴ 1974년에 발표된 정식 보고서에서는 요서(遼西) 및 하북(河北) 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 유적⁵은 용산문화(龍山文化) 후기에서 상대(商代)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은 왕자 해(亥)가 유역(有易)에 빈으로 왔다(殷王子亥賓于有易)’⁶는 전설을 근거로, 상나라 개국 전에 하북 경내의 씨족 혹은 부락집단과 상족(商族)이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북 북부와 요서 일대의 고고유적은 상과 선상(先商) 시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⁷

이처럼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商文化)의 유사성을 근거로, 양자 간의 계승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1930년대부터 서중서(徐中舒),⁸ 부스년(傅斯年),⁹ 김경방(金景芳),¹⁰ 장박천(張博泉)¹¹ 등이 제기했던 상족의 북방기원설과 결합되면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신건(蔣新建)은 문헌을 통해 상족의 가장 이른 활동 지역을 내몽고(內蒙古) 적봉과 요서 북부 지역, 그리고 하북 북부 지역으로 추정하면서, 홍산문화(紅山文化) 유적 등에서 발견되는 새를 모티브로

-
- 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 앞의 글, 80쪽.
 - 5 현재 국내학계에서는 하북지역의 초기 청동기 문화를 하가점하층문화와 분리시켜 대타두문화(大坨頭文化), 장가원하층문화(張家園下層文化)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 6 方詩銘·王修齡 撰, 2005, 『古本竹書紀年輯證』(修訂本), 上海古籍出版社, 12쪽.
 - 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74,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74-1, 143쪽.
 - 8 徐中舒, 1930, 「殷人服象及象之南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2卷1期.
 - 9 傅斯年, 1932, 『東北史綱』(初稿)1,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4쪽.
 - 10 金景芳, 1978, 「商文化起源于我國北方說」, 朱東潤 主編, 『中華文史論叢』7, 上海古籍出版社.
 - 11 張博泉, 1981, 「關於殷人的起源地問題」, 『史學集刊』復刊號.

한 옥기 등의 물질문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겼다.¹² 또 손계민(孫繼民)은 하가점하층문화 출토 채도의 문양과 상나라 청동기 문양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양자 간의 계승관계를 강조하였다.¹³ 이는 하가점하층문화 중심지의 추이와 결합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중심지의 남하는 상족의 남하를 의미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⁴ 이는 상나라 사람들이 북방을 존송했다는 논의¹⁵ 및 은허(殷墟)에서 발굴된 유골 가운데 북아시아 몽골인종과 동아시아 몽골인종의 혼합적 형태를 띠는 것이 많다는 논의¹⁶와 결합하여, 상족의 북방기원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¹⁷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혹자는 북방지역과 중원지역에 나타나는 고고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중원문화의 영향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¹⁸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양자 간의 직접적인 계승관계에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¹⁹ 그렇지만 상문화가 온전히 하가점

-
- 12 蔺新建, 1985, 「先商文化探源」, 『北方文物』 1985-2. 그리고 干志耿 등은 더 나아가 홍산문화에서부터 상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干志耿·李殿福·陳連開, 1985, 「商先起源於幽燕說」, 『歷史研究』 1985-5).
- 13 孫繼民, 1990, 「從青銅禮器看夏家店下層文化與商代文化的關係」,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990-4.
- 14 蔺新建, 1985, 앞의 글; 黃中業, 1990, 「從考古發現看商文化起源於我國北方」, 『文物』 1990-1, 17~19쪽.
- 15 潘其鳳, 1989, 「我國青銅時代居民人種類型的分布和演變趨勢」,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294쪽.
- 16 楊錫璋, 1989, 「殷人尊東北方位」,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305쪽.
- 17 郭大順, 1998, 「北方古文化與商文化的起源」,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13~116쪽.
- 18 杜金鵬, 1995, 「試論夏家店下層文化中的二里頭文化因素」, 『華夏考古』 1995-3;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類型辨析-基於二里頭文化類型的對比研究」, 『考古與文物』 2010-2 등.
- 19 張渭蓮, 1997, 「先商文化 岳石文化與夏家店下層文化關係考辨」, 『文物季刊』 1997-2.

하층문화의 영향만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고학과 문헌 등 다각도로 고려해 봤을 때, 하가점하층문화가 상문화의 여러 문화적 기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긍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²⁰

그렇다면 상문화는 정말로 하가점하층문화에서 기원한 것일까? 이러한 주장이 활발히 진행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고고학적 검토: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유사성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는 북으로는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남쪽으로는 연산(燕山) 일대, 동으로는 의무려산(醫巫閭山) 서쪽, 서쪽으로는 난하(嫩河)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 아직까지 연산 이남의 초기 청동기 문화를 하가점하층문화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²¹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연산 이남의 초기 청동기 문화를 대타두문화(大坨頭文化)²²로 분류하고 있

20 陳平, 2002, 앞의 글; 華玉冰·張振軍·杜守昌, 2002, 「朝陽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的分期及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 1집; 黃曉蕾, 2020, 「夏家店下層文化彩繪陶簡論」, 『赤峰學院學報』 2020-4 등.

21 李經漢, 1979,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 第1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63~170쪽; 鄒衡, 1980,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隣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263~266쪽; 張忠培·孔哲生·張文軍·陳雍, 1987,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蘇秉琦 主編,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58~78쪽; 李伯謙, 1990, 「論夏家店下層文化」, 『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三十年(1952-1982)』, 文物出版社, 150~169쪽.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는 박진호(2020a)의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 59, 11~18쪽) 참고.

22 韓嘉毅, 1981,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 第3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220~229쪽; 韓嘉毅, 1992,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會 第7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294~306쪽, 복기대, 2003, 「大坨頭文化에 대한 一考察」, 『고문화』 61, 47~48쪽.

기 때문에, 본문도 이를 따른다.

이 장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先商文化)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비교 범위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하여,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 그리고 상 초기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른바 ‘선상문화’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상문화의 원류’에 해당하는 고고문화로, 이른바 상나라 ‘선공(先公)’²³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고고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선상문화는 지역적으로 북으로는 거마하(拒馬河) 유역, 남으로는 정주(鄭州)와 주구(周口) 북부, 서로는 태항산(太行山) 서쪽, 동으로는 하북 동부와 개봉(開封), 주구 동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²⁴

전술한 대로, 1960년대 약왕묘(藥王廟)와 하가점 유적을 발굴하여 층위에 따라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를 분리한 후,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해 은상문화(殷商文化)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²⁵ 특히 ‘선상문화’로 귀속되는 고고문화가 하북성 중남부까지 이어지는 것과 Ⅲ장에서 살펴볼 상 ‘선공’의 사적이 하북성으로 비정되는 것을 근거로, 고고문화적으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 사이의 유사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하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두 고고문화 사이의 물질문화적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²⁶

먼저, 유구를 보면, 거주지의 평면이 원형을 띠고 수혈의 평면 또한 원형이

23 ‘상 선공’은 상나라 탕왕이 즉위하기 전에 상족을 이끌었던 ‘족장’을 일컫는다.

24 張翠蓮, 1997, 「先商文化 岳石文化與夏家店下層文化關係考辨」, 『文物季刊』 1997-2, 31쪽.

25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 「內蒙古赤峯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2, 80쪽;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74, 「赤峯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4-1, 143쪽.

26 蔭新建, 1985, 「先商文化探源」, 『北方文物』 1985-2; 孫繼民, 1990, 「從青銅禮器看夏家店下層文化與商代文化的關係」,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990-4; 張翠蓮, 1997, 앞의 글 등.

나 타원형을 띠는 것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유물을 보면, 두 문화의 유적에서 대량의 토기, 석기, 골기가 출토되었고, 청동기와 복골(卜骨) 등도 적지만 눈에 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물 간의 유사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토기의 기종을 보면, 두 문화에서 모두 력(曆), 언(甌), 관(罐), 분(盆)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또 재질을 보면, 니질도(泥質陶)가 협사도(夾砂陶)보다 많이 출토되는데, 그중에서도 니질회도(泥質灰陶)가 주를 이루는 공통점이 있다. 문양 또한 승문(繩紋)이 주를 이루고, 부가퇴문(附加堆紋)과 선문(線紋)이 나타난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석기와 골기에서도 나타난다. 석기의 제작 방식을 보면 타제석기보다 마제석기가 많이 나타나고, 기종을 보면 두 문화에서 모두 석도(石刀), 석산(石鏟), 석부(石斧) 등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석도는 구형(球形), 석산은 편평한 장방형, 사다리꼴 등이 주를 이루고, 석부는 원각 장방형을 띠는 것이 많다. 골기는 두 문화에서 모두 골촉의 출토가 두드러지고, 그 단면은 유엽형(柳葉形), 삼각형(三角形), 쌍익 원추형(雙翼圓錐形)이 많다.

이 밖에 두 문화에서 청동기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모두 화살촉과 고리 모양의 이환(耳環)이 발견되었고, 또 동물의 견갑골을 가공한 복골이 출토되었으며,

〈표 1〉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의 유사성

항목	내용	항목	내용
거주지 평면	원형 위주	수혈 평면	원형, 타원형 위주
토기 재질	니질토기 > 협사토기	토기 문양	승문 위주
토기 기종	력, 언, 관, 분 위주	토질 공구	납작한 원병형 가락바퀴, 감람형·구형 그물추, 도환 등
석기 제작	마제석기 > 타제석기		
복골	동물 견갑골로 만든 복골	석기 기종	석도, 석산, 석부 비중 높음
청동기	화살촉, 귀고리 등 소량 출토	골기	골촉

납작한 원병형(元餅形) 가락바퀴(紡輪), 감람형(橄欖形)·구형(球形)의 그물추(網墜), 도환(陶環) 등의 도질 공구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두 고고문화 사이의 물질문화적 유사성은 두 문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보이기도 한다.

고고문화적인 비교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대시켜보면, 하가점하층문화는 선상문화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이리두문화와도 일정 정도 유사성이 나타나고, 시간적으로 확대해보면 상 초기 문화와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수영자(水手營子)에서 출토된 연병동과(連柄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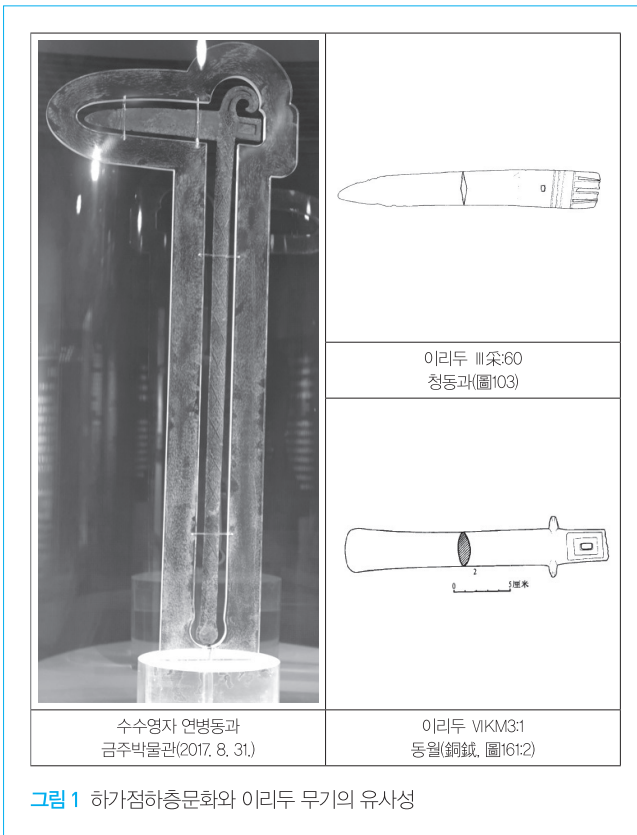




그림 2 하가점하층문화 출토 토기와 이리두문화 대비도(요녕성박물관, 2017. 9.)

戈)²⁷이다. 이 동과의 원부(援部)는 이리두 유적에서 발견된 Ⅲ采:60 청동과와 일치하고,²⁸ 내부(内部)는 이리두 유적 ⅥKM3:1과 일치한다.²⁹ 이는 두 문화 사이의 모종의 교류관계를 예상케 한다.

다음으로 토기를 보도록 하자. 그동안 많은 학자가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의 토기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토기 제작 기법에서 하가점하층문화 토기의 날구관(捏口罐)과 계관(鷄冠耳平底盆), 그리고 관에다 삼족을 장식한 관형정(罐形鼎) 등은 이리두문화와 유사성을 보인다.³⁰ 또 토기의 기종 또한 양자 간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자(大甸子) 유적의 출토 유물이 눈에 띈다. 대전자에서

27 齊亞珍·劉素華, 1991, 「錦縣水手營子早期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 1991-1.

2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9, 『偃師二里頭: 1959年~1978年考古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69쪽.

2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9, 위의 책, 249쪽.

30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類型辨析-基于二里頭文化類型的對比研究」, 『考古與文物』 2010-2, 14쪽.

는 모두 804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13기에서 이리두문화와 유사한 형식의 규(鬻), 작(爵), 화(盃)가 출토된 바 있다.³¹

그리고 대전자에서는 채회도기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채회도기는 대전자 이전에도 풍하(豊下), 강가둔(康家屯), 이도정자(二道井子), 상기방영자(上機房營子) 등에서 소량 출토된 바 있으나, 대전자에서 발견된 것은 420여점



- 31 朴眞浩, 2020b, 『夏家店下層文化聚落·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大學博士學位論文, 237~238쪽.
-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33 朱乃誠, 2021, 「二里頭綠松石龍的原流-兼論石峁遺址皇城臺大臺基石護牆的年代」, 『文物研究』 2021-2, 105쪽.
- 34 王志忠, 2021, 「商周青銅器饕餮紋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14~15쪽.

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채회도기의 도안이다. 이는 중원 이리두 문화 및 상 초기 문화의 도안과 유사성을 띤다. 예컨대, 대전자 M522:6과 M4:1의 수면문(獸面紋) 도안, M387:3과 M706:7의 용무늬 도안은 이리두문화의 것과 유사하고, M828:3의 수면문 도안에 보이는 새 문양 등은 상 초기 문화의 것과 유사하며, 또 수면문의 둥근 눈 혹은 ‘臣’자형 눈 모양, 권운문(卷雲紋)의 ‘C’형 혹은 ‘T’형은 모두 상 초기 청동기에 보이는 수면문과 유사하다.³⁵

대전자에서 발견된 고흡(觚形) 칠목기(漆木器), 의례적 성격을 지닌 석월(石鉞)과 석경(石磬), 그리고 옥기(玉器)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대전자 출토 M444:6 석월은 이리두문화 2기의 II·VT109④:26 석월과 형태가 대체로 일치한다.³⁶ 또 대전자에서 출토된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석월도 이리두에서 출토된 2000YLⅢC:1 청동월과 유사하다.³⁷ 이러한 양식은 초기 상문화의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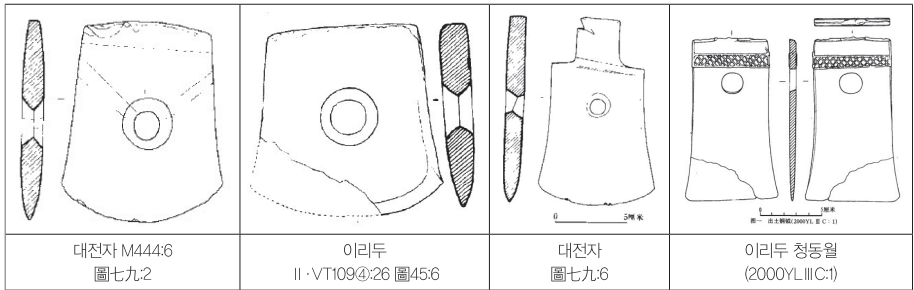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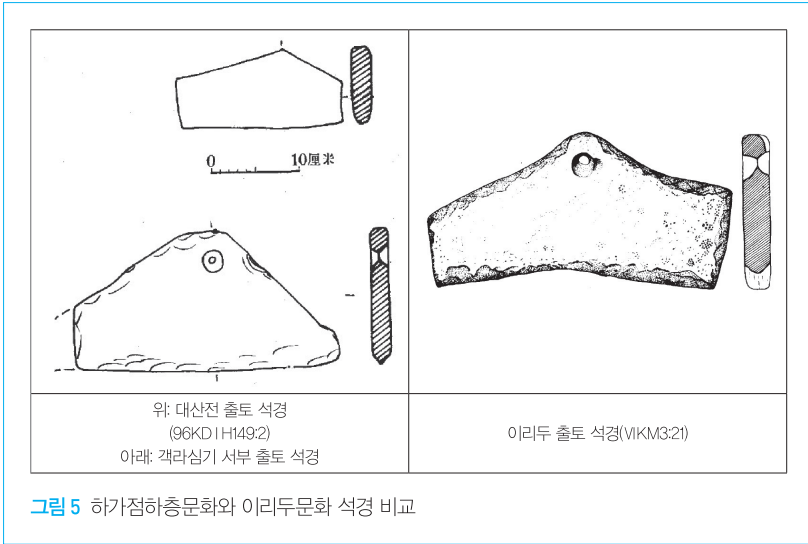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자와 이리두 월 비교

35 徐昭峰·李麗娜, 2009, 「夏商之際王朝文化北向傳播的通道及背景探析」, 『中原文物』 2009-5; 朴眞浩, 2020b, 앞의 글, 237~238쪽. 徐昭峰 등은 이러한 유사성을 중원문화 전파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9, 앞의 책, 83쪽.

3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頭工作隊, 2002, 「河南偃師市二里頭遺址發現一件青銅鉞」, 『考古』 2002-11.



월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³⁸

하가점하층문화의 석경 또한 이리두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석경과 유사성을 보인다. 예컨대 대산전 유적(大山前遺蹟)의 96KD I H149:2 석경은 이리두문화 3기의 VIKM3:21 석경과 유사한데, 다만 전자에 천공이 없을 뿐이다. 객라심기(喀喇沁旗) 서부(西府)에서 출토된 석경은 이리두의 것과 더욱 비슷하다.³⁹ 그리고 요녕성 건평현(建平縣) 객라심 하동(河東) 유적에서 발견된 석경은 비록 파손이 심하지만, 정리자는 상대의 호문경(虎紋磬)과 유사하다고 여겼다.⁴⁰ 이 밖에 대전사에서 출토된 길쭉한 형태의 옥월(玉鉞)은 이리두문화의 옥圭(玉圭)와 유사하고,⁴¹ 구형옥기(勾形玉器)는 부호묘(婦好墓)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일

38 徐昭峰·李麗娜, 2009, 앞의 글, 23쪽.

39 李鳳舉, 2007, 「喀喇沁旗出土的夏家店下層文化石磬」, 『內蒙古文物考古』 2007-1.

40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組, 1983, 「遼寧建平縣喀喇沁河東遺址試掘簡報」, 『考古』 1983-11, 976쪽.

치한다.⁴²

이상으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이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하여, 선상문화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이리두문화, 그리고 선상문화를 계승했다고 이해되는 상 초기 문화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의 유사성 관련, 거주지와 수혈 등의 유구, 그리고 토기, 석기, 골기, 복골, 청동기 등의 유물을 검토했으며,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 및 상 초기 문화의 유사성 관련, 동과, 규·작·화 등 토기와 채회도기, 그리고 석월, 석경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양자 간의 관계, 특히 계승성을 강화하는 논리의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여러 문헌에 보이는 관련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Ⅲ장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Ⅲ. 문헌적 뒷받침: 상문화의 북방기원설

상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자세히 기록한 사료는 바로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은설(殷契)의 어머니는 간적(簡狄)으로 제곡(帝嚳)의 차비(次妃)인 유용씨(有娥氏)의 딸이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현조(玄鳥)가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삼켰는데, 이로 인해 잉태하여 설을 낳았다. 설은 장성하여 우(禹)의 치수를 보좌하여 공을 세웠다. 제순(帝舜)은 이에 설을 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친하지 않고, 오품(五品)으로 계도할 수 없으니, 그대가 사도(司徒)를 맡아 공경히 다섯 가지 가르침(五敎)을 퍼면서 관대하게 하라.” 이에 상에

41 黃可佳, 2015, 「試析以大甸子墓地玉器爲代表的夏家店下層文化玉器」, 『草原文物』 2015-2, 66쪽.

42 朴眞浩, 2020b, 앞의 글, 238쪽. 부호묘는 상대 후기의 유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책봉하고, 자씨(子氏) 성을 하사하였다. 설이 당(唐, 요임금 시기), 우(虞, 순임금 시기), 대우 시기에 흥성하여 공업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평안해졌다.⁴³

이는 『사기』 「진본기(秦本紀)」에 보이는 영성족(嬴氏族)의 시조 설화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진의 선조는 제전욱(帝顓頊)의 후손으로 '여수(女脩)'라 불렸다. 여수가 베를 짜고 있을 때, 현조가 알을 떨어뜨리자 여수는 이를 삼켰는데, <이로 인해> 아들 대업(大業)을 낳았다. 대업은 여화(女華)라 불리는 소전(少典)의 딸을 취하였다. 여화는 대비(大費)를 낳았는데, 우와 함께 홍수와 땅을 안정시켰다. 홍수와 땅이 안정된 후, 제(帝)는 <우에게> 현규(玄圭)를 하사하였다. 우가 <현규를> 받으며 말하길,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대비가 보좌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순이 말하길, “아! 비여! 우를 도와서 공을 이루어, 그대에게 조유(阜游)를 하사하오니, 그대의 후손이 장차 크게 번성할 것이오”라고 했으며 이에 요성(姚姓)의 옥녀(玉女)를 아내로 삼게 했다. 대비가 절하며 받고는 손을 도와서 새와 짐승을 길들이니, 새와 짐승이 잘 다스려졌다. 이가 백예(柏翳)로, 순은 영씨(嬴氏) 성을 하사하였다.⁴⁴

이는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
- 43 『史記』 권3 「殷本紀」, 北京: 中華書局, 1959년, 91쪽. “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 契長而佐禹治水有功, 帝舜乃命契曰, ‘百姓不親, 五品不訓, 汝爲司徒而敬敷五教, 五教在寬.’ 封于商, 賜姓子氏. 契興於唐·虞·大禹之際, 功業著於百姓, 百姓以平.”
- 44 『史記』 권5 「秦本紀」, 173쪽. “秦之先, 帝顓頊之苗裔孫曰女脩. 女脩織, 玄鳥隕卵, 女脩吞之, 生子大業. 大業取少典之子, 曰女華. 女華生大費, 與禹平水土, 已成, 帝錫玄圭. 禹受曰, ‘非子能成, 亦大費爲輔.’ 帝舜曰, ‘咨爾費, 贊禹功, 其賜爾阜游. 爾後嗣將大出.’ 乃妻之姚姓之玉女. 大費拜受, 佐舜調馴鳥獸, 鳥獸多馴服, 是爲柏翳. 舜賜姓嬴氏.”

〈표 2〉 상족과 영성족 시조 신화 구조 비교

	혈통적 조상	신화적 조상	알을 삼킨 여자	아들	우의 치수 보좌	제순으로부터 받은 직무	성
「은본기」	제곡	현조	간적	설	설	사도	자
「진본기」	제전옥	현조	여수	대업	대업의 아들 대비	새와 짐승을 길들임	영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은 상족과 영성족 사이의 혈연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⁴⁵ 여기에 보이는 제왕들, 곧 제곡과 제전옥은 전국시대에, 제순은 춘추시대에, 우는 서주시대에야 그 전승이 확인된다는 점에서⁴⁶ 이 두 설화는 모두 전국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신화 혹은 전설이 전승과정에서 인물이 바뀌는 ‘신화분화(神話分化)’적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신화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⁴⁷ 그러나 두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적 조상인 ‘현조’는 어쩌면 당시의 숭배 대상 혹은 토렘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는 『시경(詩經)』 「상송(商頌)·현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이 현조에게 명하니, 현조가 내려와 상을 낳고, 망망한 은나라 땅에 도읍하게 하였네.”⁴⁸ ‘현조’는 ‘상박간(上博簡)’ 『자고(子羔)』 편에 ‘제비(燕)’로 기록되어 있다.⁴⁹ 이는 동서업(童書業)이 말한 바와 같이 ‘현조’

45 이유표, 2018, 「중국 학계의 동이 연구와 인식」, 『중국 산둥 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352쪽.

46 顧頡剛, 1923,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60쪽.

47 동서업(童書業)은 『고사변』 제7책 상편의 「자서(自序)」에서 양관(楊寬)의 신화분화설(神話分化說)을 소개한 바 있다. 童書業, 1940, 「自序二」, 『古史辨』 7-上,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3~4쪽.

48 『毛詩正義』 阮元刻『十三經注疏』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622쪽. “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芒芒.”

49 馬承源 主編, 2005,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2, 43~44쪽, “契之母, 有娥

가 바로 상족이 제비를 토렘으로 삼은 것을 증명하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⁵⁰

상족과 새 토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호후선(胡厚宣)은 상의 조상으로 알려진 ‘왕해(王亥)를 가리키는 ‘해(亥)’ 자가 갑골문에서 새 ‘鳥’ 혹은 새 ‘隹’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상족의 새 토렘을 증명하였다.⁵¹ 또 왕옥철(王玉哲)은 상족을 가리키는 ‘商’ 자와 봉황을 가리키는 ‘鳳’ 자의 갑골문에 모두 ‘辛’ 자가 구성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갑골문 ‘상’ 자의 상반부를 구성하는 ‘辛’은 곧 ‘봉’ 상부의 ‘조관(鳥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글자가 바로 ‘조관(辛)’을 대표로 하는 새 토렘 승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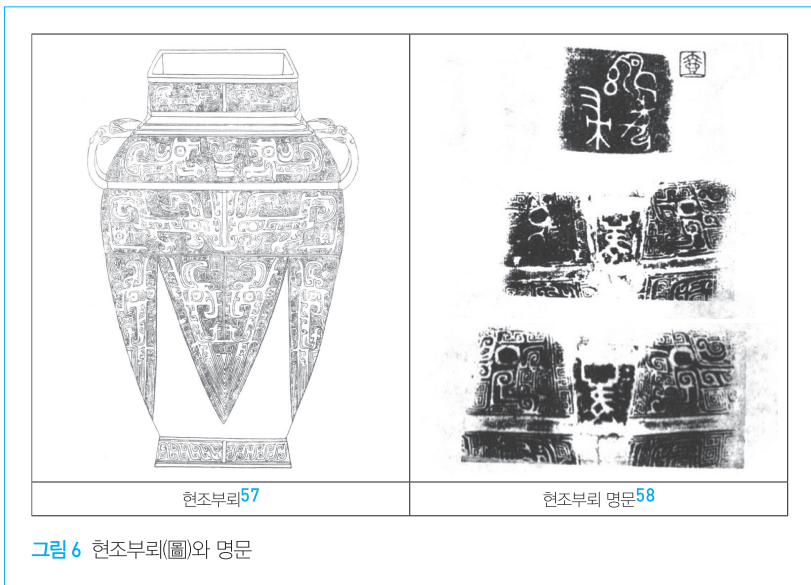
〈표 3〉 갑골문에 보이는 ‘亥’, ‘商’, ‘鳳’

亥 ⁵³	 『합집』 17375 ⁵⁴	 『합집』 32911	 『합집』 34295	 『합집』 34294
商	 『합집』 33128	 『합집』 24225	 『합집』 1136	 『합집』 7795
鳳	 『합집』 21019	 『합집』 7371	 『합집』 34036	 『합집』 30257

氏之女也，游于央臺之上，有燕銜卵而措諸其前，取而吞之，娠。”

- 50 童書業, 2004, 「“鳥夷”說」, 『童書業歷史地理論集』, 北京: 中華書局, 247쪽.
- 51 胡厚宣, 1964, 「甲骨文商族鳥圖騰的遺蹟」, 『歷史論叢』 1, 北京: 中華書局, 131~159쪽; 胡厚宣, 1977, 「甲骨文所見商族鳥圖騰的新證據」, 『文物』 1977-2.
- 52 王玉哲, 1984, 「商族的來源地望試探」, 『歷史研究』 1984-1.
- 53 劉釗等編, 2009, 『新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812~813, 126~127, 244쪽.
- 54 郭沫若主編, 1978~1983, 『甲骨文合集』 1-13, 北京: 中華書局. 본문 『합집』으로 약칭.

현조와 관련된 흥미로운 청동 명문이 하나 전해지는데, 그 기물은 실전(失傳)되었으나 다행히 명문과 문양은 전해지고 있다. 이 기물의 상단에는 ‘현조부(玄鳥婦)’라는 세 글자의 합문, 양쪽 귀 밑부분에는 ‘아의(亞疑)’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우성오(于省吾)는 이 기물의 명문에 대해 상나라 사람들의 토렘을 연구하는 데 유일하고 진귀한 사료로서 상대 금문에 남아 있는 현조 토렘의 흔적으로 여겼다.⁵⁵ 이 현조 토렘은 상족의 북방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특히 이 기물의 중간에 새겨져 있는 ‘아의’라는 명문이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에 다수 보이는 점 또한 이러한 인식에 힘을 더해 주고 있다.⁵⁶



55 于省吾, 1959, 「略論圖騰崇拜與宗教起源和夏商圖騰」, 『歷史研究』 1959-10, 60~69쪽.

56 王長豐, 2006, 「殷周金文族徽整理與研究」, 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28~131쪽; 雒有倉, 2007, 「商周青銅器族徽文字綜合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쪽; 이유표, 2019, 「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 명문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3, 141~142쪽. 추형(鄒衡)과 갈영희(葛英會)는 ‘亞疑’의 ‘疑’

이 밖에 상의 선공의 하나인 ‘왕해’와 관련된 사적 또한 상족의 북방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헌적 근거이다.

먼저, 『산해경(山海經)』 「대황동경(大荒東經)」의 기록을 보자.

왕해라는 사람이 있어 두 손에 새를 잡고 지금 그 머리를 먹고 있다. 왕해가 유역(有易)과 하백에게 길든 소를 맡겼는데, 유역이 왕해를 죽이고 길든 소를 차지했다. <은이 유역을 치자> 하백이 유역을 딱하게 여겨 <그를 도와주어> 유역이 몰래 빠져나와 짐승들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그것을 먹고 있다.⁵⁹

위진(魏晉) 시기, 진(晉) 나라의 곽박(郭璞)은 『산해경』의 주석에서 『죽서기년(竹書紀年)』의 다음 기록을 인용하였다.

은 왕자 해가 유역(有易)에 빈(賓)으로 왔다가 음탕한 짓을 하였다. 유역의 임금 면신(緜臣)은 그를 죽이고 추방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주갑미(主甲微, 곧 상갑미)⁶⁰는 하백(河伯)에게 군사를 빌려 유역을 벌하여 멸하였다. 이에 그 임금 면신을 죽였다.⁶¹

자를 ‘현조’의 형상으로 인식하였다. 鄒衡, 1980,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隣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葛英會,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冀」, 『고고학탐구』 11.

- 57 端方, 1909, 『陶齋吉金續錄』 卷2, 元婦壺, 清宣統元年石印本影印, 劉慶柱·段志洪 主編, 2005, 『金文文獻集成』 8冊, 線裝書局, 478쪽.
- 58 羅振玉, 1983, 『三代吉金文存』, 北京: 中華書局, 1201쪽.
- 59 정재서 역주, 1985, 『산해경』, 민음사, 290쪽. “有人曰王亥, 兩手操鳥, 方食其頭, 王亥託于有易, 河伯僕牛. 有易殺王亥, 取僕牛. 河念有易, 有易潛出, 爲國于獸, 方食之.”
- 60 『국어(國語)』 「노어상(魯語上)」에는 ‘상갑미(上甲微)’로, 갑골문에는 ‘상갑(上甲)’으로 기록된 것이 많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상갑미’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徐元誥 撰, 2002, 『國語集解』(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61쪽, “上甲微, 能帥契者也.”
- 61 方詩銘·王修齡 撰, 2005, 『古本竹書紀年輯證』(修訂本), 12쪽, “『竹書』曰, 殷

『초사(楚辭)』 「천문(天問)」편에도 ‘왕해’와 ‘유역’의 고사가 들어 있다.

해(該, 곧 왕해)는 계의 덕을 지녀, 그의 아버지는 훌륭하게 여겼는데, 어찌하여 끝내 유후(有扈, 곧 유역)에서 고생하며 소와 양을 쳤는가? … 미(微, 왕해의 아들)는 <조상의> 자취를 따라 <유역을 치니>, 유적(有狄, 곧 유역)은 편치 못하게 되었네.⁶²

이상으로 각 기록마다 내용상 약간의 출입은 있으나,⁶³ 왕해와 미의 부자관계, 그리고 이 부자와 유역 사이의 대립관계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기』 「은본기」에 기록된 상 선공의 세계(世系)는 다음과 같다.

설-소명(昭明)-상토(相土)-창약(昌若)-조어(曹圉)-명(冥)-진(振)-미(微)-보정(報丁)⁶⁴-보을(報乙)-보병(報丙)-주임(主壬)-주계(主癸)-천을(天乙, 成湯)⁶⁵

王子亥賓于有易而淫焉，有易之君緜臣殺而放之，是故殷主甲微假師于河伯以伐有易，滅之，遂殺其君緜臣也。”

- 62 黃靈庚 疏證, 2007, 『楚辭章句疏證』, 北京: 中華書局, 1150~1162쪽, “該秉季德, 厥父是臧, 胡終弊于有扈, 牧夫牛羊 … 昏微遵迹, 有狄不寧.”
- 63 각 기록 사이의 출입에 대한 분석은 김석진(2011)의 「청화전국간(淸華戰國簡) 「보훈(保訓)」편의 문헌사(文獻史)적 성격」(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48쪽) 참조.
- 64 『합집』 32384에 의하면, 상갑(上甲, 곧 「은본기」의 ‘微’) - 보을 - 보병 - 시임(示壬, 곧 주임) - 시계(示癸, 곧 주계) - 대을(大乙, 곧 천을)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은본기」에 기록된 상 선공의 세계가 대체로 신빙성이 있으나, ‘보정’이 ‘보을’ 보다 앞서 기록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 65 『史記』 권3 「殷本紀」, 92쪽, “契卒, 子昭明立. 昭明卒, 子相土立. 相土卒, 子昌若立. 昌若卒, 子曹圉立. 曹圉卒, 子冥立. 冥卒, 子振立. 振卒, 子微立. 微卒, 子報丁立. 報丁卒, 子報乙立. 報乙卒, 子報丙立. 報丙卒, 子主壬立. 主壬卒, 子主癸立. 主癸卒, 子天乙立, 是爲成湯.”

〈표 4〉 각 전래 문헌에 보이는 왕해와 상갑미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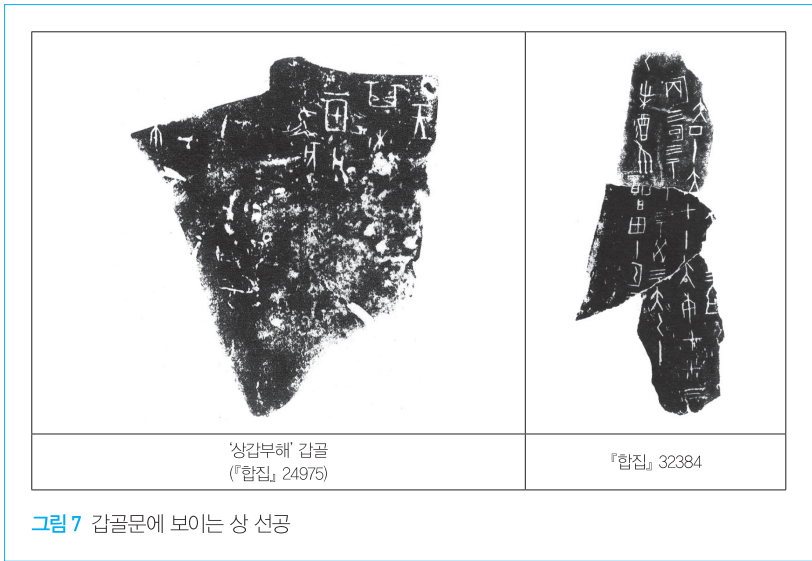
	「은본기」	『죽서기년』	기타 문헌
왕해	振	은 왕자 亥	『세본(世本)』 ‘核’ 혹은 ‘骸’, ⁶⁶ 『초사』 「천문」 「該」, 『여씨춘추』 「王冰」, ⁶⁷ 『산해경』 「대황동경」 「王亥」 등
상갑미	微	主甲微	『국어』 「노어상」 「上甲微」, 『초사』 「천문」 「微」, 『보훈』 「宓」 등

여기서의 ‘미’는 곧 『죽서기년』의 ‘주갑미’로 보인다. 그러나 『죽서기년』에서 ‘주갑미’의 부친은 ‘은 왕자 해’로, 여기서는 ‘振’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합집』 24975의 ‘상갑부해(上甲父亥)’의 복사(卜辭)를 통해, 「은본기」의 ‘振’은 ‘亥’의 오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왕해, 상갑미와 대립했던 유역에 대해 살펴보자. ‘유역’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유호(有扈)’ 혹은 ‘유적(有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 전사(傳寫)상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 ‘유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왕국유가 지금의 하북성 역수 일대로 고증한 이후,⁶⁸ 대체로 이 설을 따르고 있다.⁶⁹ 또한 이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초기 청동기 시대 북방문화와 선상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으로,⁷⁰ 상 선공인 왕해와 상갑미가 이족(異族)인 유역과 교류했다는 전설을 지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순자(荀子)』와 『세본』 등에 따르면, 상의 시조 ‘설’의 아들인 ‘소명’이 ‘지석(砥石)’에 거했다는 전설이 있다. ‘지석’에 대해 김정방(金景芳)은 요하

66 宋衷注, 秦嘉謨等輯, 2008, 『世本八種』, 北京: 中華書局, 38, 41쪽.
 67 許維遹撰, 2009, 『呂氏春秋集釋』, 北京: 中華書局, 450쪽. “王冰作服牛”.
 68 王國維, 1959,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觀堂集林』, 北京: 中華書局, 421쪽.
 69 물론 일부 학자들은 ‘有易’이 오히려 ‘有扈’의 잘못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길상(鄭傑祥, 2009) 선생의 「輝衛型文化與王亥“服牛”」(『中原文物』 2009-5)이다.
 70 李伯謙, 1990, 「中國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分區系統」, 『華夏考古』 1990-2.



의 발원지로 인식했고,⁷¹ 이민(李民)은 지금의 하남성 삼문협(三門峽) 북쪽으로 여겼으며,⁷² 정산(丁山)은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石家莊)과 형대(邢臺) 사이에 있는 지하(氾河) 부근으로 비정하였다.⁷³ 1978년 지하 부근인 하북성 원씨현(元氏縣) 서장촌(西張村)에서 서주 초기 청동기가 발견된 ‘숙관보유(叔繆父卣)’(『집성』 5428)⁷⁴ 명문에 등장하는 ‘지후(軻侯)’는 많은 학자의 주목을 받았다.⁷⁵ 이학근(李學勤)과 당운명(唐雲明)은 ‘지후’의 ‘지(軻)’를 ‘지하(氾河)’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겼고,⁷⁶ 유서(劉緒)는 더 나아가 ‘지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

71 金景芳, 1978, 앞의 글, 65~66쪽.
 72 李民, 1984, 「關於商族的起源-從「堯典」說起」, 『鄭州大學學報』 1984-1.
 73 丁山, 1988, 『商周史料考證』, 北京: 中華書局, 17~18쪽.
 7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84-1994, 『殷周金文集成』 1-18, 北京: 中華書局.
 75 河北省文物管理處, 1979, 「河北元氏縣西張村的西周遺址和墓葬」, 『考古』 1979-1.

하였다.⁷⁷ 이 지역은 역수에서 증원으로 향하는 교통로에 있는 지역으로, 고고학적으로 선사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만약 『순자』와 『세본』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소명’의 활동 범위는 정산의 설을 따라 역수에서 멀지 않은 ‘지수’ 유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⁷⁸

이를 정리해보면, 상족은 ‘현조’ 토팜을 지닌 족속으로 지금의 하북성 역수 이남 지역, 곧 고고학적으로 북방문화와 교차하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족의 기원과 관련된 제설 가운데 북방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록 이러한 상족의 ‘북방기원설’이 앞에서 살펴본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전승관계를 뒷받침하지만, 분명 반론의 여지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반론의 여지: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차이점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계승성에 의문을 던진 대표적인 사례로, 장위련(張渭蓮)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장위련은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 그리고 약석문화(嶽石文化)의 관계를 논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 사이의 위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⁷⁹

먼저 거주지와 수혈 등 유구의 차이를 보자. 장위련은 선상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거주지 평면이 모두 원형 위주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선상문화의 거주

76 李學勤·唐雲明, 1979, 「元氏銅器與西周的邢國」, 『考古』 1979-1.

77 劉緒, 1998, 「昭明之居與元氏銅器」, 『中國文物報』 1998-10-21, 第3版.

78 張渭蓮, 2019, 「商先公蹤迹與商人起源考」, 『歷史研究』 2019-2, 182쪽.

79 張渭蓮, 1997, 「先商文化 岳石文化與夏家店下層文化關係考辨」, 『文物季刊』 1997-2.

지가 지상식 위주인 반면, 하가점하층문화의 거주지는 반지혈식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하가점하층문화에서도 지상식 거주지가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반지혈식 거주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수혈 또한 양자 모두 원형, 타원형이 위주이지만, 선사문화의 수혈 가운데는 장방형 평면도 보이고, 깊게 판 교혈(窖穴)도 확인되지만,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장방형 평면 수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 거주지의 가장 큰 차이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석성으로 둘러싸인 취락이 많이 보이지만, 선사문화 거주지에서는 이러한 석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석성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인데도 선사문화 유적에서 석성이 보이지 않는 점은 두 문화 사이의 계승성에 의문을 표하게 한다.

다음으로 유물의 차이를 보자. 먼저 토기를 보면, 장위련은 토기의 재질, 문양, 기종(器種)의 풍격에서 양자를 비교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자 모두 니질 회도(泥質灰陶)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선사문화에서는 협사회도(夾砂灰陶)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협사갈도(夾砂褐陶)가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그 문양 또한 양자 모두 승문(繩紋)이 주를 이루지만, 선사문화에서는 현문(弦紋)이 비교적 많고 부가퇴문(附加堆紋)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부가퇴문이 비교적 많고 현문이 극히 적게 나타



이도정자 취락
(이도정자유지박물관, 2018. 8.)



삼좌점 석성(2018. 8.)

그림 8 하가점하층문화 취락

나고 있다. 토기의 기종도 두 문화 모두 려, 언, 관, 분이 많이 보이지만, 기물의 품격은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석기를 보면, 장위련은 두 문화에서 모두 석도, 석산, 석부가 많이 출토되었지만, 그 품격이 다르고, 공반되는 석기의 기종이 다름을 언급하였다. 석도를 보면, 선상문화에서는 호배직인(弧背直刃)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단면이 삼릉형(三稜形), 계엽형(桂葉形), 만월형(彎月形)인 석도가 많이 보인다. 또 선상문화에서 보이는 구멍 뚫린 편관장방형(扁寬長方形) 석월(石鐮), 소뿔 형상의 석렴(石鎌), 호배호인(弧背弧刃) 석렴, 원형 혹은 타원형 석추(石錘), 감잡기(斫礮器) 등은 하가점하층문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많이 보이는 아요(亞腰) 석부, 아요 석서(石鋤), 유견(有肩) 석서, 반상기(盤狀器) 등은 선상문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골기를 보면, 유엽형(柳葉形), 삼각형 단면의 골촉과 쌍익 원추형 골촉(雙翼圓錐形骨鏃)이 두 문화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쌍익후봉원정(雙翼後鋒圓錐) 골촉과 정형(釘形) 골 비너는 선상문화에서만 보이고, 하가점하층문화의 편평한 삼각형 골촉과 각종 골비(骨匕)는 선상문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골기의 전체적인 수량은 하가점하층문화가 훨씬 많다.

이 밖에 양자 모두 가락바퀴, 그물추 등 도질 공구가 발견되었지만, 하가점하층문화와 대타두문화 등에 나타나는 와두상(窩頭狀) 도모(陶模), 산주형(算珠形), 성형(星形), 원주형(圓柱狀) 가락바퀴는 선상문화에서 보이지 않는다. 또 두 문화에서 모두 동물 견갑골로 만든 복골이 출토되었는데,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이 밖에 동물의 늑골(肋骨)을 이용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⁸⁰ 그리고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금팔찌(金臂釧), 금귀고리(金耳環), 금비녀(金笄) 등 금기(金器)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 사이에는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¹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가점하

80 朴載福, 2011, 『先秦卜法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9쪽.

층문화와 이리두문화, 그리고 상 초기 문화의 관계 또한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서 이리두문화 양식의 규, 작, 화가 출토되었지만, 대전자(大甸子)를 사례로 보면, 총 806기의 무덤 가운데 13기에서만 보일 뿐이다. 채회도기(彩繪陶器)와 수면문(獸面紋) 같은 경우,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기는 했으나, 대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은 채회도기가 결코 하가점하층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채회도기와 수면문은 결코 하가점하층문화를 대표하는 물질문화가 아니라, 특정 기간, 특정 집단 혹은 계층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발견된 석월과 석경, 복골 같은 경우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했을 때, 양자 간의 교류관계는 볼 수 있지만 그 전파와 수용의 주체, 더 나아가 문화의 담지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또 전래문헌을 근거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관계를 전파와 수용의 관계, 더 나아가 민족문화적인 상호 계승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V. 현실적 배경: 지역문명 만들기

1960년대 약왕묘와 하가점 유적의 발굴 이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문화적 연관성이 지적된 후 두 문화 사이의 물질문화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연구성과는 물론, 더 나아가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상문화로 이어지는 민족문화적 계승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과 고문자 자료를 근거로

81 張渭蓮, 1997, 「先商文化 岳石文化與夏家店下層文化關係考辨」, 『文物季刊』 1997-2.

한 상족의 ‘북방기원설’은 이러한 고고학적 인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화적 유사성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 ‘소동대이(小同大異)’하고,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보이는 규, 작, 화 등의 토기와 채회도기도 극히 일부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계승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계승관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박물관 등의 공공역사 현장에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이도정자유지박물관(二道井子遺址博物館)의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吾從何方來, 復歸何處)’라는 제목의 패널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는 당시 중국 북방지역과 서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동북지역으로 뻗어 나갔으며, 남쪽으로는 은상 창입의 기점이 되었다.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의 유적에서 나온 기물의 문양과 형제를 비교해보면, 양자 간 아주 많은 유사점과 아울러 문화적 전승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요녕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의 ‘하가점하층문화’ 패널에서는 이 지역을 상나라의 북토인 ‘연박(燕亳)’으로 서술하면서,⁸² 하가점하층문화의 채회도기와 상문화의 청동기 문양을 비교하는 패널을 별도로 마련하여 양자 간의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각 지역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명 만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³ 예컨대 중국 하남성(河南省)을 중심으로 한 ‘하락문명(河洛文明)’, 산둥성(山東省)의 ‘제로문화(齊魯文化)’, 섬서성(陝西省)의 ‘한당문화(漢唐文化)’ 혹은 ‘삼진문화(三秦文化)’, 감숙성(甘肅省)의 ‘주진문화(周秦文化)’, 산서성(山西省)의 ‘진문화(晉文化)’, 허북성(河北省)의 ‘연조문화(燕趙文化)’, 사천성(四川省)의 ‘촉문화(蜀文化)’와 중경시(重慶市)의 ‘파문화(巴

82 『春秋左傳正義』 권45 ‘昭公九年’, 2056쪽. “我自夏以后稷魏駘芮岐畢吾西土也. 及武王克商. 蒲姑商奄. 吾東土也. 巴濮楚鄧吾南土也. 肅慎燕亳吾北土也. 『춘추좌씨전』의 맥락으로 보면, ‘연박’은 주나라 시기, 곧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존재한 것이 된다. 이는 학계에서 비정한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2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완전히 모순된다.

83 김병준 등,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文化), 그리고 절강성(浙江省)의 ‘오월문화(吳越文化)’, 호북성(湖北省)과 호남성(湖南省)의 ‘초문화(楚文化)’ 등으로, ‘하락문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대 각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 이름을 그대로 혹은 조합하여 ‘지역문명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명 만들기’ 현상은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문명’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선전하여 자신들의 관광수입으로 연결하려는 현실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⁴

이른바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를 포함한 중원문화의 연결고리를 찾는 경향 또한 이러한 바람을 타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하가점하층문화를 잉태한 요서(遼西)지역은 중원의 고국(古國)이 아닌 ‘요하(遼河)’라는 자연지물을 ‘지역문명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데,⁸⁵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에 고대 중국으로 편입시켜 볼 수 있는 고대 국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⁶ 이는 어쩌면 중국 내에서 ‘요서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입지가 크지 않

84 김병준 등, 2008, 위의 책, 9~14쪽.

85 이는 하남성이 중국 문명의 원류라는 점에서 ‘하락문명’을 내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고대 문화가 중원에 계승 혹은 전파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이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문화 만들기’의 학술적인 근거는 1980년대 소병기(蘇秉琦)가 주창한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에서 살펴볼 수 있다.⁸⁷ 과거에는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을 중국문화의 요람으로 여기고, 중국의 문화는 황하 유역에서 주변으로 확산되었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고고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서,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러 고고문화가 각자의 특징과 노선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⁸⁸ 소병기는 이에 주목하여, 각 문화 사이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문화는 중원에서 일원적으로 발생하여 주변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되면서 중국문화를 일궈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구계유형론’이라는 것이다.

소병기의 구계유형론은 중국 고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안지민(安志敏)이다. 안지민은 중국의 고대 왕조가 황하 유역에서 건립되고, 상나라 문명이 선사문화의 맥락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황하 유역이 중국 문명의 발상지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⁸⁹ 이러한 안지민의 반론은 이 글의 논지인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를 포함한 중원문화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또 다른 인식의 틀을 제시해준다. 즉, 하가점하층문화가 상문화에 계승 혹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원문화가 하

86 이유표 편, 2019,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문화집경·다양성·상호작용』, 동북아역사재단, 4~5쪽.

87 蘇秉琦 著, 박재복 역, 2009, 『중국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탐구한 구계유형론』, 도서출판 고고.

88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89 安志敏, 1987, 「試論文明的起源」, 『考古』 1987-5, 455~456쪽.

가점하층문화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 것이다.

예컨대 두금봉(杜金鵬)은 도작(陶爵)과 도규(陶鬻) 등 토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의 관계를 논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양자 간 관련 유물의 정밀도를 비교하여, 하가점하층문화의 정밀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하가점하층문화로 귀속되는 대전자(大甸子) 유적을 사례로, 도작과 도규, 그리고 수면문(獸面紋)이 들어간 채회도기가 극히 제한적으로 출토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토기는 부와 귀를 갖춘 현지 상층 인물이 지녔던 특수한 사례로 인식하였다. 그는 도작과 도규, 그리고 수면문이 그려진 채회도기를 하가점하층문화의 보편적인 문화적 요소로 보지 않고 중원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전파에 대해서도 문화의 침투력 혹은 인적 이동에 따른 전파 등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중원 문화적 요소가 소수 가족 무덤에 집중되는 점에 주목하여 인적 이동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⁹⁰

서소봉(徐昭峰) 또한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의 관계에 대해, 토기의 정밀도 측면에서 하가점하층문화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는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문화적 전파력을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두금봉의 이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리두문화가 하가점하층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두금봉과 인식을 같이한다.⁹¹

안지민을 비롯한 두금봉, 서소봉 등은 모두 주로 황하 유역의 고고문화를 연구하던 학자이다. 서소봉은 현재 요녕사범대학(遼寧師範大學)에 재직하면서 요동(遼東)지역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으나, 그전에는 주로 황하 유역의 고고문화를 연구하였다. 특히 두금봉은 이리두문화와 상 초기 유적인 ‘언사상성’의 고고발굴에 장기간 종사했던 학자로, ‘중국하락문화연구회(中國河洛文化研究會)’

90 杜金鵬, 1995, 「試論夏家店下層文化中的二里頭文化因素」, 『華夏考古』 1995-3.

91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類型辨析-基于二里頭文化類型的對比研究」, 『考古與文物』 2010-2 등.

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하락문화연구회는 ‘하락문화’가 중원문화의 핵심이고, 그 중원문화가 바로 중화문명의 모태라는 기본 입장에서 조직된 것이다.⁹²

같은 맥락으로 하가점하충문화가 상문화로 계승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의 연구 배경을 보면, 김경방(金景芳)과 장박천(張博泉)은 요녕성 출신으로 길림대학(吉林大學)에 재직했으며, 곽대순(郭大順)과 인신건(蔣新建) 등은 요녕성 박물관에 재직하는 등 모두 중국 동북지역 출신 혹은 재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밖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간지경(干志耿), 이전복(李殿福), 황중업(黃中業) 등도 각각 흑룡강성(黑龍江省)과 길림성(吉林省)의 유관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 배경 또한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지역문명 만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병준 등은 이러한 지역문화 선양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역문화가 다른 지역문화와 구별되고 동시에 지역문화의 유구함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지역주의적 경향 자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들 연구의 논지 전개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⁹³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검토한 중국 동북지역 학자들을 위주로 진행 중인 하가점하충문화와 상문화의 계승관계에 대한 연구를 평가해보면, 장위련이 지적한 대로 ‘소동대이’한 측면을 보다 강조한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논지 전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92 김진우, 2008, 「황하 중하류지역의 ‘하락문화’-하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26쪽. 따라서 두금봉의 연구 또한 중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문명 만들기’ 혹은 ‘지역문명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3 김병준 등, 2008, 앞의 책, 9~11쪽.

VI. 맺음말

이상으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계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60년 약왕묘와 하가점 유적의 발굴 이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고고학적으로 거주지와 수형 등의 유구, 토기, 석기, 골기, 복골 등 물질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근거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선상문화 사이의 유사성이 지적되는 한편, 비교 범위가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되어, 동과, 규, 작, 화 등의 토기와 채회도기, 그리고 석월, 석경, 옥기 등을 근거로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 및 상 초기 문화 사이의 물질문화적 유사성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게다가 문헌과 고문자 자료에 보이는 상족의 ‘현조’ 토토편, 그리고 상 선공 ‘왕해’가 지금의 하북성 영수 일대에서 활동했다는 인식 등을 통해 상족의 ‘북방 기원설’이 구체화되면서, 상족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기원했다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민족문화적 계승성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여러 고고문화 사이에 유사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하가점하층문화와 이리두문화 사이의 유사성의 근거로 활용되는 규, 작, 화 등의 예기와 채회도기도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하가점하층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학계는 물론, 특히 공공역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각지에서 유행 중인 ‘지역문명 만들기’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문명 만들기’는 각 지역별로, 역사적으로 각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 혹은 대표적인 지형지물을 타이틀로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선전하여 자신들의 관광수입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뒷받침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계승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보

면, 대체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지역 출신 혹은 이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리를 강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중국 중원지역의 고고문화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중원 문화가 북방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상반된 논리로 양자 간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같은 고고학적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연구 환경이 끼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가점하층문화를 잉태한 요하 유역의 지역문화 브랜드, 곧 ‘요하 문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이 지역에 내세울 만한 중국 고국이 없다는 이면의 고충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요하문명’이라는 브랜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하가점하층문화’가 중원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는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여러 맥락을 고려해보면, 연구자들이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유사성만 강조하면서, 이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애써 외면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논지 전개의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지역문화의 유구함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경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참고문헌

자료

- 『毛詩正義』, 阮元刻『十三經注疏』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 『春秋左傳正義』, 阮元刻『十三經注疏』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 方詩銘·王修齡 撰, 2005, 『古本竹書紀年輯證』(修訂本), 上海古籍出版社.
- 徐元誥 撰, 2002, 『國語集解』(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 宋衷 注, 秦嘉謨 等輯, 2008, 『世本八種』, 北京: 中華書局.
- 정재서 역주, 1985, 『산해경』, 서울, 민음사.
- 許維遙 撰, 2009, 『呂氏春秋集釋』, 北京: 中華書局.
- 黃靈庚 疏證, 2007, 『楚辭章句疏證』, 中華書局.
- 端方, 1909, 『陶齋吉金續錄』 卷2, 元婦壺, 清宣統元年石印本影印, 劉慶柱·段志洪 主編, 2005, 『金文文獻集成』 8冊, 線裝書局.
- 羅振玉, 1983, 『三代吉金文存』, 中華書局.
- 郭沫若 主編, 1978~1983, 『甲骨文合集』 1-13, 北京: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84~1994, 『殷周金文集成』 1-18, 北京: 中華書局.
- 馬承源 主編, 200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2, 上海古籍出版社.
- ### 단행본
- 김병준 등,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蘇秉琦 著, 박재복 역, 2009, 『중국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탐구한 구계유형론』, 도서출판 고고.
- 이우표 편, 2019,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문화접경·다양성·상호작용』, 동북아역사재단.

- 朴載福, 2011, 『先秦卜法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傅斯年, 1932, 『東北史綱』(初稿) 第1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劉釗 等 編, 2009, 『新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丁山, 1988, 『商周史料考證』, 北京: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9, 『偃師二里頭: 1959年~1978年考古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논문

- 김석진, 2011, 「청화전국간(淸華戰國簡) 『보훈(保訓)』편의 문헌사(文獻史)적 성격」,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우, 2008, 「황하 중하류지역의 ‘하락문화’-하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 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박진호, 2020a,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 복기대, 2003, 「大坨頭文化에 대한 一考察」, 『고문화』 61.
- 이유표, 2018, 「중국 학계의 동이 연구와 인식」, 『중국 산둥 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 _____, 2019, 「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 명문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3.
- 干志耿·李殿福·陳連開, 1985, 「商先起源於幽燕說」, 『歷史研究』 1985-5.
- 葛英會 著,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貢」, 『고고학탐구』 11.
- 顧頡剛, 1923,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 郭大順, 1998, 「北方古文化與商文化的起源」,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金景芳, 1978, 「商文化起源于我國北方說」, 朱東潤 主編, 『中華文史論叢』 7, 上海古籍出版社.
- 童書業, 1940, 「自序二」, 『古史辨』 7-上,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 _____, 2004, 「“烏夷”說」, 『童書業歷史地理論集』, 北京, 中華書局.
- 杜金鵬, 1995, 「試論夏家店下層文化中的二里頭文化因素」, 『華夏考古』 1995-3
- 雒有倉, 2007, 「商周青銅器族徽文字綜合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朴貞浩, 2020b, 「夏家店下層文化聚落·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大

學博士學位論文。

- 潘其鳳, 1989, 「我國青銅時代居民人種類型的分布和演變趨勢」,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 徐昭峰, 2010, 「夏家店下層文化類型辨析-基于二里頭文化類型的對比研究」, 『考古與文物』2010-2。
- 徐昭峰·李麗娜, 2009, 「夏商之際王朝文化北向傳播的通道及背景探析」, 『中原文物』2009-5。
- 徐中舒, 1930, 「殷人服象及象之南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2卷1期。
-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1981-5。
- 孫繼民, 1990, 「從青銅禮器看夏家店下層文化與商代文化的關係」, 『昭烏達蒙族師專學報』1990-4。
- 安志敏, 1987, 「試論文明的起源」, 『考古』1987-5。
- 楊錫璋, 1989, 「殷人尊東北方位」,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 呂遵誥, 1959, 「內蒙古赤峰紅山調查報告」, 『考古學報』1959-3。
- 王國維, 1959,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觀堂集林』, 中華書局。
- 王玉哲, 1984, 「商族的來源地望試探」, 『歷史研究』1984-1。
- 王長豐, 2006, 「殷周金文族徽整理與研究」, 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志忠, 2021, 「商周青銅器饕餮紋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組, 1983, 「遼寧建平縣喀喇沁河東遺址試掘簡報」, 『考古』1983-11。
- 于省吾, 1959, 「略論圖騰崇拜與宗教起源和夏商圖騰」, 『歷史研究』1959-10。
- 劉緒, 1998, 「昭明之居與元氏銅器」, 『中國文物報』1998-10-21。
- 李經漢, 1979,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 第1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李民, 1984, 「關於商族的起源-從「堯典」說起」, 『鄭州大學學報』1984-1。
- 李伯謙, 1990a, 「論夏家店下層文化」, 『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三十年(1952-1982)』, 文物出版社。
- _____, 1990b, 「中國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分區系統」, 『華夏考古』1990-2。
- 李鳳舉, 2007, 「喀喇沁旗出土的夏家店下層文化石磬」, 『內蒙古文物考古』2007-1。
- 李學勤·唐雲明, 1979, 「元氏銅器與西周的邢國」, 『考古』1979-1。

- 藺新建, 1985, 「先商文化探源」, 『北方文物』1985-2.
- 張博泉, 1981, 「關於殷人的起源地問題」, 『史學集刊』復刊號.
- 張渭蓮, 1997, 「先商文化 岳石文化與夏家店下層文化關係考辨」, 『文物季刊』1997-2.
- , 2019, 「商先公蹤迹與商人起源考」, 『歷史研究』2019-2.
- 張忠培·孔哲生·張文軍·陳雍, 1987,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蘇秉琦 主編,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 鄭傑祥, 2009, 「輝衛型文化與王亥“服牛”」, 『中原文物』2009-5.
- 齊亞珍·劉素華, 1991, 「錦縣水手營子早期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1991-1.
- 朱乃誠, 2021, 「二里頭綠松石龍的原流 - 兼論石峁遺址皇城臺大臺基石護牆的年代」, 『文物研究』2021-2.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 「內蒙古赤峯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1961-2.
- , 1974, 「赤峯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74-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頭工作隊, 2002, 「河南偃師市二里頭遺址發現一件青銅鉞」, 『考古』2002-1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大甸子 - 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陳平, 2002, 「夏家店下層文化研究綜述」, 『北京文物與考古』5.
- 鄒衡, 1980,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隣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 河北省文物管理處, 1979, 「河北元氏縣西張村的西周遺址和墓葬」, 『考古』1979-1.
- 韓嘉毅, 1981,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 第3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韓嘉毅, 1992,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會 第7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胡厚宣, 1964, 「甲骨文商族鳥圖騰的遺蹟」, 『歷史論叢』1, 中華書局.
- , 1977, 「甲骨文所見商族鳥圖騰的新證據」, 『文物』1977-2.
- 華玉冰·張振軍·杜守昌, 2002, 「朝陽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的分期及相關問

題」,『邊疆考古研究』1.

黃可佳, 2015, 「試析以大甸子墓地玉器爲代表的夏家店下層文化玉器」,『草原文物』2015-2.

黃中業, 1990, 「從考古發現看商文化起源於我國北方」,『文物』1990-1.

黃曉蕾, 2020, 「夏家店下層文化彩繪陶簡論」,『赤峰學院學報』2020-4.

濱田耕作, 1929, 「貔子窩」,『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1冊.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後」,『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6冊.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의 계승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유표

1960년대 약왕묘와 하가점유적의 발굴 이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문화적 연관성이 지적된 후, 두 문화 사이의 물질문화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연구성과는 물론, 더 나아가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상문화로 이어지는 민족문화적 계승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과 고문자 자료를 근거로 한 상족의 ‘북방기원설’은 이러한 고고학적 인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화적 유사성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소동대이(小同大異)’하고,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보이는 규, 작, 화 등의 토기와 채회도기 또한 극히 일부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계승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계승관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역사 현장에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역문명 만들기’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한 하가점하층문화를 잉태한 요하 유역의 ‘요하문명’이라는 지역문명 브랜드는 이 지역에 내세울 만한 중국 고국이 없다는 이면의 고충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하가점하층문화’가 중원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는 지역문화의 우수

성을 선양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보면, 연구자들이 하가점하층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유사성만 강조하면서, 이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애써 외면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논지 전개의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지역문화의 유구함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경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주제어: 하가점하층문화, 상문화, 선상문화, 이리두문화, 지역문명

ABSTRACT

A Review of the Succession Relationship between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and Shang Culture

Lee Youpyo

After the excavation of Yuewangmiao and Xiajiadian site in the 1960s, the excavators pointed out the similarity between Lower Xiajiadian Culture and Shang Culture. Since then, many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e similarities between Lower Xiajiadian Culture and Shang Culture. In addition, many researchers are raising national and cultural succession from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to Shang Culture. In this context, A's Northern Origins theory raised based on literature and torture data supports this archaeological perception. In this context, Shang people's Northern Origins theory raised based on literature and excavated texts supports this archaeological perception. However, since these material and cultural similarities differ greatly in the overall framework, it is unreasonable to grasp them as a general succession relationship.

Nevertheless, discussions on the succession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continue. In particular,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this more in the field of public history. This region promotes “Liao-he River Civilization” as a local cultural brand. This also shows the difficulties behind the fact that there is no ancient Chinese country in the region. Therefore, the logic that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influenced Central Plains culture is a good basis for strengthening local identity while promoting the excellence of the local culture.

Considering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researchers ignored the more diverse differences, emphasizing only the similarity between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and Shang culture.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studies are immersed in the tendency of regionalism that emphasizes the permanence and superiority of local culture rather than the validity of the thesis development.

Keywords: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Shang Culture, Pre-Shang Culture, Erlitou Culture, Local cultur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왕국(燕王國)에서 대연제국(大燕帝國)으로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하북진출(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춘호 | 중국 惠州學院 歷史系 교수

- I. 머리말
- II.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한 이유
- III. 모용선비의 하북진출 과정과 '입도어계(入都於薊)'에 대한 분석
- IV. 모용준이 수차례 용성으로 귀환한 이유와 봉혁알'금이도계'(封奕曰'今已都薊')에 대한 분석
- V.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으로의 천도
- VI. 맺음말



I. 머리말

동진(東晉) 함강(咸康) 3년(337) 모용선비는 요방(遼邦)¹의 중심지 극성(棘城)에서 모용정권²의 시대를 끝내고 국왕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연왕국[전연(前燕)]을 건국한다.³ 이어 함강 7년(341) 용성(龍城)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지금까지 진조

* 투고: 2021년 9월 28일, 심사 완료: 2021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11월 12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惠州學院自主創新能力提升計劃項目(hzu20191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晉書』卷108, 慕容廆載記, 2805쪽. “... 上則興復遼邦, ...” 遼海[『後漢書』卷73, 公孫瓚傳, 2362~2363쪽. “瓚自以爲易地當之, 遂徙鎮焉, 乃盛修營壘, 樓觀數十, 臨易河, 通遼海”(밑줄은 필자)]로도 불리는 요방은 요서·요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적인 개념이다. 일찍이慕容氏의 선조 莫護跋은 그의 部衆을 이끌고 이 지역으로 이주한 후慕容涉歸·慕容廆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이 지역의 새로운 霸者가 되었다. 이후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은 하북·중원과 비교하여 시종 그들에게 정신적인 고향, 그리고 하북·중원의 후방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 2 여기에서 모용정권이라 함은慕容氏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慕容氏·可足渾氏 등 선비족 부락이 분포하고, 그 밑으로 여러 다른 유목민족의部落酋帥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크고 작은 部落들이 있으며, 그 안으로는 部民들이 산재해 있는 연맹체라 할 수 있다. 이후 한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런 조직체계는 그 운영과 성격 등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建興 원년(313) 모용정권의 지도자慕容廆가 한인 사족들 중 賢才를 발탁하여 謀主·股肱 등의 ‘측근막로’로 등용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후 완전한 국가체제를 이루기 이전의 要務를 맡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41쪽.
- 3 연왕국(전연)의 建國年과 관련하여 현재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 모용선비는 그들의 자립의식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군사 등의 통치체제를 갖추고 그 발전을 도모해갔다고 할 때, 함강 3년을 연왕국이 건국된 해로 보고 그 이전까지는 이를 준비하고 제반조치가 실시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춘호, 2010a, 「五胡시기慕容前燕의建國과 그 성격-‘勤王’의 출현 및 그 운용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輯, 72~73쪽 참고.

(晉朝)에 대해 취해 왔던 ‘근왕(勤王)’의 외교노선을 버리고 점차 독자적인 정치·경제·군사 등의 통치체제를 갖춘 왕조로 새롭게 발전 변화해갔다.⁴ 더욱이 요동(遼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고구려를 정벌하여 남녀 5만여 구(口)를 포로로 삼고 그들의 도성 환도성(丸都城)을 파괴했으며, 또한 시종 적대시해왔던 우문선비(宇文鮮卑)를 철저히 공멸하여 강역을 1,000여 리 넓히고 5만여 락(落)의 그들을 창려군(昌黎郡)으로 천사시키는 등 당시 요방의 패자는 분명 모용선비였다.⁵ 그런 그들이 이후 왜 요방을 떠나 하북(河北)⁶으로 진출한 것일까?

- 4 『資治通鑑』卷97, 「晉紀」19, 穆帝永和元年(345)條, 3068~3069쪽, “燕王皝以爲古者諸侯卽位, 各稱元年, 於是始不用晉年號, 自稱十二年. 胡注: 燕自是不復稟命於晉矣.” 익명의 심사자는 연왕국이 용성으로 천도한 341년에 바로 근왕의 외교노선을 폐기했던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모용준이 이후 晉穆帝에 의해 연왕으로 책봉된 것 역시 그런 외교노선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모용선비가 용성으로 천도한 즉시 그런 외교노선을 폐기했다고 보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일찍이 한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용성에 定都한 이후 모용선비는 예전과 달리 점차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치·경제·군사 등의 통치체제를 갖춘 왕조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갔으며(이춘호, 2010a, 위의 글, 99~107쪽 참고), 그런 점에서 모용황은 345년에 이르러 비로소 “不用晉年號, 自稱十二年” 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348년 11월 연왕을 자칭한 모용준이 이듬해 동진에 의해 연왕 및 대장군·대선우 등에 책봉된 것은 근왕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찍이 연왕국 내의 한인사족들의 동향을 염두에 두고 모용황이 341년 동진에 의해 연왕으로 책봉된 것처럼 그런 전통을 계승한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 5 『진서』 권109, 慕容皝載記, 2822쪽, “(慕容皝)掠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毀丸都而歸 … 尋又率騎二萬親伐宇文歸 … 開地千餘里, 徙其部人五萬餘落於昌黎.”
- 6 河北은 『十六國春秋』·『晉書』·『魏書』·『北史』 등 五胡十六國·北朝의 사서에서 자주 눈에 띄는 단어로, 黃河 以北 그리고 太行山 以東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 하북은 모용선비가 최종적으로 중원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 즉 중원에 안주하기 전 이 지역에서 기왕의 정책들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를 새롭게 조정하고 실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모용선비는 일찍이 하북에서 귀향해 온 한인들로부터 이 지역의 상황을 전해 들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곳을 직접 다스려야만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當有中原’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은 이런 하북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고 나아가 어떻게 요방을 대체하는 국

이 문제를 이 글의 출발점에 두고 논의에 들어간다.

주지하듯 3~4세기 지구 동반부에 밀어닥친 한파로 북중국의 날씨는 몹시 춥고 건조했으며, 특히 몽골초원은 빠르게 사막화되면서 유목민족의 생존환경을 크게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당시 중원에서 발달한 팔왕(八王)의 난과 영가(永嘉)의 난을 피해 적지 않은 수의 한인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왕국의 근거지인 요방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는데, 그중 인구 증가로 인한 경작지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였다. 이 밖에 모용선비의 세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용외(慕容廆)는 일찍이 수차례에 걸쳐 자손들에게 자신이 덕과 인을 쌓아 요방에서 인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후 중원을 차지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 영화(永和) 4년(348) 11월 연왕에 오른 모용준(慕容儁)은 국내외에 직면했던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요방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그로부터 약 13개월이 지난 그해 겨울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20여 만의 군사를 셋으로 나눠 후조(後趙)에 대한 군사정벌에 나선 것이다. 그는 같은 해 3월 계성(薊城)을 함락하고 그곳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두었다. 계성은 요방에서 하북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한·유목민족(漢·遊牧民族) 간 경제·정치·군사·문화 등의 교류의 장이 된 곳이기도 하였다.⁸ 이후 하북이 요방을 대신한 연왕국의 새로운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던 영화 8년(352) 11월에 이르자 모용준은 계성에서 대연황제(大燕皇帝)에 즉위한 후 그 다음 해

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학자의 주장처럼 하북은 모용선비에게 식량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대다수 한인으로부터 황제의 등극과 중원왕조의 건립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희, 2007, 「『白虜』에서 ‘索虜’의 세계로-4세기 말 하북 패권의 향배」, 『동양사학연구』 99輯, 272쪽.

7 『十六國春秋』 卷26, 前燕錄4·慕容儁傳 上, 521下쪽. “初, 廆常言吾積德累仁, 子孫當有中原.”

8 趙國印, 1985, 「秦漢時期的薊城」, 『文博』 3期, 38右쪽.

2월 계성으로 천도를 단행한다. 이렇게 계성에서 연왕국의 국가형태가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강남(江南)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東晉)은 그 국력이 북중국에까지 미치지 못해 도탄에 빠진 한인들을 구제할 엄두조차 못 냈는데,⁹ 이때 모용준은 호·한인(胡·漢人)들 간의 민족모순을 격화시킨 염민을 사로잡아 참했으며, 이어서 대연황제로서 한인들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덕과 인으로 새로운 왕도의 길을 열어 호·한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호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짐하였다.

오호십육국사(五胡十六國史)의 연구 중 모용선비에 대한 것이 수적으로 가장 많고 관련된 문제도 비교적 광범위한데, 이를테면 정치·경제·문화·민족·지리·인물·고고학 그리고 대외관계 등이 있다.¹⁰ 특히 최근 몇 년에 걸쳐 중국 대륙 학계에서는 모용선비의 전체적인 역사발전, 그리고 모용선비가 세운 여러 왕조의 역사를 연구한 다수의 학술저서가 출판되었다.¹¹ 우리는 이들 저서를 통해 모용선비의 전반적인 역사발전 및 그들이 맡은 시대적인 역할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용준이 어떤 이유로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했는지, 용성에서 계성으로 천도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지, 이 밖에 모용준이 대연황제에 등극한 사실과 계성 천도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

9 『자치통감』 권90, 「진기」12, 元帝太興元年(318)조, 2855쪽, “裴嶷言於庾曰: 「晉室衰微, 介居江表, 威德不能及遠. …」”

10 高然, 2010, 「20世紀以來五燕史研究綜述」, 『中國史研究動態』 5期, 2~10쪽. 이 글은 20세기 이래 모용선비에 대한 연구 성과를 크게 整體·民族·政治· 주변政權과의 관계, 그리고 土族와 인물, 경제와 문화, 考古簡報와 유관문제, 마지막으로 역사지리와 사료고증 등 총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20세기 이래 모용선비의 역사적인 발전 상황과 시대적인 역할, 그리고 이후의 역사발전엔 끼친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1 李海葉, 2015, 『慕容鮮卑的漢化與五燕政權 - 十六國少數民族發展史的個案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高然,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趙紅梅, 2019, 『前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田立坤, 2019, 『後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尙永琪, 2019, 『北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 현재 다수의 학자는 모용준이 영화 6년 3월 계성을 점령한 후 곧바로 이곳으로 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연왕국은 이때부터 광수(光壽) 원년(357) 11월 업성(鄴城)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의 시간을 계성에 정도(定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했던 것일까?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왕국의 성격변화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문제를 통해 대연제국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모용준이 대연황제에 등극한 사실과 계성 천도 사이에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두 사건이 연왕국의 성격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글에서 중시하며 다룰 문제이다. 모용준이 대연황제에 등극한 사건을 이후 동진·전진(前秦)과 중화의 정통(正統)을 두고 한바탕 경쟁하기 위해 사전에 취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계성으로의 천도는 그가 하북을 발판으로 삼아 국가의 권력을 보다 더 중원 쪽으로 발전시켜 진정한 ‘중화의 주인’ 자격¹²으로 화하문화 철저히 계승한 후 천하통일에 매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에 업성을 도읍으로 한 중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모용준은 우선 하북의 거점지 계성에 도읍을 정한 후 기존에 유지해왔던 여러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를 새롭게 조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용선비는 비로소 농업지역, 즉 화하문화의 중심지인 중원지역에서 낯선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서 바로 적응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하북진출 전후에 모용선비가 맞닥뜨렸던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환경은 어떠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갔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연왕국의 국가형태가 어떻게 대연제국으로 바뀌어갔는지에 대한 전문(專論)에 가깝다. 그렇다면 하북진출 이후, 즉 계성을 점령한 이후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약 8년 동안 모용준은 어떻게 하북에서 그 통치기반을 공고히 했고, 이 지역은 어떻게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갔으며, 나아가 중

12 高然,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 3輯, 70左쪽.

원에 안주하기 전 기왕의 여러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는 어떻게 준비되고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II.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한 이유

모용준은 영화 4년(348) 11월 연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진목제(晉穆帝)로부터 사지절(使持節)·시중(侍中)·대도독(大都督)·도독하북제군사(都督河北諸軍事)·유기병평사주목(幽冀并平四州牧)·대장군(大將軍)·대선우(大單于)·연왕(燕王)으로 책봉되었는데,¹³ 이로써 그는 동진으로부터 북중국의 하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을 수 있었다. 동진이 비록 강남에 우거하고 있었다고 해도 당시 북중국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¹⁴ 하북의 한인들은 동진의 도독하북제군사와 유기병평사주목의 신분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모용준을 심한 거부감 없이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하북진출이 있기 전 요방의 정세, 특히 인구의 증가 상황은 어떠했을까? 영화 원년(345) 기실참군(記室參軍) 봉유(封裕)¹⁵가 모용황(慕容皝)에게 간

13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1쪽.

14 박한제, 1988, 앞의 책, 60~61쪽. 前趙·後趙 兩政權下에서의 포악한 정치상태는 야만, 잔폭, 嗜殺 등의 극단적인 용어로 사서에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후조의 石虎 재위기간 동안의 폭정은 중원의 호·한인들에게 극도의 고난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북중국의 호·한인들은 종족적인 정치원리와 체제로의 回歸의 희망이 ‘民心思晉’으로 결정되어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東晉이 북중국의 정세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15 기실참군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기록 혹은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관직으로, 燕王이 가장 믿을 만한 관료(貼身祕書)와도 같았다. 봉유가 오랫동안 기실참군을 맡았다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연왕국 내에서 그의 정치적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李文才, 2007, 「渤海封氏與慕容鮮卑關係試探」, 『河北學刊』 6期, 118左쪽.

언(諫言)한 내용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영가(永嘉)의 상란(喪亂) 이래로 백성들은 유망하고 중원은 도탄에 빠져 천리에 밥을 짓는 연기조차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기근과 한파가 몰아쳐 천지는 모두 무덤으로 변한 듯합니다. 우리의 선왕(先王)들은 신무(神武)와 성략(聖略)으로 요방을 확고히 지켰으며, 위엄으로 못된 무리들을 제거하고 위덕(威德)으로 주위의 백성들을 회유하니 구주(九州)의 한인들과 변방의 호인들이 마치 충심으로 부모에게로 되 돌아오는 듯합니다”라고 했던 것이다.¹⁶ 그의 간언을 통해 한·호인들(九州之人, 塞表殊類)이 요방으로 밀려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만 가에 이르는 ‘중국유민’이 귀향해 오자, 일찍이 모용외는 기주 사람들을 기양군에, 예주 사람들을 성주군에, 청주 사람들을 영구군에 그리고 병주 사람들을 당국군에 안치시켜 통치했었다.¹⁷ 그런 후 그의 아들 모용황의 재위 때에 이르러 요방의 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정도로 경작지의 부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었다.¹⁸ 이 외에 당시 적지 않은 수의 관료와 유식(遊食)하는 자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¹⁹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용황은 친히 여러 군현에 순행하여 농상(農桑)을 독려하기도 했으며,²⁰ 나라에 속한 원유(苑囿)를 열어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²¹ 이를 통해 경작지 부

16 『진서』 권109, 모용황재기, 2823쪽. “號記室參軍封裕諫曰：「… 自永嘉喪亂，百姓流亡，中原蕭條，千里無煙，飢寒流隕，相繼溝壑，先王以神武聖略，保全一方，威以殄茲，德以懷遠，故九州之人，塞表殊類，襁負萬里，若赤子之歸慈父，…」”

17 『자치통감』 권89, 「진기」11, 愍帝建興2年(314)조, 2814쪽. “是時中國流民歸虜者數萬家，虜以冀州人爲冀陽郡，豫州人爲成周郡，青州人爲營丘郡，并州人爲唐國郡。”

18 『진서』 권109, 모용황재기, 2823쪽. “… 流人之多舊土十倍有餘，人殷地狹，故無田者十有四焉。”

19 『진서』 권109, 모용황재기, 2824쪽. “… 政之巨患莫甚於斯。”

20 『진서』 권109, 모용황재기, 2822쪽. “號躬巡郡縣，勸課農桑 ….”

21 『진서』 권109, 모용황재기, 2825쪽. “苑囿悉可罷之，以給百姓無田業者。”

족현상과 나라의 재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겠지만, 이는 다분히 임시방편적인 조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만 했을 텐데, 그 해결책으로 나라의 경제중심을 요방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지역은 자연히 요방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하북일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하북에서 많은 한인(漢人)이 몰려와 정착지가 부족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²² 위진남북조시대 황하 유역과 몽골초원을 포괄하는 북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비교적 춥고 건조한 기후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²³ 후한(後漢) 때부터 건조하고 추워지기 시작한 기후²⁴는 4~5세기에 이르면 기온이 확연히 떨어져 평소 때보다 약 2.5~3℃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평균 1.5℃ 정도 낮은 것이다. 기후환경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유목민족은 그들의 생존 공간이었던 대초원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²⁵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향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장성(長城) 남쪽 한인들의 지역이었다. 하북 및 섬북(陝北)으로 남하한 그들은 보다 나은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와중에 일부는 한인호강들에 의해 전객(田客)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며 그 숫자가 많게는 수천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⁶ 한편, 당시 모용선비의 근거지 요방의 기후변

22 樓嘉軍, 1992, 「氣候演變與民族遷徙-東漢·魏晉時期北方少數民族內遷新探」, 『歷史教學問題』 4期, 12左~16右쪽; 張利, 1997, 「氣候變遷與我國古代北方民族的南下」, 『許昌師專學報』 4期, 82~84쪽; 張敏, 2003, 「自然環境變遷與十六國政權割據局面的出現」, 『史學月刊』 5期, 21右~25右쪽.

23 『太平御覽』 권12, 天部12, 58下쪽. “晉朝雜事曰, 太康七年, 河陰雨赤雪二頃.”

24 『태평어람』 권34, 時序部19, 161下쪽. “續漢書五行志曰, 獻帝初平四年六月, 寒風如冬時. 又曰, 和光六年冬大寒, 北海·東萊·琅邪井中冰厚尺餘大有年.”

25 張敏, 2003, 앞의 글, 23左~24右쪽; 신성곤, 2008, 「魏晉南北朝시대의 人口移動과 地域의 分布」, 『동양사학연구』 103輯, 54~57쪽.

26 『진서』 권93, 王恂傳, 2412쪽. “太原諸部亦以匈奴胡人爲田客, 多者數千.”

화 및 초원의 사막화와 관련하여 사서에는 “[建元 2년(344)] 二月, 慕容皝及鮮卑帥宇文歸戰于昌黎, 歸衆大敗, 奔于漠北”²⁷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한 학자는 요방의 일부, 즉 장려의 이북은 지금의 요하(遼河) 유역의 넓은 평원에 해당하는데, 그 서쪽은 연산산맥(燕山山脈)이며, 초원의 사막화가 이미 요동지역에까지 근접했다고 주장하였다.²⁸ 그리고 일찍이 모용외는 함화(咸和) 6년(331) 동진에 사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연왕에 책봉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요방의 남쪽, 지금의 ‘연지구양(燕之舊壤)’이 북·동·서·남으로 사막(沙漠)과 낙랑·대산 그리고 기주(冀州)에 맞닿아 있는데 모두 갈족(羯族) 후조(後趙)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⁹ 비록 요방의 기후환경을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지구양’, 즉 당시 유주(幽州) 지역이 북쪽으로 사막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초원의 사막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주 동북쪽의 요방에 거주하고 있던 모용선비는 다른 유목민족과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추운 기후환경에 맞닥뜨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일찍이 반란을 도모했던 모용인(慕容仁)을 토벌하기 위해 고후(高詡)가 모용황에게 간언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증명되는데, 즉 그의 반란이 있는 지 3년 이래로 겨울 내내 발해만의 해변은 푹푹 얼었던 것이다.³⁰ 따라서 이런 열악한 외부의 기후환경을 이겨낼 묘책을 강구해야 했던 모용선비로서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습한 남쪽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27 『진서』 권7, 康帝紀, 186쪽.

28 張敏, 2003, 앞의 글, 26右쪽.

29 『진서』 권108, 모용외재기, 2810쪽. “... 今燕之舊壤, 北周沙漠, 東盡樂浪, 西暨代山, 南極冀方, 而悉爲虜庭, 非復國家之域. ...” 현재 북경과 內蒙古自治區가 접하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보면 북경 북쪽으로 張家口를 넘어 직선 거리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渾善達克 사막이 보인다. 당시 幽州와 맞닿아 있던 사막이 이곳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원래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목민족들은 건조하고 추운 기후환경에 맞닥뜨려 있었을 것이다.

30 『자치통감』 권95, 「진기」17, 成帝咸康 2年(336)조, 3005쪽. “司馬高詡曰:「... 自仁反以來, 連年凍者三矣. 且仁專備陸道, 天其或者欲使吾乘海冰以襲之也.」皝從之.”

것이고, 그곳은 바로 한인들의 거점지 하북 및 중원으로,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만이 혹독한 외부여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경작지 부족과 나라 재정의 악화로 요약되는 경제문제, 열악한 기후환경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절박함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모용선비가 결국 요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이 밖에 어떤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았을까? 주지하듯 모용선비는 그들의 지도자 모용섭귀(慕容涉歸) 및 모용외의 통솔하에서 한문화를 숭모하여 점차 자신의 풍속을 버리고 화속(華俗)을 따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³¹ 특히 모용외는 일찍부터 유가경전을 공부한 적이 있고, 한인사족의 복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한문화의 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나아가 그의 부민(部民)에게 농상(農桑)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요방에서 초보적인 농경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유목경제에서 농업경제로 경제적 기초를 바꾸는 데 노력했으며, 진조(晉朝)의 법제(法制)를 도입³²하기 위한 정치개혁도 단행하였다.³³ 이것이 바로 이상의 객관적인 요소 외에 모용선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북으로 진출하게 만든 주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인사족의 대표라 할 수 있던 배역(裒嶷)은 중원의 장악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모용외가 완수하기를 바란다면서 “진조의 국력이 쇠퇴하여 지금 강남에 우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원의 난을 명공(明公)이 아니면 그 누가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³⁴라고 진언한 바 있다. 모용외가 결국 배역의 그런 바람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는 이런 사명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며 하루라도 빨리 중원을 차지(當有中原)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 학자의 주장처럼 모용외는 당시 자신을 이적(夷狄)으로 인정했으나, 결국 화하문화·한인왕조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드러내고 있었

31 『十六國春秋輯補』 권23, 前燕錄1, 175쪽. “…於是漸變胡風, 遵循華俗.”

32 『십육국춘추집보』 권23, 전연록1, 176쪽. “…法制同於上國.”

33 鄭小容, 2005, 「慕容廆漢化改革略述」, 『西南民族大學學報』 1期, 281右~286右쪽.

34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배역전, 559下쪽. “嶷言於廆曰, 晉室衰微, 介居江表, 中原之亂, 非明公不能拯也.”

던 것이다.³⁵ 모용황은 이런 유업을 직접 계승한 후 영화 4년 8월 세자 모용준에게 “지금 중원의 난이 평정되지 못했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막중하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등용해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모용각(慕容恪)은 지(智)와 용(勇)을 모두 갖춘 인재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양무(陽鶩, 字는 士秋)는 지행이 고결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 한결같으니, 그에게 나라의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너는 그를 중용하라”³⁶고 하였다. 이후의 사실이지만 모용준은 모용황의 분부에 따라 모용각을 중심으로 한 모용종실과 양무를 위주로 한 한인사족들을 대거 기용한 후 하북으로 진출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Ⅲ. 모용선비의 하북진출 과정과 ‘입도어계(入都於薊)’에 대한 분석

모용준이 하북진출을 결정했었을 당시 이 지역은 후조의 군주 석호(石虎) 사후(349년) 호·한인들 간의 극심한 민족적 모순과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석호는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통치자로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수십 만에 달하는 한인을 징발하여 업성·장안·낙양 등에 새로운 궁실을 짓는 등의 대형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무모하게 순행(巡幸)을 강행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하북에서 ‘실업(失業)’한 자들이 열 가구 중 일곱은 되었다고 한다.³⁷ 『진

35 鄧樂群, 2004, 「十六國胡族政權的正統意識與正統之爭」, 『南通師範學院學報』 4期, 86左쪽.

36 『십육국춘추』 권25, 전연록3·모용황전 하, 521上쪽. “引世子僞屬以後事曰, 今中原未平, 方經建世務, 委賢任哲, 此其時也. 恪智勇兼濟, 才堪任重, 汝其委之, 以成吾志. 又曰, 陽士秋志行高潔, 忠幹貞固, 可托大事, 汝善待之.”

37 『진서』 권106, 석계릉제기 상, 2772쪽. “… 百姓失業, 十室而七.”

서·석계룡재기(晉書·石季龍載記)에는 석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자식들 또한 탐욕이 넘치고 매우 사치스런 자들로 기록했는데, 즉 석수(石邃)는 “주색에 자주 빠지고 교만무도(荒酒淫色, 驕恣無道)”했으며, 석선(石宣)은 “황주내유(荒酒內游)”하였고, 석도(石韜)는 “침면호렵(沈湎好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중국의 한인들이 후조에 극도의 반항심을 가진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했는데, 염민(冉閔)은 석호 사후 이런 민족모순을 이용해 그들의 복수심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살호령(殺胡令)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³⁸ 이 살호령으로 인해 호·한인들 간의 민족적 갈등이 더욱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호인의 후조와 한인의 염위(冉魏)의 군사적 대결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³⁹ 이러한 상황은 하북 진출을 갈망하고 있던 당시 모용선비에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와도 같았다.⁴⁰ 이때 모용준은 하북의 대혼란에 대해 장차 이곳을 군사적으로 겸병(兼并)하겠노라 다짐한다.⁴¹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연왕국 내의 서로 다른 통치계층들이 하북의 혼란스런 정세, 즉 후조와 염위(특히 후조)에 대한 군사정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연왕국 내에서 하북진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종실 출신인 모용패(慕容羆, 이후 모용수(慕容垂)로 개명)와 한인사족인 손흥(孫興)은 후조 정벌을 하북 및 증원을 차지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고, 또 다른 한인사족 황홍(黃泓)은 천의(天意)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하북으로 진출해야만 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선비(鮮卑)귀족 출

38 『십육국춘추』 권18, 後趙錄8·石鑿傳, 468上쪽. “(冉閔)頒令內外趙人, 斬一胡首送鳳陽門者, 文官進位三級, 武官立拜牙門. 一日之中, 斬胡首數萬人. 閔親率趙人以誅胡羯, 無貴賤男女少長皆斬之. 胡人死者二十餘萬. 於時有高鼻多鬚者, 無不濫死尸諸城外, 悉爲野犬豺狼所食. 其屯戍四方者, 閔皆以書命趙人爲將帥者誅之.”

39 이춘호, 2010b, 「오호시기 한인왕조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중국고증세사연구』 23輯, 123~136쪽.

40 張僊生, 1985, 『魏晉南北朝政治史 2』,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301쪽.

41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1쪽. “... 僞將圖兼并之計.”

신인 모여근(慕輿根)은 ‘중국지민(中國之民)’을 구출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모용준의 신임이 두터웠던 한인사족 봉혁(封奕 혹은 封奔)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던 것인데, 우선 계성을 취한 후(先取薊城) 이어서 업성으로 나아가(次指鄴都) 도탄에 빠진 한인들을 구출함으로써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을 역설하고 있다.⁴² 그의 진언 속에서 중원의 장악이 이번 후조와 염위에 대한 군사정벌의 최종적인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북진출에 대해 모든 계층이 찬성하고 있고, 모용준으로서는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진언에 회답하고 있다. 그는 즉시 모용각·모용평(慕容評)과 양무를 각각 보국(輔國)·보필(輔弼), 보의장군(輔義將軍)에 임명하고, 동시에 모용패로 하여금 전봉도독(前鋒都督)·건봉장군(建鋒將軍)을 맡게 하여 20여 만의 정병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하북으로의 진출에 대비시켰던 것이다. 비록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간에 모용준을 위시한 연왕국의 모든 통치계층, 즉 모용종실·선비귀족 그리고 한인사족들의 하북진출에 대한 다짐만은 흔들림 없이 매우 확고했었다고 할 수 있다(講武戒嚴, 爲進取之計).

영화 6년(350) 2월은 모용선비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북진출의 첫발을 내딛은 달이다. 당시 그들의 주요 공격목표지는 역시 요방에서 하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요충지 계성이었다. 한 학자는 계성 주위의 넓은 평원은 새외(塞外)의 유목민족들이 정거 농경생활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데 비교적 적합한 장소였다고 주장했는데,⁴³ 모용선비 역시 곧바로 중원으로 진격하

42 본래 ‘中州士望’으로 불리던 渤海封氏 출신인 봉혁은 그의 조부 封釋이 慕容廆에게로 귀부한 이래로 모용선비 지도자들에게 줄곧 중용되어 그들의 세력발전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그는 이후 하북진출 과정에서 한인호강들의 회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왕국이 하북에서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힘을 쏟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43 趙國印, 1986, 「魏晉和北朝時期的幽州薊城」, 『文博』 4期, 26右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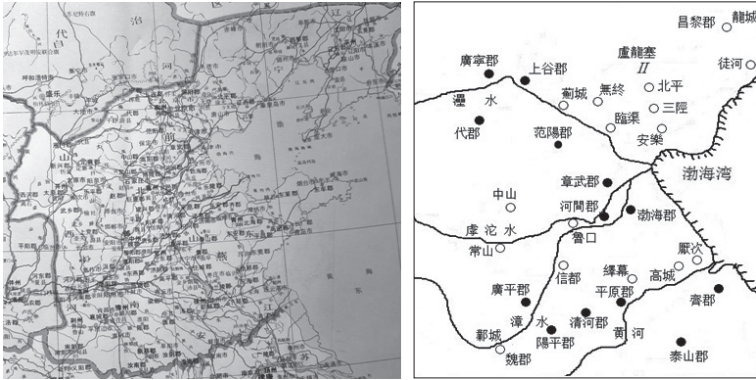


그림 1 대연제국 강역도와 하북 주요 지역 분포도⁴⁴

지 않고 계성에 도움을 정한 후 일정 기간 기왕의 정책들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 제도를 새롭게 조정했다는 점⁴⁵에서 이 주장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

- 44 대연제국 강역도는 譚其驥 主編, 1996,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0쪽을 직접 촬영한 것이고, 하북 주요 지역 분포도는 필자가 『中國歷史地圖集』에 근거하여 모용선비의 하북진출 과정에서 사서에 출현했던 주요 지역들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지도에서 보이는 ○는 도시 명을, ●는 郡名을 가리킨다.
- 45 모용선비는 요방에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敎以農桑, 法制同於上國’(『진서』 권 108, 모용외제기, 2804쪽)하는 등 시종 ‘親漢人’·‘親漢化’를 견지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북의 적지 않은 한인 유민이 요방으로 이주하게 된다. 모용외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僑郡縣을 두었으나, 유민집단의 지도자를 本郡縣의 長官으로 임명하는 대신 장군이나 중앙의 관료, 혹은 타군현의 장관으로 전임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박한제, 1988, 앞의 책, 38쪽). 그럼 요방을 떠나 남하한 모용준은 하북에서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갔을까? 이에 대해서는 연왕국의 통치기반이 하북에서 어떻게 공고히 되었는지를 연구할 때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모용준은 신점령지 하북의 현실에 맞추어 귀향해 온 한인호강들 중 과반수 이상을 각지의 지방관에 임명하여 본군현의 한인들을 통치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한 학자의 주장처럼 本籍人을 본적지 혹은 그 부근의 지방관에 임명하여 통치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窪添慶文, 2003, 『魏晉南北朝にお

다. 모용선비가 하북진출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상황을 『십육국춘추』와 『자치통감』의 기록에 근거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왕 모용준은 1년 전부터 훈련시켜온 20여 만의 정병을 이끌고 이번 남정(南征)에 참여했는데, 즉 친히 병사를 이끌고 중간 길(中道)을 통해 노용새(盧龍塞)를 나와 진격했으며, 동시에 모용패에게는 2만의 군사를 이끌고 도하(徒河)에서 출발하여 동쪽 길(東道)을 따라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모여근⁴⁶은 서쪽 길(西道)을 통해 열용새(熱龍塞)를 지나 남정에 가담하였다. 모용준은 출병에 앞서 세자 모용엽(慕容曄)이 용성을 지키게 하고, 내사(內史) 유빈(劉斌)을 대사농(大司農)에 임명하여 전서령(典書令) 황보진(皇甫眞)과 함께 후방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한 학자는 농업생산력을 용성에 남겨둔 조치로 이해하고, 모용준이 자신들의 세력 근거지인 요방을 중시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이번 남정에서 보듯이 모용각과 선우량(鮮于亮)은 전봉장군(前鋒將軍)으로서 후조의 첫 번째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동시에 경차장군(輕車將軍) 모여니(慕輿泥)는 ‘사산개도(嵯山開道)’

ける地方官の本籍地任用について、『魏晉南北朝官僚制研究』, 東京: 汲古書院, 288~289쪽. 이처럼 요방 때와는 달리 유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연황제를 칭한 모용준은 그에 상응하는 文武百官을 두었으며, 대대적으로 모용종실에 대한 冊封을 실시하는 등 국가제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따라서 계성을 점령한 후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약 8년은 모용선비가 중원에 안주하기 전 예전의 정책들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를 새롭게 조정하고 준비한 시간이었으며, 하북은 점차 요방을 대체하는 대연제국의 새로운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46 『십육국춘추』의 기록에 의하면 모여근은 서쪽 길을 이용해 열용새를 나와 후조의 정벌에 나섰다고 하는데, 司馬光은 『자치통감』에서 그를 慕容于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모여우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인물로, 그와 관련한 어떠한 이력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모여근은 1년 전에 折衝將軍을 역임하고, 모용준에게 후조에 대한 군사정벌을 간언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후조에 대한 군사정벌에 나섰던 인물은 모여우가 아닌 모여근이 확실하며, 『십육국춘추』의 기록을 더 신뢰할 만하다.

47 雷家驥, 1995, 「慕容燕的漢化統治與適應」, 『東吳歷史學報』 1期, 46쪽.

와 같이 남정에 나선 병사들에게 그들이 순조롭게 진군할 수 있도록 하는 배후 지원의 임무를 맡았다. 모용패는 동쪽 길, 즉 요서회랑(遼西回廊)을 지나 삼형(三陜)에 순조롭게 도달했는데, 이 소식이 후조의 정동장군(征東將軍) 등항(鄧恒 혹은 鄧恆)에게 전해졌다. 그는 매우 ‘황포(惶怖)’한 나머지 군량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지키던 안락(安樂 혹은 樂安)을 버리고 계성으로 물러났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아마도 유주자사(幽州刺史) 왕오(王午)와 함께 병력을 모아 계성을 방어함으로써 모용선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군사정벌에는 남부도위(南部都尉) 손영(孫泳) 역시 모용패를 따라 참전했는데, 그는 급히 안락에 들어서서 남아 있던 불을 끄고 일부의 군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비교적 순조롭게 안락과 북평(北平)의 군량을 확보한 모용패는 임거(臨渠)에서 모용준과 회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3월 모용준과 모용패 등이 무종(無終)에 도착하면서 계성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가중되었다. 이런 위협에 직면한 왕오는 왕타(王他 혹은 王佗)에게 수천의 병사를 주며 계성을 지키도록 주문하고 자신은 등항과 함께 노구(魯口, 지금 河北省 饒陽縣)로 물러났다. 당시 왕오와 등항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쩌서 왕타 홀로 수천의 병사만 이끌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쉽게 계성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모용선비는 파죽지세로 계성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용준은 계성을 손쉽게 함락한 후 왕타를 잡아 참하고, 이어서 그의 병사 1,000여 명을 갱살(坑殺)하려고 하였다. 이때 모용패는 “후조의 통치가 포악하여 연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장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고 중주(中州)를 위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계성을 함락하자마자(今始得薊) 그들의 병사들을 갱살하려 하니 어찌 연왕의 병사들이 행한 선성(先聲)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간언했던 것이다. 졸견에 의하면 모용선비는 이번 남정에서 후조의 병사들을 갱살하여(坑其士卒) 그 난폭함(趙爲暴虐)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며, 계성을 함락한 후 강역을 넓히는 데 만족하려 했던 것 또한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선 계성을

취한(先取薊城) 후 이를 발판으로 국력을 보다 더 하북 그리고 중원 쪽으로 뻗어 장래에 업성에 수도를 정한(次指鄴都) 후 나아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拯民於塗炭) 중원을 안정시키(撫有中州)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중화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모용준이 계성으로 바로 천도했다는 사서의 기록 ‘입도어계(入都於薊)’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하튼 모용선비가 계성을 함락한 후 귀향해 오는 한인의 수는 늘어만 갔는데, 사서에는 당시의 상황을 “중주의 한인들 중 귀향해 오는 자들이 계속 늘어만 갔다(中州士女降者相繼)”고 기록하고 있다.

최홍(崔鴻)이 ‘입도어계’⁴⁸로 기록한 것을 방현령(房玄齡)은 계성으로의 천도로 이해하여 ‘인이도지(因而都之)’⁴⁹로 달리 기록했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필자는 ‘입도어계’를 모용준이 천도를 염두에 두고 계성으로 들어선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자가 ‘입도어계’, 특히 ‘인이도지’에 근거하여 영화 6년(350) 3월부터 연왕국의 수도는 용성이 아닌 계성이었으며, 그 기간은 광수 원년(357) 11월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⁰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한 다음 해인 영화 9년(353) 2월 전까지 연왕국의 수도는 계성이 아니며, ‘입도어계’는 마땅히 ‘욕도어계(欲都於薊)’처럼 모용준이 천도할 목적으로 계성에 들어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도는 그가 ‘입도어계’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⁵¹ 이를테면 행정기

48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3上쪽.

49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2쪽.

50 于德源, 1983, 「北方各少數民族始據薊城的年代」, 『史苑』 1期, 116쪽; 張賓生, 1985, 앞의 책, 302쪽; 趙國印, 1986, 앞의 글, 26左쪽; 劉國石, 1997, 「鮮卑慕容氏與趙魏士族」,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期, 69左쪽; 李文才, 2007, 앞의 글, 118右쪽; 신성곤, 2008, 앞의 글, 59쪽; 三崎良章 著, 劉可維 譯, 2019, 『五胡十六國-中國史上的民族大遷徙』, 北京: 商務印書館, 88, 232쪽; 최진열, 2020, 「前燕의 關東 정복과 지방 통치」, 『동양사학연구』 151輯, 81, 86쪽.

51 박한제, 2000, 「魏晉南北朝時代 각 왕조의 首都 선정과 그 의미」, 『歷史學報』

구 이전이나, 도성을 새롭게 구획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듯 모용준은 같은 해 4월 갑자(甲子: 24일) 중부사리(中部俟釐) 모여구(慕輿句)에게 특별히 ‘독계중류사(督薊中留事)’⁵²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계성이 정식으로 수도가 되기 전 그 내부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일 것인데, 즉 궁실 혹은 관부를 수리하거나 새롭게 세우는 일일 것이다. 모여구가 일찍이 모용외의 심복으로 관부 내의 일을 관장하고, 특히 재정부문의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⁵³에서 이런 심중에 더 확신이 간다. 그렇다면 방현령은 어쩌서 ‘입도어계’를 ‘인이도지’로 바꾸어 기록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혹시 계성이 이후 연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지나치게 한 나머지 일으킨 오해일까, 아니면 사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자구(字句)를 바꿔 기록하면서 일으킨 오해일까? 여하튼 현재로서는 이런 추측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주·객관적인 여건에 절대 부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용준이 계성을 점령한 즉시 이곳에 도읍을 정하기는 무척 어려웠던 것만은 확실하다. 당시의 사정은 모용패가 ‘금시득계(今始得薊)’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계성을 막 점령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영화 6년(350) 3월 모용준이 ‘입도어계’한 사실을 한사코 ‘인이도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168輯, 118쪽.

52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3下쪽.

53 『자치통감』 권84, 「진기」6, 惠帝太安元年(302)조, 2676쪽. “虜以其臣慕輿句勤恪廉靖, 使掌府庫, 句心計默識, 不按簿書, 始終無漏.”

IV. 모용준이 수차례 용성으로 귀환한 이유와 봉혁왈‘금이도계’(封奕曰‘今已都薊’)에 대한 분석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성으로의 천도가 영화 6년(350) 3월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북이 요방을 대신한 연왕국의 새로운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모용준은 거의 매년 용성으로 귀환하여 그들의 후방 근거지였던 요방(용성)을 특별히 중시한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하북에서는 후조의 잔여세력과 염위의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 용성은 모용선비에게 정신적 혹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⁵⁴ 연왕국의 수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 계성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수도로서 기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모용준은 영화 9년(353) 2월 계성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두 번에 걸쳐 용성으로 귀환하였는데, 350년 10월에서 351년 2월까지, 그리고 351년 12월에서 352년 3월까지 도합 7개월을 머물렀다. 계성(지금의 북경)에서 용성(지금의 조양)까지는 약 500여 km에 이르고, 그가 어느 길을 이용해 귀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빈번하게 용성으로 귀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무슨 일을 수행했던 것일까? 모용준은 첫 번째 귀환한 후 친히 “알능묘(謁陵廟)”⁵⁵하여 계성의 함락과 하북의 요충지 장무(章武) 및 하간(河間) 등의 지역을 차지한 사실들, 즉 성공적인 하북진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비록 사서에는 두 번째 귀환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용성의 근교에서 감당수(甘棠樹)를 발견한 모용준이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즉 “이는 장차 혁혁한 전공이 중토(中土, 중원)

54 『십육국춘추집보』 권24, 전연록2, 190쪽, “旣以柳城之北, 龍山之南, 所謂福德之地也, 使陽裕·唐柱等, 可營制規模, 築龍城.” 『십육국춘추집보』 권25, 전연록3, 196쪽, “夏四月, 黑龍一, 白龍一, 見於龍山. 旣親率羣僚觀之, 去龍二百餘步, 祭之以太牢. 二龍交首嬉翔, 解角而去. 旣大悅, 還宮殿, 赦其境內, 號新宮曰和龍, 立龍翔佛寺於山上.”

55 『자치통감』 권98, 「진기」20, 목제영화6년(350)조, 3109쪽.

에서 있을 것으로 나라의 흥성을 가리킨다. 분명 이런 징조임에 틀림없다”라고 하여 이런 상서로운 현상을 용성과 연결시켜 자신의 하북진출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모용선비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여러 대신이 ‘감당송(甘棠頌)’을 지어 바쳤던 것이다.⁵⁶ 영화 8년 3월 계성으로 돌아온 모용준은 요방의 백성들을 계성으로 이주시키도록 조치했는데,⁵⁷ 그럼 혹시 이 때문에 그는 용성으로 귀환한 것이 아닐까? 사실 하북진출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넓은 지역을 차지한 후 연왕국의 백성들에게 땅을 부족하지 않게 나눠주고 경작시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을 계성 주위의 넓은 평원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군에 속한 가족(家屬)들이었다는 점에서 한 학자는 그들은 선비군민(鮮卑軍民)과 종실귀족(宗室貴族)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⁵⁸ 선비족에 국한된 호인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용선비는 요방에서 한인 유민을 중심으로 한 병호(兵戶)를 조직한 적이 있고, 이들을 군영(軍營)에 귀속시켜 이동 혹은 거주시켰기 때문이다.⁵⁹ 그렇다면 ‘군중문무병민(軍中文武兵民)’이란 후조의 정벌에 나선 20여 만의 병사를 가리키고, 이들 모두가 선비 등의 호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한인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인 중의 문무병민과 가족은 하북을 떠나 요방으로 이주한,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자들로 보인다. 비록 요방에 근거를 두고 살아갔지만 이들을 다시 하북으로

56 『십육국춘추집보』 권26, 전연록4, 203쪽, “是歲, 僞觀兵近郊, 見甘棠於道周 … 言將有赫赫之慶於中土, 吾謂國家之盛, 此其徵也. … 於是內外臣寮, 並上甘棠頌.”

57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8년(352)조, 3123쪽, “燕王僞還薊, 稍徙軍中文武兵民家屬於薊. 胡注: 自北徙其家屬而南, 又恐其懷居而無樂遷之心, 故稍徙之.”

58 于德源, 1987, 「魏晉北朝時期幽州人口的移動」, 『北京社會科學』 4期, 32左쪽.

59 高敏, 1998, 「試論十六國時期的兵戶制及其特徵」,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199쪽.

이주시키고자 하니 불만을 품을 수 있어 여러 번에 걸쳐 이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한편, 한 학자는 모용준은 용성 일대의 백성을 이끌고 하북으로 진출한 것이므로 이후 이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였고, 토지 또한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⁶⁰

한편, 염민을 생포한 후 모용외·모용황의 능묘에 보고하고, 이어서 알형산(遶陁山)에서 그를 참하는 등 염위의 멸망을 대내외에 공표한 곳은 다름 아닌 용성이었다. 때는 영화 8년(352) 5월로, 이런 사실에서 모용준의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즉, 용성은 모용선비가 흥기했을 때의 도성으로 그 상징성은 여전히 대단했기 때문에, 염위의 멸망을 용성에서 공표함으로써 모용종실과 그 부중의 단결을 꾀하고 나아가 염민이 격화시킨 호·한인들 간의 민족적 갈등을 모용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모순을 격화시킨 자가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칭할 수 있었던 것⁶¹이 혹시 ‘자고무호인위천자자(自古無胡人爲天子者)’의 영향⁶² 때문인지는 단언할 수 없어도, 호인 출신이었던 모용준은 그런 염민을 우선 단죄하고 이어서 덕과 인으로 새로운 왕도의 길을 열어 호·한인들 간의 갈등의 골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상호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하는 책무를 짊어졌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북진출의 진정한 목적, 즉 호·한인을 모두 아우르는 대연황제로서 중원을 차지한 후 천하의 통일에 기여이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³

60 王禹浪, 2007, 「三燕故都古朝陽的歷史·文化與民族融合」, 『黑龍江民族叢刊』3期, 80右쪽.

61 『진서』 권107, 석계룡제기 하·염민전, 2796~2797쪽. “僞立閔而問之曰:「汝奴僕下才, 何自妄稱天子?」閔曰:「天下大亂, 爾曹夷狄, 人面獸心, 尙欲篡逆, 我一時英雄, 何爲不可作帝王邪!」.”

62 당시 ‘自古無胡人爲天子者’의 유행과 영향에 대해서는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35~45쪽 참고.

63 모용준은 이후 하북을 모두 차지하고 이어서 鄴城으로 천도하여 중원의 시대를 열었다. 당시 그는 전국에 대규모 동원령을 내려 천하통일에 대한 강한 야심을 드러냈다.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0쪽. “僞于是復圖入寇, 兼欲經略關西, 乃令州郡校閱見丁, 精覆隱漏, 率戶留一丁, 餘悉發之, 欲使步卒滿一百五十萬, 期

사실 모용준은 계성으로 천도한 이후인 영화 10년(354) 10월에도 용성으로 귀환한 적이 있다. 이때 그가 머문 시간은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년에 가까울 정도로 길었는데, 한 학자는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 때문에 특별히 귀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⁴ 이런 주장이 설사 맞다고 해도 앞의 두 번에 걸친 귀환은 전적으로 당시 용성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용성은 모용선비에게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⁶⁵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용준은 어쩔 수 없이 요방을 떠나긴 했어도 수시로 이곳으로 귀환하여 그 중요성을 모용종실 구성원 및 부중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가 첫 번째 용성으로 귀환했을 때 후조의 사신 장거(張舉)와 염위의 사신 상위(常煒)를 각각 접견하기도 했는데, 특히 장거의 출병 요청에 응한 그는 열관(悅縉)에게 명령하여 3만의 병사를 이끌고 후조의 양국(襄國)으로 보내 그들의 위급함을 구원하도록 하였다.⁶⁶ 여하튼 영화 9년 2월 전에 이런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상징성이 강한 현상이 모두 용성에서 일어나고, 사가들이 특별히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연왕국에서 용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그들의 수도는 계성이 아닌 용성이었던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즉, 영화 7년 4월 봉혁이 하북의 대표적인 한인호강이었던 방약(逢約)을 회유할 때 그에게 지금 연왕국은 이미 계성에 도읍을 정하고 남쪽으로 조·위 지역과 접하게 되었다(今已都薊, 南臨趙魏)고 언급한 것이다. 봉혁은 어째서 이런 말을 했으며,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있는 것인가? 모용준은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던 하북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 지역의 ‘반연(反燕)’ 세력을 향해 군사적인 정벌 혹

明年大集，將進臨洛陽，爲三方節度。”

64 小林聰, 1988, 「慕容政權の支配構造の特質-政治過程の検討と支配層の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6號, 54쪽.

65 李海葉, 2015, 앞의 책, 148~151쪽. 이런 현상은 모용씨 제왕조(전연·후연 등)의帝王들이 사후 용성으로 歸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6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7년(351)조, 3112쪽.

은 회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연’ 세력이란 주로 한인호강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위와 세력 등에 근거해 후조에 충성하거나 혹은 업위에 출사(出仕)하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하북의 한 지역의 민심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북으로 막 진출한 모용선비에게 회유의 조치가 가져올 효과는 무력에 의한 군사정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었는데, 적지 않은 한인호강과 백성이 연왕국에 귀향하여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한 성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회유의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용준은 연왕국의 통치이념⁶⁷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던 하북 출신의 한인사족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봉혁·고개(高開)⁶⁸는 모두 발해군(渤海郡) 출신으로 하북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⁶⁹ 동시에 일찍이 연왕국에서 관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모용귀족과의 교류가 빈번했으므로 그들의 통치이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후조 말 발해군에서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擁衆數千) 세력을 키웠던 방약

67 여기에서 연왕국의 통치이념이라 함은 모용선비의 지도자 모용섭귀, 특히 모용외가 ‘法制同於上國’하기 위해 한문화를 崇慕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인사족 및 백성들을 우대하고,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국가적 성격은 자연스럽게 魏晉 등 한인왕조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시종일관 ‘親漢人’·‘親漢化’를 견지하며 유관 정책의 실시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제도의 설치를 좌우했던 基本原則이라 할 수 있다.

68 하북진출이 있기 전 고개는 昌黎太守를 역임했었다. 창려군은 당시 연왕국의 수도 용성을 포괄하고 있던 郡으로, 이런 중요한 지역의 지방장관 고개를 모용준은 후조의 군사정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하북(渤海郡) 출신인 그를 이 지역의 한인호강을 회유하는 데 활용하려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개 지방장관을 굳이 군사정벌에 참여시킬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渤海高氏は 자신의 고향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갖고 있던 名門으로, 즉 고개의 부친 高瞻은 일찍이 永嘉의 亂 때 도성 낙양을 떠나 고향 발해로 귀환하여 지역 父老들과 협의한 후 지역민들의 안위를 위해 ‘數千家’를 이끌고 당시 薊城에 웅거하고 있던 幽州刺史 王浚에게 귀부하였다.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高瞻傳, 560下쪽 참고.

69 李文才, 2007, 앞의 글, 119左쪽.

은 염민에게로 귀부한 후 발해태수에 임명되었다. 봉혁은 그가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인 것을 심분 활용하여 무력이 아닌 말로써 그를 회유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사람을 보낸다. 방약은 일찍부터 봉혁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으므로(素信重突) 결국 둘이 만나 대화하기로 결정하였다(單馬交語). 봉혁은 방약에게 “그와 함께 무궁한 복록(福祿)을 누리길 원한다(享祚無窮). 지금 하북은 화난으로 혼란스러운데(禍亂方始) 천명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天命不可力爭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모용준은 연왕국의 국왕으로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여러 해가 되었다(突世載德). 동시에 의(義)에 근거해 ‘반연’ 세력들을 정벌하고 있다. 지금 계성에 도움을 정하고(今已都薊) 남쪽으로 조·위 지역과 접하게 되자, 적지 않은 호·한인이 성심으로 연왕국으로 귀향해 오고 있다(襁負歸之)”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금이도계’를 사실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필자는 일찍이 계성을 막 점령했을 때 모용패가 언급했던 ‘금시득계’와 같이 봉혁이 계성의 함락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나아가 이후 모든 하북 즉 조·위 지역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계성에 전초 기지를 둔 사실을 수도를 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봉혁은 방약에게 연왕국에 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럴 바에야 하루 빨리 귀향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방약을 반드시 회유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당시 계성에 도움을 정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그런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이도계’는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당시 연왕국과 후조의 잔여세력 및 염위 간의 군사적 대결이 계속된 배경을 이해하면 봉혁이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이유는 나름 설 명된다고 하겠다. 봉혁은 염위의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모용준은 새롭게 왕업을 열어 허심으로 보다 많은 인재를 얻으려고 하므로(肇開王業, 虛心賢準), 방약 역시 마음을 바꿔 일찍이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이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했던 것처럼 연왕국에 귀향하여 모용준을 보필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복록이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翻然改圖, 則功參絳灌, 慶流苗裔). 방약은 봉혁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悵然不言). 여기에

서 봉혁의 의도는 매우 명확한데, 모용준이 염위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하북 및 중원을 차지할 것이므로, 염민에게 충성하고 있던 방약의 심리적인 방어선을 무너뜨려 그를 연왕국으로 귀향하도록 회유했지만 했던 것이다.⁷⁰ 방약은 결국 귀향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장군참군사(大將軍參軍事)에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회유되어 붙잡혔다고 하여(誘於人而遇獲) 방조(逢釣)로 개명했다고 한다.⁷¹

V.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으로의 천도

모용선비는 영화 8년(352) 중순에 이르러 하북의 ‘반연’ 세력에 대한 계속된 군사적인 정벌과 회유의 조치를 진행하여 적지 않은 전과를 올렸다. 이를테면 중산(中山)·상산(常山) 등 하북의 요충지를 점령했으며,⁷² 가견(賈堅)·봉방(封放)·유준(劉準) 등의 한인호강⁷³ 및 정령(丁零) 적서(翟鼠)·선비(鮮卑) 단근(段勤) 등 호인추수(胡人酋帥)⁷⁴의 귀항을 받아들였고, 염민을 생포하여 참하는 등의 혁혁한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연왕국의 제신들은 모용준에게 황제를 칭할 것을 상서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덕이 부족한 자신이 어찌 그럴 수 있냐(實匪寡德所宜聞)며 완곡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얼마 후 하북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염위의 수도 업성을 함락하고 염민의 처 동씨(董氏)와 여러 요속(僚屬)이 항복해오자 일전의 태도를 바꿔 이는 분명 천명이 아니면 이를 수 없는 일이

70 彭豐文, 2009, 『兩晉時期國家認同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42쪽.

71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5上~525下쪽.

72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7년(351)조, 3118쪽.

73 『자치통감』 권98, 「진기」20, 목제영화6년(350)조, 3109쪽;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7년(351)조, 3118쪽.

74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7년(351)조, 3122쪽;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8년(352)조, 3126쪽.

므로 자신이 역운(曆運)을 갖고 있다고 공언한 후,⁷⁵ 대연황제에 등극하고 이어 서 용성에서 계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십육국춘추·전연록』·『진서·모용준제기』·『자치통감』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 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8년(352) 10월 모용각을 위시한 505명의 제신은 황제새(皇帝璽)를 올리며 모용준이 황제에 등극하기를 청하였다. 이 황제새는 염민의 처 동씨가 가짜로 바쳤다고 했던 그것으로, 그녀는 그래서 봉새군(奉璽君)에 책봉되기도 하였다.⁷⁶ 군권신수(君權神授), 즉 군권이 천신으로부터 부여된다는 봉건전제의 정치이론 중 ‘천지신새(天之神璽)’⁷⁷로 불리는 전국새(傳國璽)는 바로 ‘천명’을 뜻하는 물체라고 할 수 있다. 한문화에 정통했던 모용준⁷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짜로라도 전국새를 소지하고 있다고 공언했는데, 그래서 ‘임헌조만국지정(臨軒朝萬國之征)’에 부합하는 자신이 대연황제에 등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11월 정묘(丁卯: 12일) 모용준은 우선 태위(太尉) 및 상서령(尚書令) 등 대연제국의 백관을 두고 동시에 관료들의 직관을 새롭게 조정하였다. 즉, 국상(國相) 봉혁을 태위에, 모용각을 시중(侍中)에, 좌장사(左長史) 양무를 상서령에, 우사마(右司馬) 황보진을 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에, 전서령(典書令) 장희(張楡 혹은 張希)를 상서우복야에, 송활(宋活)을 중서감(中書監)에, 마지막으로 한항(韓恒)을 중서령(中書令)에 임명했으며, 이 외의 문무백관들을 서로 차이를 두어 봉배(封拜)하였다. 삼공 및 국가의 중추관에 다수의 한인사족을 포진시킨 것은 바로 모용씨와 그들 사이에 장시간에 걸친 협력관

75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4쪽. “僞答曰：「吾本幽漠射獵之鄉，被髮左衽之俗，曆數之籙寧有分邪！卿等苟相褒舉，以覲非望，實匪寡德所宜聞也。」…先是，蔣幹以傳國璽送于建鄴，僞欲神其事業，言曆運在己 …”

76 『자치통감』 권99, 「진기」21, 목제영화8년(352)조, 3128쪽. “燕王僞詐云董氏得傳國璽獻之，賜號奉璽君， …”

77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2쪽.

78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2쪽. “僞雅好文籍，自初卽位至末年，講論不倦，覽政之暇，唯與侍臣錯綜義理，凡所著述四十餘篇。”

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사실 이런 현상은 여러 호인왕조 중 특히 연왕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⁹ 같은 달 무신(戊辰: 13일) 모용준은 계성의 정양전(正陽殿)에서 대연황제에 등극한다. 그리고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원새(元璽)로 건원(建元)한 후 국호를 대연(大燕)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용준은 동진 황제에 의해 책봉된 연왕은 아니며, 더더욱 일찍이 요방에서 호·한인들 위에 군림했던 한 지역의 패자 역시 아니므로, 지금 그는 상천지자(上天之子: 천자)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천하에 군림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경오(庚午: 15일) 모용준은 ‘고인지령전(古人之令典)’에 근거하여 조부 무선왕 모용외를 고조(高祖) 무선황제(武宣皇帝)로, 문명왕 모용황을 태조(太祖) 문명황제(文明皇帝)로 추존하였다. 당시 동진의 사신이 계성에 도착해 있었는데, 모용준은 그를 향해 “너는 되돌아가 너의 천자에게 고하라. 나는 북중국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인들에 의해 새로 추대된 황제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큰 혼란에 휩싸인 북중국에서 황제로 칭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여긴 모용준으로서는 본인이 한인사족·호강 및 백성들에 의해 대연황제에 추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진의 황제를 대신한 새로운 중화의 주인으로서 천하에 군림할 것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연왕국은 지금까지 장기간 동진과 맺어왔던 군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완전한 국가로 탈바꿈하였다.⁸⁰ 특히 한 학자는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한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선비귀족을 핵심으로 한 세력과 한인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제군주 정권의 탄생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¹ 당시 모용준의 생각은 매우 확고하였다. 이제는 요방으로 되돌아가 초원국가의 군주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하북의 한인들을 포함한 호·한인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남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만약 한인사족(특히 귀향해 온 하북의 한인호강) 중 일부가 자신의 이

79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 商務印書館, 355쪽.

80 彭豐文, 2009, 앞의 책, 222쪽.

81 陳琳國, 2010, 앞의 책, 345쪽.

런 생각에 의문을 품고 모용씨를 예전처럼 이적으로 간주하며 배척한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한인에 의해 추대된(爲中國所推) 진조(晉朝)의 정통을 이은 대연황제임을 강조하면서 대연제국에서 출사하고 있던 한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해야만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대연제국은 화하문화의 기원이었던 하(夏)·주조(周朝)의 시력(時曆)·면복(冕服)과 오덕상생론(五德相生論)에 입각하여 진조의 금행(金行)을 계승해야 한다는 제신들의 진언을 채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연제국은 천명을 받아 위로는 광기흑정지군(光紀黑精之君)의 정통을 잇고 운명을 자기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조의 금행을 대신한 후 하력(夏曆)을 시행하고 주면(周冕)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치(旗幟)는 흑색(黑色)으로, 생모(牲牡)는 현색(玄色)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상언하였다. 모용준은 이에 완전히 찬성하였다.⁸² 이상의 상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연제국의 제신들은 모용준이 이미 천명을 받아 하·주·진조의 중화정통을 계승할 황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은 대연제국은 정치적으로 진조의 금덕(金德)을 계승하여 수덕(水德)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는 하조의 시력(時曆)과 주조의 면복(冕服)을 시행하는 중화의 정통왕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용준이 이런 주장을 그대로 채납했다는 것은 당시 대연제국에서 출사하고 있던 한인사족과 호강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동진에 마음을 두지 말고 대연제국을 자신들의 고국처럼 여기며 충성하도록 희망했던 것이다. 이는 바로 대연제국은 흉노(匈奴)의 한조(漢趙)와 갈족의 후조, 그리고 강남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의 정통을 이은 왕조가 아니라, 일찍이 천하를 통일하고 호·한인들을 호령했던 서진(西晉)의 정통을 잇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스스로 그 국가의 성격을 하·주조 및 위·진조와 같은 중화의 정통왕조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연왕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한 후 원새로 건원하고

82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4쪽. “羣下言：「大燕受命，上承光紀黑精之君，運曆傳屬，代金行之后，宜行夏之時，服周之冕，旗幟尚黑，牲牡尚玄。」僞從之。”

천지(天地)에 교사(郊祀)하고, 나아가 그것에 걸맞은 문무백관을 두면서 국가형태는 ‘왕국’에서 ‘제국’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특히 대연제국이 정치·문화적으로 중화의 정통왕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요방의 용성이 아닌 하북의 전초기지 계성에 두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계성으로의 천도는 비로소 단행될 수 있었고 이후 국가발전의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⁸³ 천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용성에 유대(留臺)를 두고 현도태수(玄菟太守) 을일(乙逸)을 상서(尙書)에 임명하여 유대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조치는 천도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실 호삼성(胡三省)은 연왕국의 수도가 용성에서 계성으로 천도될 것이므로 ‘시천우계(時遷于薊)’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용성에 유대를 설치하면서 그곳을 용도(龍都)로 부르게 되었다(建留臺於龍城, 謂之龍都)고 주해하였다. 용도라는 명칭이 출현한 것은 계성이 신수도로서 새로운 역할을 한다는 의미 외에 용성이 계성의 배도(陪都)로서 기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양도체제(兩都體制)라고 한다면, 양도체제는 오호왕조가 일찍이 가지고 있던 초원국가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그 국가의 성격이 중원국가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출현한 것이다.⁸⁴ 그렇다면 모용준이 용도-계도(薊都)의 양도체제를 추진한 것은 우선 요방과 하북을 잇는 거점도시, 혹은 하북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계성과 모용선비의 세력 발흥지로서의 용성을 동시에 중시하고자 했던 의도 때문일 것이며, 또한 한 학자의 주장에서도 보듯 계성은 농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농·유목업이 상호 교차하는 곳이므로 요방과 하북의 교통요지일 뿐만 아니라 새북의 호인들이 유목생활에서 정거농경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⁸⁵ 원새 2년(353) 춘2월 경자(庚子: 17일) 모용준은 가족훈씨(可足渾氏)를 황후에, 모용염을 황태자에 세우고, 이어서 용성에서 계성으로의 천도를 완수하게 된

83 高然, 2014, 앞의 글, 76쪽.

84 박한제, 2000, 앞의 글, 150쪽.

85 雷家驥, 1995, 앞의 글, 46~47쪽.

다. 『태평환우기』의 기록에 의하면 계성은 남북과 동서의 길이가 각각 9리, 7리에 이르며, 10개의 성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용준이 동을 녹여 마상(馬像)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문 중 한 곳을 동마문(銅馬門)으로 명명했다고 하였다.⁸⁶ 이를 통해 계성으로 막 천도했었을 때 이 도시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화 5년 모용준이 계성에서 자기 의지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⁸⁷ 특히 영화 8년 4월 중산에서 황제를 칭했다고 하여,⁸⁸ 일부 학자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⁸⁹ 진후 사정을 통해 볼 때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⁹⁰ 즉, 당시 중산은 손흥(孫興)이 태수로서 그 지역 백성들을 위무하여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⁹¹ 그 주변지역은 아직까지 진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염위와의 최후의 결전이 곧 일어날 상황이

86 『太平實字記』 권69, 河北道18·幽州, 1399쪽, “薊城. 郡國志云: 「薊城南北九里, 東西七里, 開十門. 慕容儁鑄銅爲馬, 因名銅馬門.」”

87 『진서』 권14, 地理志 上, 426쪽. “及穆帝永和五年, 慕容儁僭號於薊, 是爲前燕. 七年, 儁移都於鄴.” 사서의 기록에서 보듯 영화 5년(349)에 모용준은 계성에서 ‘참호’했으며, 동시에 351년에는 업성으로 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서기록은 믿기 어렵다.

88 『진서』 권8, 穆帝紀, 198쪽. “(永和八年)夏四月, 冉閔爲慕容儁所滅. 儁僭帝號于中山, 稱燕.”

89 車傳鼎, 1994, 「徒何鮮卑之附塞漢化及其對拓跋鮮卑之影響」, 『興大歷史學報』 4期, 28, 32쪽; 三崎良章 著, 2019, 앞의 책, 88쪽.

90 『진서』 권13, 天文志 下, 374쪽. “(永和)八年, 劉顯·苻健·慕容儁並僭號.” 398쪽. “穆帝永和八年 … 是時, 慕容儁僭稱大燕, 攻伐無已.” 기록에서 보듯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한 시간은 영화 8년이 확실한데, 4월인지 11월인지 구분이 없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선 교수는 모용준이 영화 8년 4월 帝를 僭號한 것은 대내적으로 自號인 것이고, 11월은 대외에 稱帝한 것이므로 사정은 각각 달랐다고 주장하였다.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131쪽. 그런데 황제를 칭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대내 혹은 대외적인 상황에 맞추어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칭제를 대내 혹은 대외용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91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6上쪽. “(慕容儁)以北平太守孫興爲中山太守, 興善於撫綏, 中山遂安.”

었기 때문에, 모용준이 중산에서 대연황제를 칭했다는 기록은 사실 믿기 어려운 것이다.⁹²

VI. 맺음말

이상에서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이유, 계성에 수도를 두었던 정확한 시간, 그리고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 천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글의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중국역사상 4세기 서진·단선비(段鮮卑)·후조·전연(연왕국)·전진·후연 그리고 북위(北魏)는 차례로 계성을 점령하여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시종 요방과 하북을 잇는 거점 요지로서 중시해왔다. 특히 모용선비의 연왕국에서 대연제국으로의 국가형태 변화는 계성에서 완수되었고, 이후 중원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역시 이곳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다른 왕조들의 그것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렇다면 모용선비는 무슨 이유로 조상 대대로 뿌리를 묻고 살아온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했으며, 하북 진출의 전초기지 계성으로의 천도는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모용외 때부터 하북에서 유입된 한인들로 인해 요방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정도로 토지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었고, 동시에 관료층의 비대화와 수만에 이르는 유식자로 인해 국가재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또한 4세기 북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교적 춥고 건조한 기후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모용선비를 비롯한 유목민족들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장성 남쪽의 한인들의 지역으

92 弓因, 1986, 「慕容儁稱帝建都何處」, 『社會科學輯刊』 1期, 94쪽.

로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나아가기로 했던 객관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객관적인 요인 외에 모용선비는 일찍부터 한문화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용선비의 선조 막호발은 그의 부중을 이끌고 요방으로 진입한 후 한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⁹³ 그의 증손 모용외는 이런 한문화에 근거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개혁정책을 실시할 정도로까지 한문화의 유입에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하루 빨리 남하하여 한문화의 중심지 중원을 차지하고 그곳의 주인이 될 것을 누차 당부했던 것이다. 이렇게 모용준은 주·객관적인 요인을 모두 종합한 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시기는 모용외가 죽고(333년) 17년이 흐른 영화 6년 2월이었다. 그는 20여 만의 대군을 셋으로 나누어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남하하여 그해 3월 하북진출의 전초기지 계성을 함락하였다. 현재 많은 학자가 이때 모용준은 계성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주장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사서의 기록 ‘입도어계’, 특히 ‘인이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당시 계성이 연왕국의 신수도가 아니었음은 모용준이 계성을 함락한 후 천도할 때까지 거의 매년 용성으로 귀환하여 그곳을 중시했던 사실로도 증명된다. 당시 용성이 모용선비에게 정신적 혹은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화 7년 4월 봉혁은 하북의 대표적인 한인호강 방약을 회유하기 위해 ‘금이도계, 남림조위(今已都薊, 南臨趙魏)’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계성의 함락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아가 이후 모든 하북을 차지하기 위해 계성에 전초기지를 둔 사실을 도음을 정한 것인 양 주장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봉혁은 방약을 어떻게든 회유하고야 말겠다는 책임감으로 가득했고, 이

93 『진서』 권108, 모용외제기, 2803쪽. “時燕代多冠步搖冠, 莫護跋見而好之, 乃斂髮襲冠, 諸部因呼之爲步搖.”

런 모종의 ‘부담감’ 때문에 결국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당시 연왕국과 후조의 잔여 세력 및 염위 간의 군사적 대결이 계속된 배경을 이해하면 봉혁이 그렇게 얘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나름 설명된다. 그래서 ‘금이도계’(351년)가 ‘입도어계’ 혹은 ‘인이도지’(350년)를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영화 6년 3월 계성이 연왕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영화 8년 중순에는 하북의 정세가 연왕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중산·상산 그리고 업성 등 하북의 요충지가 차례로 점령되었고, 방약·가견·봉방 등의 한인호광과 적서·단근 등의 호인추수가 귀향해 왔다. 바로 이때(영화 8년: 352년 11월) 모용준은 대연황제를 칭하기로 결정하고, 천자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천하에 군림하겠노라 선언하면서 종국에는 요방의 용성에서 하북의 계성으로의 천도를 완수하였다. 대연황제로서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나아가 한문화를 계승한 중화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를 요방의 용성에 두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용준은 용성에 유대를 설치하고 을일에게 그곳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계성 천도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용성을 용도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호삼성의 지적처럼, 계성을 대연제국의 국도(國都)로, 그리고 용성을 배도로 삼는 천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3년을 기다려 비로소 계성으로의 천도가 완수될 수 있었고, 계성은 대연제국의 첫 번째 도성이 되었다. 그때는 바로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하고 3개월이 지난 원새 2년 2월, 즉 동진 영화 9년 2월이었다. 이렇듯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 천도는 상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연왕국의 국가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Kingdom의 연왕국은 Empire의 대연제국으로 바뀌었다. 한편, 어떤 사서기록에는 모용준이 영화 5년 계성에서 자기 의지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거나 혹은 영화 8년 4월 중산에서 황제를 칭했다고도 했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연황제 모용준은 계성에 수도를 둔 이후(계성을 점령하고 천도할 때까지의 약 3년의 시간을 포함해서) 하북의 ‘반연’

세력에 대해 군사정벌과 회유의 조치를 추진했는데, 모용종실이 전자를, 한인 사족이 후자를 주로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조합(趙樞)·소림(蘇林)·이독(李犢) 등 일부 한인호강은 무리를 모아 모용선비에 반항하는 등 하북 전체가 대연제국의 실제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나, 광수 원년(357) 말에 이르러서 모든 하북을 점령했다(盡陷河北之地)⁹⁴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모용선비가 하북 전체를 차지하는 데는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확인컨대 이 시간에 ‘반연’ 세력에 대한 계속된 군사정벌과 회유의 조치로 하북은 점차 요방을 대체하는 대연제국의 새로운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94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3下쪽.

참고문헌

사료

- 『後漢書』·『晉書』·『資治通鑑』(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함).
崔鴻, 1986, 『十六國春秋』, 臺北: 文淵閣四庫全書463冊, 臺灣商務印書館影印本.
李昉, 1998, 『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樂史, 2007, 『太平寰宇記』, 北京, 中華書局點校本.
湯球, 1936, 『十六國春秋輯補』,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단행본

-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高敏, 1998,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_____,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譚其驥, 1996, 『中國歷史地圖集』,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三崎良章 著, 劉可維 譯, 2019, 『五胡十六國-中國史上的民族大遷徙』, 北京: 商務印書館.
尚永琪, 2019, 『北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海葉, 2015, 『慕容鮮卑的漢化與五燕政權-十六國少數民族發展史的個案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儉生, 1985, 『魏晉南北朝政治史 2』,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田立坤, 2019, 『後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趙紅梅, 2019, 『前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 商務印書館.
彭豐文, 2009, 『兩晉時期國家認同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窪添慶文, 2003, 『魏晉南北朝官僚制研究』, 東京: 汲古書院.

논문

김성희, 2007, 「白虜에서 '索虜'의 세계로-4세기 말 하북 패권의 향배」, 『동양사학연구』 99輯.

박한제, 2000, 「魏晉南北朝時代 각 왕조의 首都 선정과 그 의미」, 『歷史學報』 168輯.

신성근, 2008, 「魏晉南北朝시대의 人口移動과 地域의 分布」, 『동양사학연구』 103輯.

이춘호, 2010a, 「五胡시기 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성격-‘勤王’의 出現 및 그 運用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輯.

_____, 2010b, 「오호시기 한인왕조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23輯.

최진열, 2020, 「前燕의 關東 정복과 지방 통치」, 『동양사학연구』 151輯.

高然, 2010, 「20世紀以來五燕史研究綜述」, 『中國史研究動態』 5期.

_____,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 3輯.

弓因, 1986, 「慕容僞稱帝建都何處」, 『社會科學輯刊』 1期.

雷家驥, 1995, 「慕容燕의 漢化統治與適應」, 『東吳歷史學報』 1期.

樓嘉軍, 1992, 「氣候演變與民族遷徙-東漢·魏晉時期北方少數民族內遷新探」, 『歷史教學問題』 4期.

王禹浪, 2007, 「三燕故都古朝陽의 歷史·文化與民族融合」, 『黑龍江民族叢刊』 3期.

于德源, 1983, 「北方各少數民族始據薊城的年代」, 『史苑』 1期.

_____, 1987, 「魏晉北朝時期幽州人口的移動」, 『北京社會科學』 4期.

劉國石, 1997, 「鮮卑慕容氏與趙魏士族」,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期.

李文才, 2007, 「渤海封氏與慕容鮮卑關係試探」, 『河北學刊』 6期.

張利, 1997, 「氣候變遷與我國古代北方民族的南下」, 『許昌師專學報』 4期.

張敏, 2003, 「自然環境變遷與十六國政權割據局面的出現」, 『史學月刊』 5期.

鄭小容, 2005, 「慕容廆漢化改革略述」, 『西南民族大學學報』 1期.

趙國印, 1985, 「秦漢時期的薊城」, 『文博』 3期.

_____, 1986, 「魏晉和北朝時期的幽州薊城」, 『文博』 4期.

車傳鼎, 1994, 「徙何鮮卑之附塞漢化及其對拓跋鮮卑之影響」, 『興大歷史學報』 4期.

小林聰, 1988, 「慕容政權の支配構造の特質-政治過程の検討と支配層の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16號.



연왕국(燕王國)에서 대연제국(大燕帝國)으로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하북진출(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준호

4세기 연왕국의 근거지 요방으로 인구가 다수 유입되어 심각한 토지부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관료층의 비대화와 수만에 이르는 유식자로 인해 국가의 재정은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모용선비의 생존을 크게 위협했는데,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하북으로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다른 유목민족에 비해 한문화를 보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던 모용선비는 특히 모용외 때에 이르러 정치·경제 등에서 한화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는 수차례 후손들에게 하루 빨리 남하하여 중원을 차지하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 중화의 정통을 계승할 것을 분부하였다. 이렇게 모용준은 국내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화 6년 2월 후조에 대한 군사정벌을 통해 대대적인 하북진출을 시도한다. 20여 만의 대군을 셋으로 나눠 남정에 나선 그는 같은 해 3월 요방에서 하북으로 통하는 요충지 계성을 함락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 함락된 계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매우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가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서의 기록 ‘입

도어계’, 특히 ‘인이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계성이 수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은 모용준이 거의 매년 용성으로 귀환하여 그곳을 특별히 중시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비록 봉혁이 ‘금이도계, 남림조위’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계성의 함락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아가 이후 모든 하북을 차지하기 위해 계성에 전초기지를 둔 사실을 수도를 둔 것처럼 얘기하면서 초래되었던 것이다. 한편, 영화 8년 중순에 이르러 하북의 정세는 연왕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었는데, 방약·가견 등 한인호강, 그리고 적서·단근 등 호인추수의 귀향이 있었고, 중산·상산·업성 등 하북의 요충지가 차례로 점령되었다. 이렇게 하북은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 지역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모용준이 대연황제에 등극하고 계성으로의 천도를 완수하면서 연왕국은 비로소 대연제국으로 국가형태가 바뀌었다. 당시 강남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은 그 국력이 북중국에까지 미치지 못해 도탄에 빠진 한인들을 구출할 수 없었는데, 이때 모용준은 호·한인들 간의 민족모순을 격화시킨 염민을 사로잡아 참하고, 이어서 대연황제로서 한인들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덕과 인으로 새로운 왕도의 길을 열어 호·한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호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노라 다짐한다. 따라서 대연황제를 칭한 모용준이 호·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나아가 중화의 주인으로서 화하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수도를 요방의 용성에서 하북의 계성으로 천도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계성으로의 천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연왕국, 대연제국, 모용준, 모용선비, 하북, 계성

ABSTRACT

From the Yan Kingdom to the Great Yan Empire

Lee Chunho

Murong Jun, based on the combined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decided to leave the region of the Liao in February 350. He led two hundred thousand troops to invade the later Zhao kingdom, and soon captured Ji City, then prepared to implement the plan of moving the capital. By the middle of 352, the situation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had taken a turn for the better for Murong Xianbei. Murong Jun believed that he could transform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into the hinterland of the Yan kingdom, so he finally called himself Yan emperor in November 352 and moved the capital from Long City to Ji City in February 353. Therefore, the dynastic form was transformed the Yan kingdom into the great Yan empire. The powerful landlord of Han, had surrendered to the Yan kingdom, recognized that Murong Jun would unify China with justice, and he would save the people in trouble. This makes that Murong Jun has a new understanding of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and he

has enough firm confidence to govern it effectively. Murong Jun said that he was supported by the people and became emperor, and he finally appeared as a great Yan emperor. So it was reasonable to move his capital to Ji City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Keywords: the Yan kingdom, the great Yan empire, Murong Jun, Murong Xianbei,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Ji City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권은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식민사학과 중국 근대 한국고대사 인식
- III.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 관련 서술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중 두 나라는 그 자체의 오랜 역사만큼 교류 역시 오래되었는데, 어떤 관계든 항시적인 우호관계가 불가능한 것처럼 역사상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전근대의 갈등은 무력충돌이나 외교에서의 의례 및 위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현대에는 역사 해석과 이해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진다.

대개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이라고 하면 ‘동북공정’이 떠오른다. 최근에는 일명 ‘문화공정’ 논란까지 일어나며 역사 갈등은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촉발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서사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고대사에서 고조선부터 고구려·발해까지 중국사로 보려는 시각은 근대 이후 중국 학계의 한편에 계속 있었다.

중국은 청대 최대 강역을 기본으로 하여 그 위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청말부터 동북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동북지역 지식인과 동북지역으로 유배되었던 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조되었고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한4군을 포함하여 고조선까지 중국사로 보는 시각이 출현하였다. 이를 민국 시기 지식인들이 더욱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은 중국 자체의 역사 이해, 즉 천하관·사이관·번국관 등 전통적 중화주의와 근대의 대외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의 자국사(당시 영토를 기반)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 근대 일본의 역사학 나아가 식민사학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근대 한국(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열었고 1905년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으며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

* 투고: 2021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11월 12일

기 위해 기존의 ‘정한론(征韓論)’을 발전시켜 ‘식민사학’을 정립하고,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나일본부설’과 닮은꼴로 ‘한4군’, 특히 낙랑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중국 식민지나 문화 이식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일본에서조차 비주류가 된 식민사학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이해¹가 중국 학계에 여전히 잔존하고, 대학 역사교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그것은 중국 근대역사학의 성립과 발전 및 역사교과서 편찬에 일본의 역사학이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고대사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한국고대사상(像) 형성에 미친 식민사학의 영향은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한4군을 포함한 고조선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학과 서로 다른 인식 주체지만 그 주장과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 뿌리를 지녔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재 중국 대학 교재의 관련 서술에서 근대 중국의 한국고대사상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를 통해 중국의 한국고대사상, 특히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

- 1 1945년 한국의 독립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한동안 ‘식민사학’의 주장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주류 학계에서는 상당히 극복되었다. 그러나 일본 우익 사학계에는 여전히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우익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이 강조되었고 정치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2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을 분석한 글로는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고·중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김현숙, 2006, 「중국 대학교재에 서술된 삼국 관련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 고구려연구재단; 김은국, 2006, 「중국 대학교재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 고구려연구재단; 채미하, 2008, 「고대사」,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조이욱, 2008, 「발해사」,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식민사학의 영향과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가 근대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중화주의의 결합에 의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식민사학과 중국 근대 한국고대사 인식

근대시기 한국은 일제의 강제병탄으로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가 끊겼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의 학술교류는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³ 또한 광복과 동시에 냉전 체제 아래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은 약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에 놓이며 단절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학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은 20세기 초 중국인의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도리어 퇴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세기 초 청말 민국시기 중국학자들은 메이지시기 일본의 역사학을 수용하여, 중화주의와 식민주의의 두 시각이 결합된 한국사관이 형성되어 지금까지도 만선사관과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인식을 그대로 견지한 개설서와 역사교재가 많다.⁴

- 3 공적·사적 원인으로 직접 조선을 견문하여 또는 재중 임시정부 관련 인물들과의 교류 또는 글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 조선왕국과 항일에 대한 것이었고 고대사에 대한 학술교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근대 중국인의 한국 인식의 경로에 대해서는 王元周, 2005, 「근대 중국인의 한국 인식: 경로와 특징」, 『동방학지』 132 참조.
- 4 청나라는 1862년 京師同文館을 설립해 서적을 배포하였는데 이것이 신식교과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902년 新式學堂章程을 공포해 근대적 학제를 시행하고, 1908년 관찬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그사이 商務印書館 등 민간 상업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전역에서 관찬교과서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 교과서를 번역 또는 번안하거나 일본 顧問과 공저하는 등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白永瑞, 2005,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아시아관」, 『대동문화연구』 49, 34~35쪽 참조). 이들 교과서에서 보이는 고조선(한4군),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기술과 기본 인식은 현재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만선사(滿鮮史)의 선창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이후 만선사관의 가장 주도적인 보급자이자 대표적인 연구자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가 꼽힌다. 이바나는 1908년부터 1914년까지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歷史地理調査部: 정식명칭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역사조사실)에서 ‘만선사’를 담당하였다. 이후 192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찬사업에 참여해서 조선사를 담당하여, 만주와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체라고 주장(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하였다. 만선사관은 한반도의 역사는 만주의 역사보다 후진적이고 열등하여 선진적인 만주사에 종속된 역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한반도가 대륙에 붙어 있고 해양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적인 경영자가 될 수 없었다는 환경결론, 즉 반도적 성격론 및 타율성론과 연결되었다. 또한 이바나는 『조선문화사연구(朝鮮文化史研究)』(1925)에서 조선민족의 현 사회를 정체라고 하였다.

한4군과 관련해서는 동양사 연구자인 나가 미치요(那珂通世)의 「조선낙랑현도대방고(朝鮮樂浪玄菟帶方考)」(1894),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한의 조선사군강역고조선사군강역고(漢の朝鮮四郡疆域考)」(1912), 이나바 이와키치의 「진번군의 위치(眞番郡の位置)」(1914)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역사 이전 시기 중국의 지배 사실을 확정하여 조선인의 열등성과 종속성을 자연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사회진화론이라는 서구 선진 학문의 위명을 빌린 것이다. 일본의 제국적 팽창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만주를 조선사와 결합하여 만선사관으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보편적 문명인 중국에 버금가는 독자적 문화를 가진 일본민족의 출현과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나아가 만선 지역 진출의 역사적 연고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고대사를 왜곡하며 한반도에 대한 문명 전수와 정치적 영향력과 통치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⁵

5 식민사학과 만선사관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이 장에서는 최근 연구 가운데 박찬홍, 2007,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이정빈,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이준성, 2014,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당시 중국과의 직접 교류나 비등한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고대 조선·향해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문화 전수나 문화적으로 고대 한인들의 것이 일본인들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극복해야 했다. 그런데 한4군 연구는 중국 본토와 직접 교류가 없었다고 해도 한인을 배제한 채 낙랑군과의 교섭을 통해 문화 교류를 언급할 수 있어 식민사학자들에게는 매력이 있었다. 낙랑군은 한반도 내의 중국과의 관계로 설명이 가능했고, 낙랑군이 야만지역에 설치된 이주식민지로 문화를 전파했다는 식의 설명은 입니일본부설을 비롯하여 근대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서 문화를 전달하는 서사구조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 이전 단군조선은 신화로 부정하며,⁶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중국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문화적·정치적 종속성을 강조하였다.⁷ 따라서 한인 집단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에 의해 교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를 완성하였다.⁸

일제 식민학자들의 한국고대사상은 특히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주도한 조선사 편찬 과정에서 공식화되었고, 교과서나 관광서적(안내기, 엽서, 사진첩) 등 공식 또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재생산되어 사실(史實)로 기억되어 갔다. 그리

‘만선사’의 성격, 『인문과학』 54;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등을 참고하였다.

- 6 메이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국가 출현에 대한 관심을 고조선이 아닌 단군에 집중하였고, 단군고선은 신화 속 국가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낙랑군 지역 발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체 출현은 한4군 설치 이후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의 단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저작은 이양수, 2018, 「일본의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196~197쪽, <표1. 근대 일본 학자들의 단군에 대한 인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 7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최재석, 2003, 「1892년의 하야씨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고대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8;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박찬홍, 2007, 앞의 글; 송호정, 2000,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韓國古代史論叢』 10; 이양수, 2018, 위의 글 참조.
- 8 정준영, 2017, 앞의 글, 180~181쪽.

고 근대 동아시아 역사학의 선두에 섰던 일본의 역사학이 만들어낸 한국사 인식은 다시 동아시아 주변국 지식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⁹ 이렇게 일제의 왜곡된 한국고대사상이 중국학자들과 일반 중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¹⁰

근대 초기에 중국학자들이 일본의 한국고대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에 이어 대륙 침략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1910~1920년대에는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경계가 고조되기 시작한다. 민국시기 중국에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황옌페이(黃炎培)의 『조선(朝鮮)』¹¹이다. 황옌페이는 국민당정권 시절 유명한 재야인사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부총리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황옌페이의 『조선』은 분명 내용상에 문제가 많지만 그의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지식인의 한국사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세기 초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연구로 꼽히고 있다. 황옌페이는 중화민국 17년(1928) 5월에 쓴 서문 「개권어(開卷語)」에서 일본의 대륙 야심이 세 차례 있었는데, 신공황후 때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그리고 메이지 초기에 정한론이 일어나 말년에 큰 공을 들여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은 조선으로 그치지 않고 1914년 유럽의 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독일이 점거하고 있는 칭다오(靑島) 자오지(膠濟)는 물론 발해(바다)와 만주, 몽고를 모두 빼앗을 의지를 가지고, 황하 유역을 아우르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둥(山東)의 외연은 조선이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사를 연구하

9 김정현, 2010, 「20세기 중국의 한국사 서술과 일본의 식민사관」, 『중국학보』 61, 350쪽.

10 동양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본의 인식 틀을 받아들여 중국을 주체로 한 서술로 바뀌어 중국화주의적 역사관과 일본에서 발전한 식민주의사관이 혼재되어 있었다. 白永瑞, 2005, 앞의 글, 34~42쪽.

11 黃炎培, 1929, 『朝鮮』, 商務印書館: 경인문화사 편집부, 200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200, 경인문화사.

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먼저 조선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¹² 바로 황옌페이
의 『조선』은 일본에 대한 경각심이 저술의 동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 책은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중국학자의 대표적인 한국사 저술로도 꼽
힌다.¹³

황옌페이는 『조선』을 저술하며 중국 31종, 한국 14종, 일본 85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중국 자료는 정사(正史)류를 중심으로 했으며, 한국 자료는
개설서에 국한하였다. 반면 일본 자료는 대부분 출간된 식민사관에 의거한 일본
인 저작과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¹⁴ 따라서 그의 저술은 일본 식민사가들의 인식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족특성에 대해 많은 오류와 편
견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 때문에 그의 저술 의도¹⁵와는 달리 동시기 한국의
독립지사들과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이시영(李始榮)은
『감시만어: 황옌페이의 한사관을 효시함(感時漫語: 駁黃炎培之韓史觀)』을 저술
하여 황옌페이의 한국사관을 비판하고 논박하였다. 그는 서언에서 계유년
(1933) 여름에 우연히 황옌페이의 『조선』을 읽었는데, 문체의 거친 말투나 허황
된 표현으로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본래 중국인의

12 黃炎培, 1929, 위의 책, 7쪽. 쪽 표시는 『韓國地理風俗誌叢書』 200에 수록된 쪽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동일하다.

13 황옌페이의 『조선』에 대한 분석은 黃炎培, 1929, 위의 책; 권혁수, 2007, 「근대 이
래 중한(中韓)양국의 상호인식-황염배(黃炎培)의 『조선(朝鮮)』과 이시영(李始榮)
의 『감시만어(感時漫語)』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38-1; 김정현, 2010, 앞
의 글; 오병수, 2013, 「근대주의와 내셔널리티: 黃炎培 『朝鮮』 저술의 사상 맥락」,
『중국근현대사연구』 60; 정옥재, 2001, 「李始榮의 感時漫語研究」, 『한국고대사
학보』 4 등 참조.

14 『조선』에서 활용한 자료 목록은 黃炎培, 1929, 위의 책, 358~367쪽; 정옥재,
2001, 위의 글, 75~76쪽, 주 24~26 참조.

15 오병수는 황옌페이가 일제 식민사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적 계기나 맥락을
분석하여, 그의 저술 동기는 조선(민중) 또는 조선사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 정책에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병수, 2013, 앞의 글, 197쪽.

한국관은 탈락이 심하고 자세하지 못하며 어떤 것은 오류를 범하거나 편견으로 어긋난 것이 많아 참고할 것이 없는데, 황옌페이(黃炎培)의 글은 꽤 정력을 기울인 것 같지만 어긋나고 그릇된 점이 많아 한국인이 볼 때 그가 일본인을 대신하여 일본을 선양한 듯 한 느낌이 들어 메스껍기 이를 데 없다고까지 하였다.¹⁶

황옌페이는 한국사의 흐름을 식민사학의 논리를 따라 단군 개국설을 배제하고 한족(漢族)개화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李)조선시대로 구분하였다. 한족개화시대는 (1) 기자의 수봉(箕子受封), (2) 위만의 탈국(衛滿奪國), (3) 한4군 설치로 구성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와 위만, 한4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식민사학자들의 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국호계통도(朝鮮國號系統圖)’¹⁷에서 임나를 ‘일본령(日本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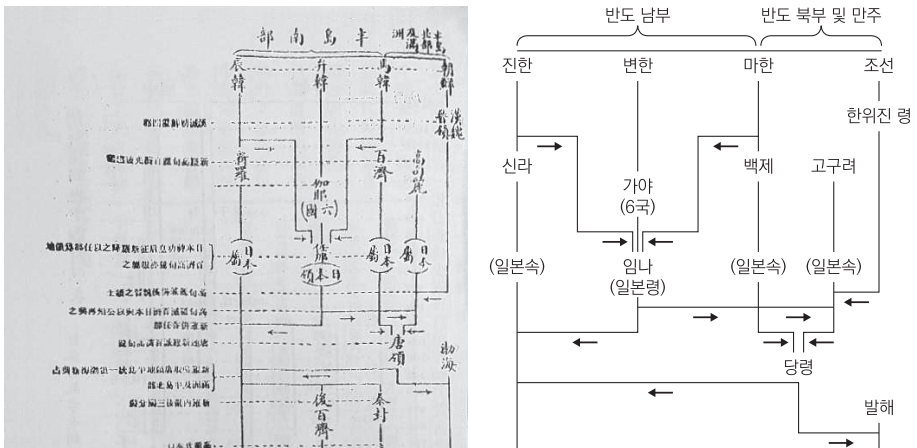


그림 1 황옌페이 『조선』 <조선국호계통도> 중 고대 부분(오른쪽, 필자 번역 및 그림)

16 이시영, 『感時漫語：駁黃炎培之韓史觀』(성제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편), 一潮閣, 1983(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원문보기). 황옌페이의 비판 연구 중 『감시만어』의 정보를 알려주신 박장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7 黃炎培, 1929, 앞의 책, 83쪽.

고구려·백제·신라를 ‘일본속(日本屬)’으로 표시하였으며, 삼국시대는 삼국의 흥기 이후 ‘일본과 중국 세력의 병진(日本與中國勢力之並進)’이란 제목을 달고 이를 일본의 남선경략-임나일본부(日本之南鮮經略-任那日本府)와 수당의 동정-백강구의 수전(隋唐之征東-白江口之水戰)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황엔페이(黃炎培)는 삼국의 역사전개 과정을 그 자체의 운동력이 아닌 외부, 즉 일본과 중국의 정벌사로 본 것이다. 그는 특히 일본이 백제를 도와 신라를 정벌하고 획득한 영토와 보호국을 충칭하여 임나(任那)라 하고,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는데, 그 성격이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와 거의 같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서사 구조는 식민사학자인 이나바 이와키치와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만선사 통사인 『조선사·만주사』의 목차 구성, 내용과 비교해보면,

〈표 1〉 『조선』과 『조선사·만주사』 목차 비교

『조선』	『조선사·만주사』	
제3장 과거의 조선과 조선인 제1절 선사시대 제2절 전사개람(全史概覽) 제3절 한족(漢族)개화시대 (1) 기자의 수봉 (2) 위만의 탈국 (3) 한4군 설치 제4절 삼국시대 (1) 삼국의 굴기 (2) 일본과 중국 세력의 병진 A. 일본의 남선 경략-임나일본부 B. 수당의 동정-백강구의 수전 (3) 삼국시대의 문화 (4) 신라의 통일과 멸망 A. 신라통일 초기 B. 발해의 굴기와 쇠락 C. 신라의 분열과 멸망	「조선사」 제1장 개국설화 제2장 낙랑문화의 접수(攝收) 제3장 고구려의 발달 제4장 일본의 남선 거유(據有) 제5장 부용국가의 성장	「만주사」 제1편 고대의 만주 만주의 여명 기자의 이봉(移封) 만주와 연(燕)의 관계 만주와 진(秦)의 관계 제2편 만주 민족 흥기시대 위씨조선 만주의 6군(郡)과 그 변천 제부족의 흥기 선비족의 활약과 고구려의 성쇠 ... 제4편 발해시대

18 黃炎培, 1929, 위의 책, 100쪽.

얼마나 닮은꼴인지를 알 수 있다.¹⁹ 차이점이라면 황옌페이(黃延裴)는 발해를 포함한 북선의 역사를 한국사로 다루었으나, 이나바 등의 글은 북선(北鮮)의 역사를 분리하여 만주사의 연장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만주를 중국사에서 분리하여 일본의 만주 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식민사학과 만선사관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물론이고 만주 진출을 합리화하는 역사학이었다. 만선사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만주 진출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국과 만주의 대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문화적·경제적으로 만주가 중국보다 북방지역과 더 긴밀했다고 강조하는 등 일본의 만주 침략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었다.²⁰ 그러나 실제 남선(南鮮)만 한국사로 남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중국이 고대 한반도 북부의 고대사를 중국 동북 변경사의 일부로 이해하며 한반도 남부의 역사와 구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²¹ 이러한 중국의 동북 변경사 인식의 기초는 바로 1930년대 이후 일본의 대륙 침략과 만선사관의 발전에 대응하면서 확립하였다. 황옌페이의 『조선』은 일본의 식민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한국사로 인식하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중국 동북사를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인 푸스넨(傅斯年)과 진위푸(金毓黻) 단계에 오면 한국 고

19 稻葉岩吉·矢野仁一, 1941, 『朝鮮史 滿州史』(초판: 1935), 東京: 平凡社.

20 김정현, 2010, 앞의 글, 351쪽.

21 최근 만선사 내지 만선사관이라는 것이 학문적 체계로서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비판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성은 만선사가 확립해나가는 단계에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이나바의 글에서도 ‘만선’보다는 ‘만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쓰인 것을 지적하였다. 결국 ‘만주’와 ‘조선’을 역사권으로 설정한 하나의 체계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준성, 2014, 앞의 글, 29, 37쪽). 관련 연구와 이나바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국 한국고대사에서 北鮮은 만주사의 일부로 떨어져 나가고 南鮮만 조선사의 공간으로 남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北鮮의 공간, 즉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까지를 중국의 東北 邊疆史로 보며 한국사의 역사 공간에서 배제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중국의 관련 연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전히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 북방사를 한국사에서 분리하여 중국의 동북사로 정리한다.

푸스넨은 1932년 출판한 『동북사강』의 머리말에서 중국의 동북문제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경과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을 유린하며,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근래 만몽(滿蒙)은 역사적으로 지나(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망설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고 동북을 침략하는 구실로 삼고 있어 변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동삼성이 중국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국내·국제법적으로도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의해서도 동북은 중국의 영토이며 일본인을 경계 밖으로 축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북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요동 일대가 중국의 군현이었고 백산과 흑수는 중국의 번봉(藩封)이며 만주는 신복 공납하던 속국이었다. 2,000~3,000년의 역사를 통해 동북이 중국에 속하여 변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부득이 변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및 서양인 서적 중 동삼성을 만주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만주원류고』에서 다루고 있듯이 만주는 원래 지명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로 세력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통용시킨 것으로 남만·북만·동몽 등의 용어는 날조된 것라고 하였다.²² 그리고 숙신·읍루·여진·고구려, 연진한과 동북, 양한 위진 시기 동북군현, 속부 부여·읍루·숙신·고구려·동옥저·예·삼한(신라까지 기술)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한편,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기술은 없지만, 위치에 대한 기술에서 “남북조 시기의 이른바 임나는 대체로 변진의 옛 땅 일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은연중 푸스넨 역시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중국 동북사를 체계화한 것은 진위푸이다. 진위푸는 처음에는 동북지역에서의 한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고, 동북의 주요 민족 구성도 동호(몽고), 숙신, 부여예맥 3종으로 보았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 침략을 본격화하자 진위푸는

22 부사년 저, 정지호 옮김, 2017, 『동북사강』(원저: 1932), 주류성, 19~31쪽.

23 부사년 저, 정지호 옮김, 2017, 위의 책, 216쪽.

본토로 망명하여, 일제의 만주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통사』를 지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의 역사 인식이 전과 달리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²⁴ 이 책은 만주지역, 즉 압록강과 두만강 북녘의 땅을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최초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²⁵

서언에 보면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무릇 동양사 동방학을 연구하려 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 동북사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본의 저작을 가져다가 기본재료로 삼을 것임은 단연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언급하며, 푸스넨이 『동북사강』을 저술한 목적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만선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권1 총론에서는 동북의 함축된 뜻과 그 이칭을 소개하고, 요령·길림·흑룡강·열하(熱河) 4성이 중국의 동북부에 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동북지방이라 칭하며 이 지역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례 제시를 통해 동북의 함축된 의미로 첫째, 요동, 둘째, 요해(遼海), 셋째, 안동(安東)·성경(盛京)·동3성이 있을 뿐, 이를 대체하여 만주라는 명칭이 지방 명칭이 된 것은 남만주 철로 개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만주란 추장의 호칭이었고 지방과 관련이 없었으며, 만주·만몽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동북민족의 계통에 한족을 추가하여 4종을 주요 구성원으로 정리했으며, 한족의 문화와 한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국사 체계의 하나로 지방사를 설정했으며, 그 일부로 동북사를 자리매김하고 고조선부터 고구려·발해를 중국 지방사-동북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은 목적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복선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분리하여 남선만 남는 굴절된 한국고대사상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중국 학자들에게는 크게 관심 없었던 남선은 일본의 식민사학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여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는 변하지 않았다.

24 아래 『동북통사』의 내용과 그림은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 상』(원저: 1941),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활용하였다.

25 한규철, 2007, 「해제」, 『김육불의 東北通史 상』, 동북아역사재단,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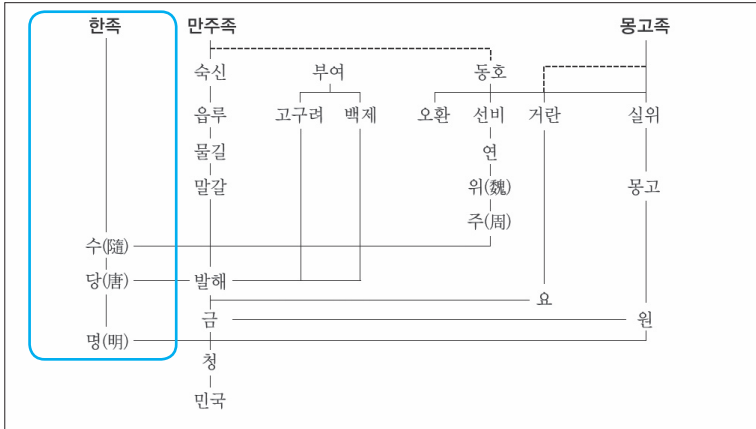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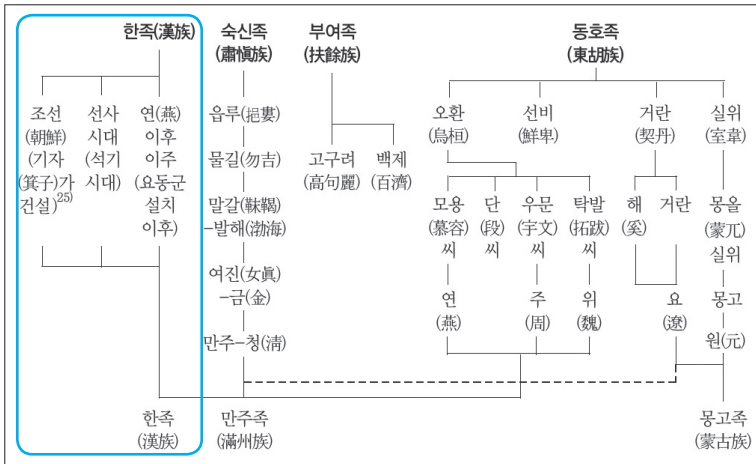


그림 2 진위부의 중국 동북민족 계통과 세력 소장(消長) 인식²⁶

근대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목적과 현실 필요에 의해 자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나 역사를 자국 중심으로 한 설명 틀을 갖추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은 임나일본부

26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앞의 책, 89쪽 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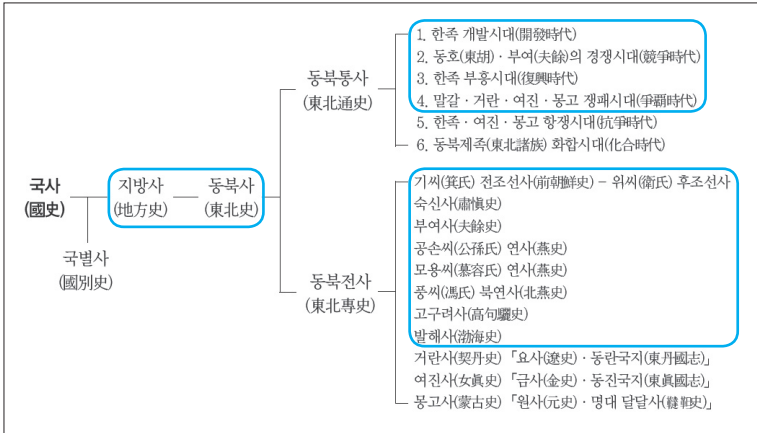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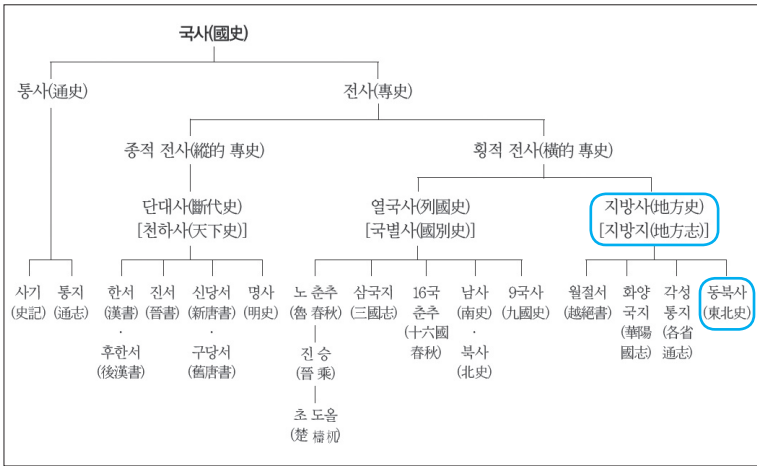


그림 3 진위부의 중국사와 동북사 체계 인식²⁷

를, 중국은 고조선(한4군)을 주목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지역이 자신들보다 후진적이고 자신들이 문명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상을 함께 주목하였다. 그것이 일본은 고조선(한4군)이고, 중국은 임나일본부였다.

27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위의 책, 117쪽 표 활용.

이 님은 꼴 두 이야기를 결합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은 철저히 타자화·대상화되어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만이 남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졌다. 또한 이것이 근대라는 지나간 역사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현재도 반복되고 있어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관학 아카데미즘과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분위기 속에서 만선사관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으며,²⁸ 고조선(한4군)에 대한 이해나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가 많이 극복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경화 바람 속에 우익계 교과서가 다시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20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제국서원(帝國書院) 역사교과서는 “6세기가 되자 조선반도에서는 왜국과 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 제국(諸國)이 멸망했으며,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왜국은 반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²⁹고 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의 가야 지배 사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자유사(自由社) 본은 광개토대왕비문의 ‘신묘년’ 부분에 대한 왜곡 기술을 반복하였고,³⁰ 레이와서적(令和書籍) 본은 신공황후의 한반도 정벌 설화를 그대로 실었다.³¹ 그러나 자유사와 레이와는 검정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교육과정이나 제대로 된 학계에서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고 한동안은 진위푸처럼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보는 입장은 소수였고, 한국사로 보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

28 김정현, 2010, 앞의 글, 352쪽.

29 帝國書院, 2020, 『中學校 社會科 歷史的分野(第1·2·3學年用)』(검정 심사용), 36쪽.

30 自由社, 2020, 『中學社會 歷史』(검정 심사용), 42~43쪽.

31 令和書籍, 2020, 『中學社會 歷史的分野』(검정 심사용), 49~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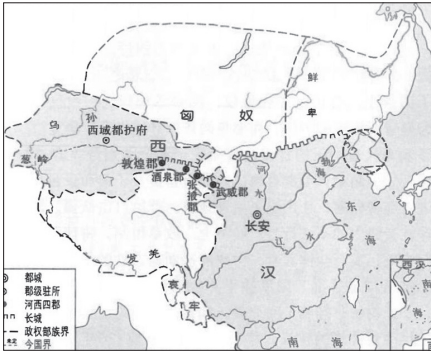
는데 대표적으로 판원란(范文瀾)의 견해가 있다.³²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역사 허무주의 극복과 애국주의 강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등 신시대 중화민족주의와 역사 정책의 변화로 비주류가 주류가 되었으며, 역사교과서에는 민국시기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한국고대사 인식이 다시 반영되었다.³³ 특히 최근 국정화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새 중등 역사교과서를 보면 고조선(한4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사 부분에서 전국시대 연(燕)의 지도와 진(秦)나라 관련 지도에서 연진 장성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그리고, 서한(西漢)이나 삼국 위(魏)나라 때 낙랑군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한반도 북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그림 4〉)를 통해 영토주의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세계사에서 한국사를 기술한 부분에서는 고조선부터 삼국까지는 아예 기술하지 않고 7세기 말 신라의 통일부터 기술하여, 민국시기 공간적으로 크게 축소시킨 남섬만의 한국고대사에서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크게 단축된 한국고대사상을 그려내고 있다.³⁴ 임나 일본부설은 중등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사 서술에서 일본 고대에 야철과 농농사 기술 등이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한국인의 역할을 배제하고 “진한 무렵 중국 이민이 야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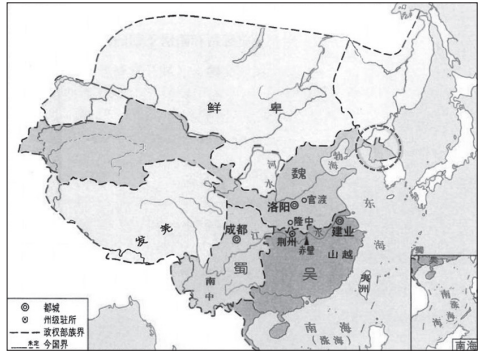
32 중화민국공화국 설립 이후 한동안 푸스넨과 진위푸와 같은 漢族 중심의 중화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역사 인식은 비주류가 되었다. 중화민국이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밀려나 안착했던 대만에서는 중화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학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중공에서는 민족주의보다 반봉건 계급투쟁을 좀 더 중시하며 마르크스 유물주의 사학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보인다. 이후 대륙에서도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며 중국식 유물주의와 결합하며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과 같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역사학, 신(新)중화주의 역사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33 김정현, 2010, 앞의 글, 356~358쪽.

34 중국은 최근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한반도 북부지역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아예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7세기 말 신라 통일부터 시작한 것은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한중 역사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21·52쪽.



〈서한강역도〉



〈삼국정립형세도(262년)〉

그림 4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한과 삼국시대 한반도 북부의 영역 표시³⁵

농사 기술을 일본에 가져와 일본 사회의 발전을 추동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집권화가 마치 신라보다 앞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보면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도 일본의 그것과 유사성을 보인다.³⁶

Ⅲ.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 관련 서술

중등 역사교과서는 배우는 대상이 청소년이고, 교과서 지면의 특성상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없다. 더욱이 중국사든 세계사든 중국 중심 역사 서

35 中國教育部, 2019, 『中外歷史綱要(上)』, 人民教育出版社, 22·26쪽.

36 권은주, 2020, 앞의 글, 32~33쪽; 中國教育部, 2020, 『中外歷史綱要(下)』, 人民教育出版社, 25쪽.

술을 강화하며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식민사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 대학 역사교재는 상대적으로 중등 교재보다 자세한 서술이 가능하여 이러한 모습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역사교재를 보면, 기자조선·위만조선·한4군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의 입장에서 서술된 모습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던 민국시기의 한국사와 유사한 기술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민출판사의 『세계통사』를 저우이량(周一良)·우위친(吳于廑) 주편의 판본과 추이렌중(崔連仲) 주편의 판본을 비교해보았다.

〈표 2〉를 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많이 사용된 저우이량의 책은

〈표 2〉 인민출판사 『세계통사』 ‘고대조선’ 관련 기술 비교

저우이량·우위친 주편(1973년판)	추이렌중 주편(2020년판)
<p>제4편 고대노예제사회의 위기와 몰락 베트남(越南), 조선과 일본의 고대사회(3세기~5세기)</p> <p>제29장 고대조선 제1절 조선의 원시사회와 고조선 - 조선의 원시사회</p> <p>조선은 아시아 동부의 반도에 위치, 북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이웃, 자고 이래 중조 두 나라의 역사·지리·문화 등 각 방면에서 관계가 매우 밀접.(396쪽)</p> <p>고조선, 매우 오래전부터 중국 북방의 거민들이 지속적으로 조선으로 이주, 기자의 이주, 아주 오래전부터 중조 양국의 인민이 이미 왕래함. 위만조선 동일.(397쪽)</p> <p>한무제 조선 ‘침입(侵入), 한4군 설치, 4세기 초 고구려 남쪽으로 발전하여 낙랑을 ‘수복(收復), 대방군은 백제가 수복.(398쪽)</p>	<p>제10장 고대조선과 일본 제1절 고대조선</p> <p>이 절은 지금 중조 경계인 압록강, 두만강 남쪽 조선반도의 고대역사에 대해 기술, 가장 이른 국가정권은 중국 서주 때 분봉된 기씨조선, 서한 초에는 연나라 사람 위만이 대체 위씨조선 건립 후 남쪽에 진국(辰國)이 일어남, 한무제가 위씨조선을 멸망시키고 군현제 실시, 진국 쇠락 후 분열하여 신라, 백제, 금관(가야) 삼국 형성.(437쪽)</p> <p>기자, 위만 조선 기술, 위씨 조선은 서한 초년에 요동 태수와 약조를 맺어 외신(遼東太守即 約滿爲外臣)이 되었고 세력을 확대, 손자 우거왕 때 기원전 109년 사신을 파견하여 회유하였으나 반대로 요동 공격, 그래서 한나라가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한4군 설치, 낙랑군은 왕검성의 조선현에 치소를 두고 조선반도의 행정중심이 됨.(438~ 440쪽)</p>
	<p>- 고구려의 남천과 한민국가와의 각축</p> <p>고구려는 한나라 현도군 관할하의 중국 소수민족이다. 출몰 중원왕조에 예속되었던 중국소수민족지방정권이다.(442쪽)</p>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중국 북방의 거민이나 중국인의 이주로 건국, 발전 또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조선의 역사를 한국사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무제의 고조선 침략을 ‘침입(侵入)’이라고 표현하고 한4군이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며, 4세기 초 고구려가 남쪽으로 발전하여 낙랑을 멸망시킨 것을 ‘수복(收復)’이라고 표현하였다. 백제가 대방군을 차지한 것도 ‘수복’이라고 하였다.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설명에 중국 지방정권 등과 같은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인 1997년 처음 출판된 추이렌중의 책에서는 서술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저우이량의 책과 같이 ‘고대조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절은 지금 중조 경계인 압록강, 두만강 남쪽 조선반도의 고대 역사에 대해 기술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고대조선’은 ‘한국사’나 ‘한민족사’와는 철저히 구분되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기술일 뿐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기자조선·위만조선·한4군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선사에서 지리적 공간으로 북선을 한국고대사에서 분리했듯 주체만 중국으로 바꿔 공간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분리하여 실제로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사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진위푸 식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되살아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부분을 비교한 것이다. 한4군을 비롯한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는 두 책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설명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서술이 한국사가 아닌 일본사와 관련한 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이다. 근대 일본 학계는 식민사학을 비롯하여 일본사 연구에서 고대사회의 발전 원인의 하나로 한반도 남부 지배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서구식 사회발전단계론에 따라 노예제사회인 야마토국 흥망의 물질·인적 자원의 배경을 한반도 남부의 지배와 퇴출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중국 학계는 교과서 기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학 교과서에 반영된 임나일본부설은 중국 측에서 한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

〈표 3〉 인민출판사 『세계통사』 ‘임나일본부설’ 관련 기술 비교

저우이량·우위친 주편(1962·1973년판)	추이렌중 주편(1997·2017(개정)·2020년판)
<p>上古部分 제29장 고대 조선 제2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사회발전: 신라 “562년 신라는 반도 남단에서 침략세력인 왜인을 쫓아냈다.” 中古部分 제9장 중고 초기의 조선과 일본 제1절 신라통일시기의 조선 “554년 신라는 백제의 진공을 격퇴시켰고, 562년 일본의 반도 남단 거점인 임나를 소멸시켰다.”</p>	<p>古代卷 제10장 고대 조선과 일본, 제1절 고대 조선: 한인 국가의 형성과 발전 “1세기 중엽 변한인이 금관국을 건립했다. … 호태왕비 명문에는 ‘가라 임나라고 불렀다. 그 땅은 약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일대이다. 전해지는 말에 김수로가 42년에 건립했다고 한다. 금관국은 신라와 빈번히 전쟁을 행했다. 4세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4世紀時遭到日本侵略)” 532년 신라에 합병되었다.(442쪽)</p>
<p>上古部分 제30장 고대 일본 제2절 노예제도의 발전: 아마토(大和) 국가의 통일 “4세기 중엽부터 아마토국가는 조선반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먼저 반도 동남단의 임나를 점령하고 뒤에 다시 백제와 동맹을 맺어 신라를 공격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왕 때 여러 차례 남하하여 백제와 전투를 벌이고 또 야마토 세력을 축출했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야마토의 침략은 갈수록 심해졌다. 562년 아마토의 침략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조선반도에서 퇴출했다.(410쪽) 아마토가 조선을 침략한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에서 인구를 약탈하여 노예와 부민으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점거하여 중국과 직접 교통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아마토국가의 대외침략은 귀족집단 세력을 확대시키고, 노예를 늘렸다. 지방의 씨족, 귀족은 압제를 받는 동시에 인민에 대한 착취를 가중하여 내부모순의 첨예화가 가속되었다.”(411쪽)</p>	<p>제2절 고대 일본: 부민제 “아마토국가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웃 나라인 조선을 침략하였다. 4세기 중엽 조선반도 남단에 변한 가야국의 수중에서 임나(지금의 부산, 김해 일대)를 탈취하여 북쪽으로 침략을 계속할 거점으로 삼았다. 신라의 역량이 강대해진 이후에 아마토 침략 세력을 조선반도에서 축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토국의 사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458~459쪽)</p>

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식민사학의 설명을 검증 없이 수용했던 근대 중국 역사학계의 굴절된 지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37 저우이량과 추이렌중의 판본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사회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사회발전단계로 고대 노예제사회에 대한 기술의 강조 유무이다. 개혁개방 이후 유물사관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시기에 나온 추이렌중의 판본은 저우이량의 판본에 비해 고대 노예제사회 기술이 약화되며 해당 부분의 분량이 축소되었다. 최근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역사교재들은 위에서 살펴본 『세계통사』 두 판본의 역사 인식 및 서술, 그리고 서술의 변화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개혁개방 이후에 나온 대학 역사교재는 대개 고조선에서 고구려·발해를 중국 동북사의 일환으로 보았고, 시공간적으로 축소된 한국고대사상을 드러낸다.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는 근대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

1981년 중국 교육부 주도로 제작되었던 『중국고대사(상책)』이 2000년에 신판으로 개정되었는데, 주편 중 한 명인 장하이펑(張海鵬)은 최근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주편을 담당한 인물이다.³⁸ 이 책의 「제7장 서한 통일민족부건국가의 발전 제3절 서한과 주변각민족의 관계 5. 한과 동북 각족(各族)의 관계」를 보면 서한 시기 동북지구에 거주한 소수민족으로 주요하게 부여·숙신·읍루·고구려·오환·선비·옥저·예맥 등이 있다고 하였다.³⁹ 「제6절 서한시기의 중외관계 2. 한과 동아·남아 각국의 경제문화교류-한과 조선의 관계」에서는 서한 초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조선왕이 되었고 요동태수와 외신(外臣)을 약속했는데 조선의 내부분열 등으로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이 한조의 통치에 저항했으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8장 동한 중앙집권국가의 통일에서 분열로 제3절 동한 민족관계와 대외관계 2. 동북 각족」에서는 오환·선비·부여·읍루·고구려·예맥을 동북민족으로 서술하였다.⁴⁰ 「제8장 제3절 5. 대외관계-조선, 일본과의 왕래」에서는 삼한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낙랑군에 예속되었다고 하였다.⁴¹ 이상에

중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수정본은 중국 국정 중등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술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38 朱紹侯·張海鵬·齊濤 주편, 2004, 高等院教文科教材 『新版 中國古代史(上)』, 福建人民出版社, 1981년 서문에는 이 책이 중국 교육부 주도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뒤 2000년 신판을 내며 주소후가 서문을 개정하였다.

39 朱紹侯·張海鵬·齊濤 주편, 2004, 위의 책, 225쪽.

40 朱紹侯·張海鵬·齊濤 주편, 2004, 위의 책, 274~276쪽.

41 朱紹侯·張海鵬·齊濤 주편, 2004, 위의 책, 280쪽.

서 부여·고구려·예맥·옥저 등을 중국 동북 소수민족으로 보고, 고조선은 외신·신속 관계로 보았다. 그런데 고조선을 한국사로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 동한의 대외관계-조선과의 왕래라는 항에서 삼한만 기술한 것을 보면, 남선만을 한국고대사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잔즈칭(詹子慶)의 『중국고대사(상책)』⁴²도 비슷한 구성과 서술이 확인된다. 보통고등교육 95 국가급중점교재인 자오이(趙毅)·조오티에펑(趙鐵峰) 주편의 『중국고대사』⁴³도 그렇다.

리우지아허(劉家和)·왕둔수(王敦書) 주편, 『세계사-고대사편(상권)』에서는 한국고대사를 통일신라 이후부터 기술하고 있다.⁴⁴ 이것은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 하권의 기술과 동일하다.⁴⁵ 이 『세계사』 시리즈⁴⁶의 총 주편 중 한 명인 치스룽(齊世榮)은 최근 나온 중국 중학교 국정 『세계역사』(인민교육출판사)⁴⁷의 총주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6~7세기 무렵 중국이 다시 수당 양조에서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당은 매우 강대한 중앙집권제 국가의 법제를 완비하고, 고도로 발달된 중국 봉건문화는 주변국가와 동아시아에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하에 조선반도의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정치체제 개혁과 집권화가 강화되었다. 신라는 나날이 강성해져 일본의 조선에 있는 침략세력을 축출하고 일본의 맹국인 백제를 위협하였다. 동아시아 정치형세의 변화는 일본에 거대한 압력을 주었다. 특히 조선에서의 실패로 야마토국은 대륙의 선진문화통로 상실, 경제방면에서 위중한 손실, 정치위신의 하락, 사회위기 심화 등 엄중한 국내외 형세의 압력으로 다이카개신을 추진하였다. 성덕태자는 수 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을 기회로 조선에 출병하여 임나

42 詹子慶, 2002, 『中國古代史(상책)』(초판: 1996), 高等教育出版社.

43 趙毅·趙鐵峰 주편, 2004, 『中國古代史』(초판: 2002), 高等教育出版社.

44 劉家和·王敦書 주편, 2005, 『世界史 古代史編(상권)』(초판: 1994), 高等教育出版社, 34쪽.

45 中國教育部, 2020, 『中外歷史綱要(下)』, 人民教育出版社, 25쪽.

46 高等教育出版社, 『世界史』 시리즈의 총주편은 吳于廑, 齊世榮이다.

47 中國教育部, 2018·2019, 『世界歷史』 9학년 상·하, 人民教育出版社.

(조선반도 남단)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려고 하였다'고 서술하였다.⁴⁸ 여기서 삼국은 한국고대사 체계의 삼국이 아닌 지리적 공간인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삼국이다.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는 여전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서술이 좀 더 두드러진다.

대개 중국 대학 역사교재는 개혁개방 이후 이상과 같은 서술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동북공정'식 역사이해를 적극 수용한 교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최근 중국은 전근대 동아시아 관계를 '종번관계(宗藩關係)'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반영하였다. 이는 전통시대 천하질서의 종주국으로서 중국과 제번이라는 관념을 근대 이래의 종주국과 종속국에 대한 이해와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나라와 민족은 모두 중국사의 범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그러한 주장이 반영된 대학 교재도 출현하여 귀추가 주목되는데, 양진(楊君)·장나이허(張乃和) 주편의 『동아시아-역사 이전부터 20세기 말까지-』⁴⁹가 그 예이다. 이 책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한반도에서 삼국이 가장 오래된 국가라고 하였다. 한4군 설치 이후 조선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은 줄곧 중국의 군현에 의해 통치되었고, 남부 삼한민족은 낙랑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출현 전의 조선반도는 완전히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하였다.⁵⁰ 위진남북조 시기 삼한민족은 백제, 신라로 발전하여 중국과 조공관계를 가졌다. 고구려는 초기에 현도군의 고구려현 부족 수령이 중국 중앙 왕조의 관직을 임명받아 완전히 중국 지방정권으로 존재했고, 조선반도 북부로 통치 중심을 옮긴 뒤에는 중원왕조와의 조공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백제·신라 역시 당 왕조의 통치하에 있는 지방정권이며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하였다.⁵¹ 이런 논리

48 劉家和·王敦書 주편, 2005, 앞의 책, 43~44쪽.

49 楊君·張乃和 주편, 2006, 『東亞史-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50 楊君·張乃和 주편, 2006, 위의 책, 101~102쪽.

51 楊君, 張乃和 주편, 2006, 위의 책, 130쪽.

라면 고려·조선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이자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한 논리가 함축된 개념이 ‘중번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양진·장나이허의 책을 제외하고 개설서나 교재 등의 내용이 새로운 학술성과를 빠르게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보이는 이상의 기술이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고조선에서 발해까지에 대한 이해는 중국 체제의 특성상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의한 설명에 이견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토 밖에 있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이해, 즉 임나일본부에 대한 설명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곧 한중 수교 30주년(2022)이 되는데, 그동안 한중 간에는 많은 학술 교류가 있었으며 한국 연구 성과를 독해할 수 있는 중국 학자도 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최근 나온 중국의 관련 논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대학 역사교재의 서술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⁵²

예로 판잉(潘穎)의 「다이카 개신 이전 일본과 조선반도와의 관계」⁵³에서는 5~7세기 중엽 한반도에서 삼국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와의 충돌에서 일본과 결맹하였는데,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이익(즉, 임나가라)을 유지하기 위해 백제와 밀접하게 왕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일본이 임나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간접 공제하였고, 임나의 멸망으로 일본이 반도에서의 세력을 잃었다고 보았다.

양진(楊軍)은 「임나고론」⁵⁴에서 전형적으로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임나일본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 주로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항목(國家社會科學基金重大項目)’ “조선반도 고대사 연구(朝鮮半島古代史研究)”의 지원금을 받아 한 연구의 역사 인식이

52 중국 학계의 한4군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이전이나 2000년대 이후 나온 연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한 내용은 奇修延, 2007, 「中國學界의 漢四郡 研究 동향과 분석」, 『문화사학』 27 참조.

53 潘穎, 2012, 「論大化改新之前日本與朝鮮半島的關係」, 『雞西大學學報』 12-6.

54 楊軍, 2015, 「任那考論」, 『史學集刊』 2015-4.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의된다. 그는 3세기 말 낙랑 대방군이 해외(한반도)에서 군현 관할 밖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며, 삼한의 여러 부가 무질서하게 검병을 시작했고, 백제·신라가 통합하지 않은 삼한 소국을 가라 혹은 가야라고 하는데, 일본이 임나라고 통칭하고 공제했다고 하였다.

차이핑린(蔡鳳林)은 「4~7세기 조선반도와 고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관한 시론」⁵⁵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정치적 관계가 중국인 위만의 조선에서 시작되었고,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한4군 설치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낙랑군은 400여 년간 존속되어, 3세기 전반 중국과 일본의 정치관계가 밀접해지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조위(曹魏)가 왜왕 비미호를 ‘친위왜왕(親魏倭王)’에 책봉한 것은 공손씨세력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왜국과 연합하여 위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정치상에서 일본을 중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을 중국의 책봉체제에 들어오게 하였다. 4세기 고구려(중국 동북민족이라고 표현)의 남하로 동아시아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쳐, 일본은 자신이 공제하는 임나가야지구를 매개로 백제와 결맹하여 고구려와 한반도 쟁탈 전쟁을 개시했지만, 점차 영향이 약화되다가 562년 신라가 임나가야지역을 병탄하자 한반도 공제의 교두보를 상실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논조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배(또는 공제)를 받는 임나를 인정한 채, 중국과 일본이 주체가 된 한반도 역사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 학계는 고대 한반도 남부에 대한 낙랑군·대방군의 영향을 강조하고, 일본의 임나 지배를 인정하되 일본에 대한 중원 왕조의 영향력과 조공책봉 관계를 강조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경향이 대학 역사교재에 반영된다면, 양전·장나이허의 책과 같이 남선의 역사마저 중국 고대의 지방사로 서술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5 蔡鳳林, 2019, 「試論4-7世紀的朝鮮半島與古代東亞國際政治」,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2.

IV. 맺음말

이상 중국의 ‘동북공정’식 한국고대사의 서사와 역사 인식이 근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근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봤던 중화주의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근대 일본의 역사학(식민사학과 만선사관)에 큰 영향을 받아 양자가 결합된 왜곡된 한국고대사상이 형성되었다. 황옌페이(黃延沛)의 『조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황옌페이의 책은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조선·고구려·발해를 한국사의 범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국은 일본의 만선사관에 대항하여 중국 동북사 체계를 확립해나가며,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중국 동북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모순되게도 남선만 한국고대사의 역사 공간으로 여겼던 만선사관과 맥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비주류가 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다시 주류가 되어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반봉건 계급투쟁을 중시한 마르크스 유물사관이 주류를 이루며, 북선의 역사를 한국사로 인정하였다. 남선의 역사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연구가 미진하여 근대의 인식이 거의 그대로 잔존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다민족 국가의 통일과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국주의가 강조되었고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 역사 서술의 불가침 이론이 되었다. 과거 진위푸 식의 역사 이해가 주류가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북공정’과 관련된 핵심 이론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다.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사 모두 중국 고대 동북 변경사(지방정권, 소수민족 정권)이며, 중국 중원의 중앙 정권에 종속된 중앙-지방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 근거는 첫째, 이들 나라가 중국 중원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둘째, 한민족과 관계없는 중국 고대 동북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고대사의 역사 공간은 한반도 남부만 남게 된다. 이것은 북선과 남선의 역사가 구분되며, 한민족의 계통이 삼한-신라-고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던 일

제 식민사학과 결과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의식화된 민족의식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론’과 중국 소수민족이 문명적으로 같은 문화 또는 중원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다원일체인 중화문명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중화문명론’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이 통합되어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태어나 하나의 ‘민족대가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 유물 사관과 충돌하는 중화주의 사관을 결합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사관의 담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초기 공산주의는 각 국가의 공산주의가 최종 하나의 공산당 권력 아래 대통일을 이루며, 모든 민족 역시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진다는 민족관을 가졌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민족관을 재해석하여 중국의 다민족이 중화민족으로 대일통을 이룬다는 이상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재탄생한 민족관에서 모든 민족의 과거 역사는 자동으로 중국의 역사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중국사는 한족중심의 왕조국가를 계승하였고, 비한족이 중원지구에 들어와 세운 국가를 정복국가로 보거나, 비한족이라고 해도 영역, 구성원, 문화적 내용 등을 고려해 중국사로 보는 일반적인 동아시아사 시각과는 전혀 다른 역사 서술이 가능해진다. 중국 영토 내 각 민족과 국가, 정치세력 간에 있었던 전쟁은 그 성격 유무와 상관없이 통일전쟁으로 설명된다. 이런 논리에서는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이나 수당의 고구려 침략은 침략이 아닌 정벌이자,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론’과 ‘중화문명론’은 현 중국을 범위로 하는 ‘통일적다민족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용,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역사적 중국’에 포함되는 변경 지구의 역사가 고대부터 ‘조공책봉’ 관계에 의해 중원 왕조와 정치적으로 연속되어 있었고, 하나의 ‘중화문명’을 이루며 삼황오제로 대변되는 중국 인문시조(人文始祖)를 공통의 조상으로 여긴 의식화된 공동체 의식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매우 일찍부터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⁶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

이 중국과 모두 외교적으로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고,⁵⁷ 중국의 한자·유교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지배층 일부가 삼황오제를 자신의 선조로 내세우는 현상은 보편적이었다.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가진 주변국의 역사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제국적 질서에 언제든지 중국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시각은 최근 중국이 교과서 편찬을 국가권력이자 의지라고 표명하고 만든 국정 중등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대학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는 아니지만, 중국은 대학 교과서 역시 국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초중고는 물론 대학, 대학원까지 상호 유기적인 역사교육의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대학 역사교재까지 국정화된다면 한중 간의 역사 인식의 차를 해소할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양진의 『동양사』와 같이 ‘국가(완성된 고대국가를 의미) 출현 전 한반도는 중국에 예속되었다’, ‘백제·신라 역시 당왕조의 통치하에 있는 지방정권이며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선언적인 교재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56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중화문명탐원공정’과 ‘하상주단대공정’이다. 이를 통해 중화문명의 물적 근거로 고고학 성과를 활용하여 염제·황제·요순 등을 역사화하고 人文始祖로서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내용과 실상을 분석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서인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김인희 편, 2021, 동북아역사재단)가 최근 출판되었다.

57 조공책봉질서는 유교에서 이상화된 서주시대 분권적 봉건제에서 시작하여 천자와 지방 소국의 제후 사이에 실질적 주종의무관계가 존재하였지만, 춘추시대에 의례적 관계로 전국시대에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후 중국 내지가 아닌 외국과의 조공책봉은 외형은 비슷하나 실체는 달라서, 국가 간의 외교상 의례로 기능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원저: 1941), 동북아역사재단.
- 馬大正 등 지음, 조세현 번역, 2004,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재단.
- 마대정 주편, 2003, 이영옥 옮김, 2007, 『중국의 동북변강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부사년 저, 정지호 옮김, 2017, 『동북사강』(원저: 1932), 주류성.
- 이시영, 『感時漫語: 駁黃炎培之 韓史觀』: 성제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편, 一潮閣, 1983(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원문보기).
- 劉家和·王敦書 주편, 2005, 『世界史 古代史編(상권)』(초판: 1994), 高等教育出版社.
- 楊君·張乃和 주편, 2006, 『東亞史-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 王桐齡, 『東洋史』 民國叢書 제5편 73, 上海書店.
- 田亮, 2005, 『抗戰時期史學研究』, 人民出版社.
- 趙毅·趙鐵峰 주편, 2004, 『中國古代史』(초판: 2002), 高等教育出版社.
- 朱紹侯·張海鵬·齊濤 주편, 2004, 高等院教文科教材 『新版 中國古代史(上)』, 福建人民出版社.
- 周一良·吳於廑 주편, 1973, 『世界通史』(초판: 1962), 人民出版社.
- 中國教育部, 2019, 『中外歷史綱要(上)』,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 2020, 『中外歷史綱要(下)』, 人民教育出版社.
- 詹子慶, 2002, 『中國古代史(상책)』(초판: 1996), 高等教育出版社.
- 崔連仲 주편, 2020, 『世界通史』(초판: 1997, 개정: 2017), 人民出版社.
- 黃炎培, 1929, 『朝鮮』, 商務印書館: 경인문화사 편집부, 200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200, 경인문화사.
- 稻葉岩吉·矢野仁一, 1941, 『朝鮮史 滿州史』(초판: 1935), 東京: 平凡社.

논문

- 강성봉, 2009, 「1930~194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 푸쓰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 권혁수, 2007, 「근대 이래 중한(中韓)양국의 상호인식 - 황염배(黃炎培)의 『조선(朝鮮)』과 이시영(李始榮)의 『감시만어(感時漫語)』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38-1.
- 奇修延, 2007, 「中國學界의 漢四郡 研究 동향과 분석」, 『문화사학』 27.
- 김은국, 2006, 「중국 대학교재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 고구려연구재단.
- 김정현, 2010, 「20세기 중국의 한국사 서술과 일본의 식민사관」, 『중국학보』 61.
-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 근현대사연구』 23.
- 김창규, 2007, 「傅斯年의 민족문제 이해와 '東北' 인식」, 『역사학보』 193.
- 김현숙, 2006, 「중국 대학교재에서 서술된 삼국관련 내용 검토」,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박종박, 2012,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의 등장과 동북공정의 논리적 모순」, 『사총』 77.
-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연구」, 『북방사논총』 8.
- ,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 白永瑞, 2005,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아시아관」, 『대동문화연구』 49.
-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손승희, 2006, 「“금구(禁區)”에 대한 도전 - 중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사학보』 191.
- 송호정, 2000,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韓國古代史論叢』 10.
- 안병우,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2.
- 여호규,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
- 오병수, 2013, 「근대주의와 내셔널리티: 黃炎培 『朝鮮』 저술의 사상 맥락」, 『중국근현대사연구』 60.

- 王元周, 2005, 「근대 중국인의 한국 인식: 경로와 특징」, 『동방학지』 132.
-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인식과 중화사관-고중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6a, 「중국인의 ‘南朝鮮 漢城’: 20세기 중화주의」, 『환호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_____, 2006b,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 ‘東北工程’의 논리」, 『환호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윤휘탁, 2006,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중화외식」, 『중국사연구』 45.
- 이병호, 2008, 「동북공정 전사-傅斯年의 ‘東北史綱’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20.
-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이양수, 2018, 「일본의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빈,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 이준성, 2014,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만선사’의 성격」, 『인문과학』 54.
- 이찬원, 2004, 「근대중국 지식인의 대한국관(對韓國觀)-황염배(黃炎培)의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4.
-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그리고 ‘朝鮮」,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교육부 일제강점기 역사교육의 제 문제』, 역사교육연구회.
- 정옥재, 2001, 「李始榮의 感時漫語研究」, 『한국고대사학보』 4.
-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 조이욱, 2008, 「발해사」,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 주한귀, 2008,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 역사’인식」, 『동아시아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채미하, 2008, 「고대사」,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 최재석, 2003, 「1892년의 하야씨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고대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8.

타키자와 노리오키, 2003, 「稻葉岩吉과 ‘만선사’」, 『한일관계사연구』 19.
한규철, 2007, 「해제」, 『金毓黻의 동북통사』 상, 동북아역사재단.

潘穎, 2012, 「論大化改新之前日本與朝鮮半島的關係」, 『雞西大學學報』 12-6.

楊軍, 2015, 「任那考論」, 『史學集刊』 2015-4.

蔡鳳林, 2019, 「試論4-7世紀的朝鮮半島與古代東亞國際政治」,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2.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

권은주

근대 중국의 역사학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봤던 중화주의 역사인식에 기반하여, 근대 일본의 역사학(식민사학과 만선사관)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중국 학자들은 두 가지 역사 인식이 결합된 왜곡된 한국고대사 이미지를 만들었다.

중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일본의 만선사에 대항하여 중국의 동북사 체계를 확립해나갔다. 그러나 고조선(한4군), 고구려, 발해를 중국 동북의 역사로 여기면서, 모순되게도 오직 남선(南鮮)만 한국고대사의 역사 공간으로 여겼던 만선사와 맥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비주류가 되었으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다시 주류가 되어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었다.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역사교과서에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최근 중국은 초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대학 역사교재도 국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중국 대학 역사교재, 일본의 식민사학, 만선사관, 중화주의, 중국의 교과서 국정화, 중국의 역사 교육, 중국의 한국고대사상(像), 고조선, 한4군, 임나일본부, 남선(南鮮)

ABSTRACT

Changes in the Chinese Narratives of Gojoseon, including Four Commanderies of Han, and Imna-Ilbonbu in Their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An Image of Korean Ancient History as a Mixture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Sinocentrism

Kwen Eunju

Modern Chinese histor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and Manseon historiography, on the basis of the Sino-centric belief which regards China centered in East Asia. Consequently, Chinese scholars have created a distorted image of the Korean ancient history, derived from an inherently conflicting mixture of both historical perceptions.

During the period when Japan's invasion of China was in full swing, China established a historiography of Northeast China against Japan's Manseon historiography. However, it was in line with the Manseon historiography in the sense that it regards Gojoseon(including Four Commanderies of Han), Goguryeo, and Balhae as the history of

northeast China, and views only Namseon as the historical space of the Korean ancient history.

The Chinese perception of history did not become a mainstrea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t became a mainstream again and was reflected in their history textbooks. The perception has been inscribed in the major history textbooks in their universities. In recent years, China is showing its will to nationalize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following the nationaliza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its insistence is likely to be intensified in the future.

Keywords: Chinese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Manseon(滿鮮, Manchuria and Joseon) historiography, Sinocentrism(中華主義), Nationalization of textbooks in China, Chinese history education, Images of ancient Korean history in China, Gojoseon(古朝鮮), Four Com-mandereries of Han(漢四郡), Imna-Ilbonbu(任那日本府), Namseon(南鮮, south Jose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종합적 접근과 중층적 연구방법론 제시

– 장세윤 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495쪽

김주용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조교수

- I. 지역의 경계를 넘어
- II. 저서의 중심축: 인물, 자료, 공간
- III. 주목받은 역사를 재정립하다
- IV. 역사 복원에 중심: 균형의 미학
- V.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공간적 지평:
연구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



I. 지역의 경계를 넘어

2021년 현재 해외한인거주자는 약 750만 명에 달한다. 세계 전역에 넓게 분포된 이들의 이주 연혁과 삶의 형태는 비록 달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지역 가운데 만주지역은 한국인들에게 ‘독립운동의 공간’이자 귀환자들에게는 ‘생존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해방 후 중국 공민의 지위를 획득하여 살아간 조선족은 200여만 명이었다. 오늘날 조선족은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이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개혁개방 이후 대도시에서의 생활로 거주지의 외연을 넓혀갔으며,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사회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방은 공간적으로 현재 중국의 영토이지만, 한국사에서 보면 고조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주국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주로 20세기 전반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로 알려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한인들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주요한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나친 겸손을 보이면서 저술된 이 역서는 만주지역을 연구하는 초학자뿐만 아니라 필자를 비롯한 만주지역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으로 활약하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전념한 진정한 ‘만주학인’이다. 특히 저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재직하면서 만주지역 무장투쟁사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더 다양한 시각으로 중국과의 관계 및 독립운동가의 일상사 분야까지 연구분야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동시대 연구자로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로 20세기 전반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로도 알려졌던 지역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종합적인 전공서이다. 뿐만 아니라 중층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신선하고 모범적인 전공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독립기념관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중국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전문가로서 이 분야의 해박한 식견을 가진 연구자이다. 따라서 필자로서 과연 이 역저의 서평을 쓸 자격이 있는지 잠시 고민도 해보았다. 전공이 지역과 지경학적으로 동일하고 연구대상도 겹치기 때문에 저자에게 누가 되는 서평을 쓸 수 없다는 다짐도 해보았다.

필자는 이 책을 저술한 저자의 논지가 무엇이며 이 책의 연구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다. 인물, 자료, 공간을 중심축으로 한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저자는 익히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자료를 통해 재해석하려고 시도했으며, 참신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중 공동항일투쟁의 공간적 무대로서 중국 동북지역(만주)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하였다. 이 저서가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순결과 한중공동항일투쟁의 역사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서평을 작성하였다.

II. 저서의 중심축: 인물, 자료, 공간

이 저서는 크게 서론을 제외하고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부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일본의 한국식민지 통치와 한국인의 대응을 다루었다. 제1부는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 기지개척과 독립군의 형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부는 1920년대 초 독립전쟁과 1930년 전후 민족운동 세력의 동향을 중층적으로 살펴해보았다. 제3부는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침략과 한중 연대 공동항전을 분석하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종합적 접근과 중층적 연구방법론 제시

- 장세운 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495쪽 | 2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 이 저서에서 활용한 자료는 저자가 수십 년간 수집한 자료로서 각 주제에 맞게 배열하였으며, 특히 참의부 관련 부분은 중국 측 당안자료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저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목차와 각부의 소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와 한국인의 대응

1. 일본의 대한제국(한국) 강점과 식민지 지배, 한국인들의 저항
2.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
3. 독립운동 연구의 의의 및 한국독립운동의 성격
4.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
5.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의 시사점과 교훈
6. 한민족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7.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성격과 의의

제1부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의 형성

제1장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1. 안동 유림과 신흥무관학교
2.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안동 유림의 남만주 이주
3.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건립과 안동 유림
4.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졸업생·교관·김구·일제의 인식
5. 신흥무관학교와 김대락·이상룡·김동삼의 활동
6.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의 의미

제2장 1910년대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1. '공화'의 개념과 공화주의 수용
2. 신민회의 설립과 명망가들의 남만주 이주
3. 1910년대 주요 선언서류의 검토

4. 중국 동북지역 주요 독립운동 단체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5.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세력의 공화주의 수용과 독립전쟁 전개

제3장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인 독립운동 조직·항일 유격대의 형성과 유형

1. 중국 동북 항일무장투쟁의 두 흐름—독립군과 항일유격대
2. ‘독립군’의 개념
3. 한국의 일반적 ‘독립군’ 개념과 용례
4. 1910~20년대 초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의 형성
5. 중국 동북지역에서 당·정·군 체제 성립과 ‘당군’으로서의 독립군
6. 독립군의 1930년대 초 한·중 연대 실현과 공동 투쟁
7. 중국공산당 만주조직 산하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형성과 발전
8. 1910~30년대 독립군·항일유격대의 형성과 유형

제2부 1920년대 초 독립전쟁과 1930년 전후 민족운동 세력의 동향

제1장 「홍범도일지」 재검토를 통해 본 봉오동전투·청산리독립전쟁

1. 만주 독립전쟁과 「홍범도일지」의 중요성
2. 홍범도의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부대의 형성
3. 독립군의 봉오동전투 개관
4.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봉오동전투
5. 청산리독립전쟁의 개요
6.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청산리독립전쟁
7. 청산리독립전쟁 전과의 검토
8. 1922년 1월 ‘극동민족대회’에서 보고된 만주 독립군의 활약상
9. 일본군의 패배와 북간도(중국 연변) 일대 초토화 작전
10. 봉오동전투·청산리독립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 참의부 자료의 검토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종합적 접근과 증충적 연구방법론 제시

- 장세운 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21, 495쪽 |

20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자료 수집 경위
2. 중국 당안관 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점
3.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참의부의 관계
4. 자료의 구성과 내용
5. 자료의 성격과 가치, 추후의 과제

제3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동북(만주)지역 확산과 한인 학생·민족운동 세력의 호응

1. 광주학생독립운동 연구의 필요성
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명칭과 연구현황 개관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와 전국적 확대
4.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일제 당국의 인식과 문제점
5.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연변지역(간도) 확산과 한인 학생·단체들의 호응
6.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동북지역 확산과 민족운동 단체들의 호응
7.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동북지역 확산과 그 의의

제4장 만보산 사건 전후 시기 한인 민족운동 세력의 동향과 향후 민족운동

1. 문제의 제기
2. 1920년대 후반~30년대 초 중국군벌 정권과 일제의 한인정책
3. 1920년대 후반~30년대 전반 재만한인의 존재 형태
4. 만보산 사건 직후 중국(정부)의 대응
5. 만보산 사건 직후 한인 사회와 민족운동 세력의 동향
6. 만보산 사건의 영향과 의미

제3부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침략과 한·중 연대 공동항전

제1장 일본의 '9·18사변(만주사변)' 도발과 한·중 연대 공동항전(1931~1945)

1. 광복75주년과 대일항전 승전75주년의 시사점

2. 최근 중국 수뇌부의 항일전쟁 인식
3. 일본의 '9·18사변' 도발과 동북의용군의 봉기
4. 조선혁명군의 한·중 연대 공동항전
5. 동북항일연군의 성립과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활동
6. 김구·윤운기의 동북항일연군 인식
7. 1930년대 중국 동북지방 한중 연대 공동항전의 의의

제2장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조선의용대·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성립과 활동
3. 동북항일연군의 성립과 한인들의 활동
4.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성립과 활동
5. 해방 직전시기 동북항일연군의 중국공산당 중앙 인식과 종전 대책
6.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만주(연변) 진출과 연변 사회
7. 주보중의 '연변 조선민족보고'와 한인들의 정착
8. '동북항일연군 연변분견대'와 조선의용군 제5지대의 활동
9.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상호인식
10. 1940년대 후반 조선의용군의 확대와 국공내전 참전, 북한 입국
11. 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의 위상과 영향

위의 목차 가운데 서론 부분이 결론을 대신한 감이 없지 않다. 이 책은 연역법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다. 저자는 서론에서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입장에서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도 이러한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민중은 당대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생활의 주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 한인독립운동을 “대국적으로 바라본다면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있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식민지 종속해방운동과 기본적으로 전개행태와 이

념, 투쟁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저자는 국치 112년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100년, 아니 새로운 천년, 만년의 역사발전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자문하고 반문하였다. 늘 각성하면서 냉철한 이성을 갖고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실력과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이 치열하게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유산이라고 여긴 것 같다. 필자는 저자의 인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저서의 제1장은 중국 동부지역 독립군기지 개척과 독립군의 형성인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세력이 공화주의와 공화제를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였다.¹ 저자는 3·1운동으로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화정을 표방하기 이전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공화제에 기반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였다. ‘공화대의제’를 견지한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지역이 중국 동북지방이었으며,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대한독립군비단, 국민단 등은 이미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독립운동 방략을 세웠던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이념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독립군’에 대한 개념정리도 시도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독립군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립하려고 하였다. 저자는 독립군을 “주로 1910~1930년대 중국 동북지방이나 연해주 일대에서 뚜렷한 독자적 조직과 근대적 이념을 갖추고 조국의 국권회복이나 독립,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본군이나 경찰, 친일파, 조선총독부 관헌이나 밀정,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지방조직, 일본 정부나 외무성 또는 그 산하 기관이나 그 소속 인물, 단체, 괴뢰 만주국 관헌이

1 | 아쉽게도 북간도지역 독립운동기지 및 북만주 밀산지역 부분은 제외되었다.

나 경찰, 만주국군, 친일조직, 침략조직 등을 상대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직 혹은 그 조직 소속의 인물들”로 정의하였다. 다시 한번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개념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대목이다.

Ⅲ. 주목받은 역사를 재정립하다

저자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기록에 주목하였다. 특히 회고록이 역사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의 토대 제공이라는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1년은 이른바 자유시 참변 100년이 되는 해이며,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특히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논쟁’은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² 뿐만 아니라 청산리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철기 이범석의 자서전 『우등불』의 예를 들면서 자칫 회고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이 역사상의 왜곡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독립운동의 특성상 제국주의 일본이 생산해낸 문서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국인이면 거의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독립전쟁’을 ‘홍범도 일지’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물론 반병률 교수의 『홍범도 장군(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점도 있지만³ 저자는 이를 수용하여 담담하면서 정치하게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독립전쟁을 그려내었다.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홍범도의 편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군자금 모금 사례를 밝혀냈다. 이 책 제2부 1장 4절에서 저자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가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

2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장군의 태도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3 반병률, 2014, 『홍범도 장군(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한울.

라 연합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신민단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비파정 전투의 주역은 ‘일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범도 부대와 연합했던 신민단 군사였다”고 결론지었다. 한국독립운동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산리 대첩 역시 ‘홍범도 일지’를 통해서 재구성하였다.

저자는 홍범도가 청산리 전투에서 자신의 부대가 크게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솔직하게 기록한 것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청산리 대첩의 승자는 독립군이었으며, 제국주의 일본군은 크게 패하였다는 것이 등식처럼 고착화되어 있다. 물론 한국독립군의 승전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가 제국주의 일본 측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1일 관내 삼도구 청산리에서 야마다(山田) 지대와 김좌진 부대가 충돌하였고, 10월 22일에는 관내 이도구 어랑촌 부근에서 우리 토벌군 사령관 하기시 소장 이 이끄는 주력과 불령단이 충돌하여 수많은 우리 정예 대원을 잃은 것은 간도사건의 제1전초기지였던 만큼 서원(署員) 일반의 노력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적도의 경계 및 재류민 보호를 맡아 막대한 손해를 미연에 막은 일반 서원의 공적은 가장 현저하다고 인정된다.⁴

위의 내용은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군이 오늘날 연변지역 일대 이주 한인(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한인경찰관들에게 공훈을 주기 위해 작성된 공적서의 일부이다. ‘홍범도 일지’를 통해 청산리 대첩을 재구성 하였던 저자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일종의 혁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분명 그러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과 인물, 사건들에 대한 조명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산, 전파, 전승될 것이다”라고 ‘독립전쟁의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였다.

4 『在支帝國警察機關關係雜件』 ‘間島’-7책[應援警察官功績調書](大正10년 3월 1일, 在間島日本總領事館).

다만 주요 회고록의 사료적 가치와 향후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제는 연구자 맞춤형 사료제공 시스템은 지양하고 보다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서사(敍事)”적 관점 등 창작콘텐츠의 원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는데, 타당한 견해이다. 물론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비판적 계승, 발전도 간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자료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때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료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2021년 현재도 동북아시아는 역사전쟁이 진행 중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제노사이드가 형태만 바뀐 채 혐오와 갈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글로벌 평화를 주장하지만, 각 민족, 각국의 ‘평화’의 개념은 달리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遠因)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한일, 한중, 중일 등 크고 작은 역사적 문제의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근대 역사에 대한 시선과 기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충돌은 동북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은 역사적 경험을 복원하고 기억을 역사화하는 작업의 도구이다. 그래서 ‘홍범도 일지’는 더욱 소중한 자료이다. 동북아를 둘러싼 제국주의 시대 지배와 순치, 저항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회고록은 한국인들의 회고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한중일 회고록 연구팀을 구성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IV. 역사 복원의 중심: 균형의 미학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들에게 제국주의 일본이 생산해낸 자료들은 연구논문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료군(史料群)이다. 저자는 중국 당안관 참의부 자료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밀정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전역은 한국독립운동의 활동무대였다. 중국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관내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활동기록은 각 지역 당안관에 남아 있다. 하지만 중국지역 자료 수집을 경험한 학자들은 중국당안관의 높은 벽을 실감할 때가 많다. 특히 동북지역의 성급 당안관은 거의 철옹성에 가까울 정도이다. 물론 관내의 광동성 당안관이나 운남성 당안관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⁵

중국 지역 자료수집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정리, 분석하여 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한국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남경 및 중경 당안관의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 동북지역 지방 당안관 소장자료 현황과 수집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를 느낀다.

저자는 중국 요녕성 당안관에서 수집한 참의부 자료를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불령단 단체 조사표”에는 1924년 이후 압록강 일대 및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참의부 독립군단의 주요 간부들과 독립군 장병 25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주목된다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중국 자료와의 본격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자료 가운데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 독립군 부대였던 참의부 관련 자료를 통해 참의부가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민족주의 운동 단체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문서 하나로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기존 제국주의 일본의 외무성 또는 관동군의 정보, 그 가운데 밀정들의 정보에 의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격한 사료 비판이 따라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이 중국 당안관 소장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도 참의부 참의장 김승학과 윤세용의 나이, 고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으며, 다른 자료들과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함을 필수적 사안으로 지적하였다.

5 광동성 당안관과 운남성 당안관은 소개서를 지참하면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의 열기는 학생들에게도 파급되었다. 오늘날 학생의 날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광주학생운동(독립운동)이 그것이다. 저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독립운동)이 만주지역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밝히고, 각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를 통해서 보다 강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밝혀냈다.

용정에 있는 대성, 동흥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 전개된 광주학생운동의 외연이 확산될 수 있는 시위운동이 벌어졌는데,⁶ 이 학생시위는 1930년 1월 말부터 본격화되었으며, 3월까지 거세게 전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용정지역 각 민족학교의 광주학생운동 지지 시위 양상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독자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이 만주지역과 임시정부의 운동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용정을 비롯한 연변지역 한인 학생들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성원 및 지지에 대한 중국 지방경찰 당국의 감찰지시와 제국주의 일본의 치밀한 대응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차치 한반도 내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외연 확산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⁷

제국주의 시대 한국과 중국의 공동피해 및 공동항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 저자는 1931년 7월 중국 길림성 장춘 부근에서 발생한 만보산 사건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갈등 양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의도한 대로 진행

-
- 6 1920년대 초의 청년운동과 중반·후반의 청년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였으며 운동 양상도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전환해야만 하였다. 당위성과 선택의 문제는 당시 운동주체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1927년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을 계기로 당만중국 내 각파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후 동만청중의 운동 방향은 운동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청년운동은 비밀결사적 성격을 극복하고 유기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여 보다 대중운동을 지향하였다.
- 7 조소양 역시 광주학생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조소양은 「광주혁명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광주의 역사적 지위, 광주혁명 발생 이전 전국의 불안정 상태, 광주혁명 폭발의 진상, 경성시위, 여자 시위운동의 예비 대표회의를 밝혔다. 조소양 지음, 김보성·임영길 옮김, 2019, 『소양집』, 한국고전번역원, 151~171쪽 참조.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민족운동세력들이 향후 민족운동의 방향성을 잡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한중 연대를 통한 공동항전의 실상을 역사의 전면에서 재차 강조하였다.

V.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공간적 지평: 연구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

제국주의 시대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일본의 9·18사변(만주사변) 도발과 한중 연대 공동항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저자의 이러한 인식에 더하여 필자는 역사적 연대를 바탕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양국이 평화루트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기된 가장 일반적인 활용방안은 관광루트의 개발이었다. 그러나 관광루트는 활용 면에서는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교육과 연계하지 않으면 한계가 일찍 드러난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시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전쟁 기억은 유럽과 미주와는 판이하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에게 전쟁의 기억은 침략과 희생으로 각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주의적 장벽을 넘어서는 유용한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 평화공원의 경험을 내세운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애국교육기지’ 등 후세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전쟁의 기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평화에 대한 교육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주입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교육은 퇴색하기 쉽다. 평화연대는 자국민들에게 애국교육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앞세울 때 빛을 더욱 발하기 때문이다. 침략과 저항의 갈등 구조를 지양하고 인간존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독립운동의 고유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공동향전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복원하는 길이 진정한 동북아 평화의 토대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루트(和平大路)의 구상과 실현이 필요하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가해자의 망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공존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전쟁의 기억과 사적지의 활용은 더욱 절실하다.

일제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 시간을 순서로 하여 침략의 공간이었던 9·18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무순에 있는 평정산 참안지와 무순 전범관리소를 답사한 후 다시 심양의 ‘연합군포로수용소’와 심양 특별법정을 답사하는 평화루트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북아 각국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루트 개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전쟁의 공간이 중국이었지만 1937년 이후에는 동북아 모든 곳이 전장이었다. 중국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동북아 미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침략과 항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 시민사회의 연대와 평화루트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동북아 전쟁기억의 치유와 미래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각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민감한 문제까지 치유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평화루트 개발에는 각국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프고 슬픈 역사의 응답 가능성은 국경을 초월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상대 국가의 강도가 다른 전쟁의 기억을 치유하고 미래 평화 초석을 만드는 데 있다.

전쟁은 흔히 승자의 영광과 패자의 치욕으로 종식되지만, 패자의 치욕은 복수심을 불태우게 하여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승자의 영광을 꿈꾸게 한다.⁸ 그것이 바로 전쟁의 무한 반복이다. 전쟁을 극복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국제사회의

8 박선영·우영란·최봉룡·한상도, 2013, 『중국 랴오둥, 산둥반도 국제전 유적과 동북아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23쪽.

모본이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이것 역시 공허하다.

중국의 애국교육기지 지정 및 운영은 그들이 1931년 9월 18일을 국치일로 지정한 것과 연관된다. 항일전쟁의 시작인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인 사상자는 약 3,500만 명에 달한다. 더 이상 외세의 침략으로 자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애국교육기지 건설이었다.⁹ 중국은 동북 지역에 건립된 기념관, 박물관 등을 ‘애국교육기지’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⁰

‘애국교육기지’는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요녕성 본계(本溪)에 설립된 본계열사기념관(本溪烈士紀念館)은 애국교육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방 교육기지로 지정되어 군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타국의 침략으로 수많은 자국민을 희생시킨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힘없는 국가의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강력한 국가 위주의 애국교육은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정책에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더 강한 ‘애국’과 세계인의 덕목을 배양할 것이다.

첫째, 애국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국가마다 ‘애국’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칫 타국에 대한 배타적 경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국주의 전쟁 유적 가운데 기념관 또는 박물관의 결론은 평화였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¹¹ 그런데 정작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세계인들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 피해 속에서 70여 년이 지난 중국

9 羅存康·李鑫, 2010, 「중국의 항일전쟁 유적·유물 및 기념시설과 그 활용방안」, 『근현대 전쟁의 기억과 동북아 미래의 평화 발표문』, 387쪽.

10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I』, 동북아역사재단, 22~50쪽.

11 2015년 승전 70주년 재개관 기념식을 거행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침략’과 ‘항일’이라는 점에 매몰되어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미래의 중국인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오래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자는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이 지닌 동북아지역에서의 역사적 위상은 중국과의 공동항전의 역사와 함께 제국주의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융합공간으로서의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한 시각의 외연 확대 및 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한 부분, 즉 공간 자체에 대한 역사상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동과 비교 태도뿐만 아니라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협동해야 가능한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한중공동 항일투쟁사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 변연과 중심, 정착과 변용의 공간, 점이지대로서의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아에서의 점점 찾기에 학계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저자의 또 다른 역작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현장을 강조하면서 학제 간 융합의 자세까지도 선명하게 제시한 저자의 학문적 태도는 지역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여겨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두 개의 백년, 중국의 꿈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 서평

– 류핑한 저, 김승일·전영매 옮김,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

경지출판사, 2021, 386쪽

김지훈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 I.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세 번째 역사결의
- II.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에 대한 중국의 시각
- III.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중국의 꿈



I.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세 번째 역사결의

1921년 7월 23일 중국의 상하이에서 10여 명의 공산당원이 모여서 중국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대약진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에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미중 협력 관계 속에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창당 이후 100년의 시간을 거쳐 중국공산당은 50여 명의 당원으로 시작한 혁명정당에서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대 집권 정당으로 변신하였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발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던 국제관계를 변화시켰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북한 핵문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한일 간의 갈등, 양안 관계의 악화 등으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누적된 갈등 속에서 상호 불신과 반감(反感)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일상적인 대면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상호 불신 속에서 군비 증강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 등 해군과 공군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경쟁적 군비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 평화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동아시아’라는 이상(理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수만 명의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이날 행사에는 하늘에서 중국의 쟁(殲) 20 스텔스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을 비롯한 청년 세대들이 대거 참여하여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혁명정당에서 9,5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으로 변모하였고,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 국가인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시기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투영한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켜 근현대사 서술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왔다.

1945년 4월 20일 중국공산당 제6기 제7차 전원 확대회의에서 통과한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는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부터 1945년까지 역사를 정리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투쟁 방향이 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 중국 혁명의 실천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하면서 중국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81년 6월 27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약진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마오쩌둥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이 결의는 마오쩌둥과 마오쩌둥사상의 공과를 지적하고 개혁 개방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1945년과 1981년에 통과된 2개의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하여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경험, 교훈을 종합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역사인식을 통일하는 가이드 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개혁 개방 40여 년의 역사를 포함한 세 번째 결의가 최근 통과되었다. 2021년 11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당 100년 분투 중대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2021년 3월부터 시진핑(習近平)이 조장이 되어 결의문을 준비하였고, 9월 중앙정치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의견청취용 결의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결의문은 모두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다’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창당부터 제1차 국공합작과 분열, 토지혁명, 항일전쟁, 국공내전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하여 봉건정치에서 인민민주 국가로 전환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중요한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다.

3.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다’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의 의미와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열다’에서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목표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중국 인민의 운명을 바꾸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여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공산당의 100년간의 분투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6.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독립 자주, 개혁 혁신, 통일전선, 중국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10개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하고 있다.

7. ‘신시대 중국공산당’에서는 공산당이 당의 기본 이론과 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2개의 100년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의 7개 부분 가운데 제1부분은 공산당 창당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제2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까지, 제3부분은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다루고 있다. 제4부분부터 제7부분까지는 주로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주요 정책과 성과 등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공산당의 향후 목표와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세 번째 결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통과시킨 2개의 역사 결의를 계승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집권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 결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에 대한 중국의 시각

최근의 미중 대립 속에서 변화하는 중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국내에도 각종 저역서가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에 출판된 뤼핑한(罗平汉)의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는 중국공산당 창당부터 시진핑시대까지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

다. 이 책은 19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부터 개혁 개방 이후 21세기 시진핑시대의 변화 등 최근 중국공산당의 동향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의 저자인 뤼핑한은 화중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안교통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 중국인민대학 중공당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뤼핑한은 광시사범대학을 거쳐서 현재는 중국공산당의 고급 간부들을 교육하는 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 당사교연부 주임을 맡고 있다. 뤼핑한의 저서로는 『농촌인민공사사』, 『농업합작화운동사』, 『토지개혁운동사』, 『중국공산당백년발전역정』 등이 있다. 2006년 중국 교육부의 신세기 백천만 인재공정(新世紀百千萬人才工程)에서 국가급 인재로 선발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토지개혁과 농업합작 등 현대사 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는 뤼핑한의 『중국공산당백년발전역정』을 일부 수정하여 번역한 책으로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19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에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1장 중국공산당의 탄생’에서는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전파된 과정과 중국공산당의 창당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 대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에서는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 국공 양당의 분열을 다루고, ‘제3장 토지혁명의 폭풍을 일으키다’에서는 국공 분열 이후의 상황과 공산당의 장정,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 전민족 항전의 기둥이 되다’에서는 항일전쟁과 중국공산당의 발전, 정풍운동과 항일전쟁의 승리 등을 서술하고, ‘제5장 신 중국의 창건’에서는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해 다루었다.

이 책의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제6장 사회주의로의 과도를 실현’에서는 항미원조운동, 반혁명진압운동, 3반5반운동,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헌법 제정, 사회주의 개조를 서술하고 있다. ‘제7장 사회주의 건설의 굴곡적인 발전’에서는 반우파투쟁과 대약진운동, 경제 조정정책 등에 대해 서술하고, ‘제8장 문화대혁명을 겪은 10년’에서는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대해 다루었다.

이 책의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는 중국의 개혁 개방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제10장 21세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시기’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수립과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11장 새로운 역사의 기점 위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견지’에서는 과학적 발전관 등 후진타오시대의 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제1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새 시대에 진입’에서는 시진핑시대의 각종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현재 중국공산당의 역사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중국공산당의 탄생’은 “10월 혁명”의 포성은 우리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져다주었다. … 1919년에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다.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었다”라는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논함」(1949년 6월 30일)을 1장의 맨 앞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제2장 대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는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 최초의 시기인 1921년부터 1927년까지 특히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대혁명이 국제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아래 중국공산당의 올바른 영도의 영향과 추진, 그리고 조직 아래 빠르게 발전하였기에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는 중국공산당 제6개 제7차 전원 확대회의에서 통과된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1945년 4월 20일)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 토지혁명의 폭풍을 일으키다’와 ‘제4장 전 민족 항전의 기둥이 되다’도 1945년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1921년 중국공산당의 창당부터 1945년까지 중국공산당사의 기본 흐름이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1945년 4월 20일)에 의거하여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제5장 신 중국의 창건’은 “항일전쟁이 끝난 후 장제스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지원에 의지하여 평화와 민주를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전국 인민의 정의로운 요구를 거부하고 공공연히 전면적 내전을 일으켰다. …”고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1981년 6월 27일)을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의 ‘제6장 사회주의로의 과도를 실현’, ‘제7장 사회주의 건설의 굴곡적인 발전’, ‘제8장 문화대혁명을 겪은 10년’도 모두 1981년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의 ‘제9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개척’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덩샤오핑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전 당과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도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깊이 있게 종합하고 세계 사회주의의 역사 경험을 참고하여 덩샤오핑 이론을 창설하고 당과 국가의 업무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기고, 개혁개방을 실행한다는 역사적인 정책 결정을 내렸으며…”라는 시진핑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2018년 12월 18일)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제10장 21세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기’, ‘제11장 새로운 역사의 기점 위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견지’, ‘제1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새 시대에 진입’에서 모두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의 12개 장 가운데 제1장에서는 마오쩌둥의 1949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논함」을 한 차례 인용하고, 제2장~제4장에서는 1945년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세 차례 인용하고 있다. 제5장~제8장에서는 1981년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네 차례 인용하고, 제9장~제12장에서 2018년 12월 시진핑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네 차례 인용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1945년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주도하고 1949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논함」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책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마오쩌둥의 역사인식을 각 장의 머리말에 인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장~제8장 머리말에 네 차례 인용된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는 덩샤오핑이 주도하여 반포하였다. 제9장~제12장 머리말에서 네 차례 인용한 2018년 시진핑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사에 대한 시진핑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진핑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5년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와 1981년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는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통과시킨 결의이지만 네 차례 머리말에 인용된 시진핑의 2018년 연설은 중국공산당의 정식 결의가 아닌 연설이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사에서 시진핑의 지위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시진핑이 주도한 「당 100년 분투 중대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이 새로운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Ⅲ.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중국의 꿈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 코민테른은 보이틴스키를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공산당 초기 조직이 설립되도록 도왔으며, 1921년 6월 코민테른 대표 마링은 중국에 와서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창건될 수 있도록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코민테른이 보낸 보이틴스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1920년 8월 중국에서 최초의 공산당 초기 조직이 상하이에서 설립되었고, 1921년 6월 초 국제공산당 대표 마링과 국제공산당 극동지역 서기처 대표 니콜스키가 상하이에 와서 상하이공산당 초기 조직과 연계를 맺고 중국공산당의 정식 창당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여 중국공산당 초기 조직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13명의 중국대표가 참석하였다고 열거하고 국제공산당 대표 마링과 니콜스키가 회의에 열석(列席)하였다고 하

여 코민테른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공산당이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게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1934년 10월에 시작된 중국공산당의 장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1958년의 대약진운동과 1966년부터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전개된 4인방의 체포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에 대해서는 베이징에서 일어난 반혁명 폭동이었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계엄령을 발동하여 반혁명 폭란을 단호하게 평정했다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6·4천안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국공산당이 6·4천안문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1937년 7·7사변부터 1945년까지 8년 항전이라고 하였지만, 최근 시진핑정부는 1931년 9·18사변부터 국부적 항전을 하였고, 1937년 7·7사변부터 전면 항전을 1945년 8월까지 수행하여 모두 14년 동안 ‘항일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행의 모든 역사교과서에서 ‘항일전쟁’ 기간을 14년으로 바꾸었다. 이 책도 14년 항일전쟁을 거쳐 중국 인민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여 14년 항일전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뤄핑환의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공산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1992년 초 덩샤오핑이 남방 담화에서 발언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당의 기본 노선은 10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개혁과 개방을 좀 더 대담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과감하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시험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의 시비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증강시키는 데 유리한가?’, ‘인민

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한가?’를 보아야 한다. ‘계획적인 요소가 더 많은냐?’ 아니면 ‘시장적인 요소가 더 많은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없애고, 양극분화를 없애며, 중국적으로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이 발언을 통해서 1989년 6·4천안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의 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의 발언 가운데 생산력 발전과 종합 국력,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이 중요한 것이고 계획적인 요소나 시장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이 발언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이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착취와 양극분화를 없애며,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시진핑정부에서 공동 부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이미 덩샤오핑이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시진핑의 신시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다.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중국공산당 규약(수정안)」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과 함께 당의 지도사상으로 명기하였다.

이 책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사는 특별히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지도자들의 사상과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의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과 성과를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이웃 국가의 집권당의 역사와 그들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뤼핑한의 『중국공산당 100년 약사』는 현재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창당 이후 현재까지 100년의 공산당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중국공산당의 정책 방향과 노선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강승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4호(2021. 12)

초판 1쇄 인쇄 2021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